

강민숙
Minsook Kang

작가노트

나의 작업은 세계의 불확실한 상태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일상 사물의 이질적 결합과 다양한 매체들의 만남을 통해 시각화된다. 이러한 작품은 완결된 텍스트라기 보다 하나의 멀티미디어를 구성하는 불완전한 객체에 가깝다. 따라서 작품은 작품의 외부조건 즉 다른 작품, 주변 공간, 관람자의 관계를 토대로 일시적으로 결합되고 형성된다. 이러한 작품의 이탈과 우연적 만남을 통해 완벽한 메시지 전달의 소통이 목적이 아닌 열린 구조의 서사, 열려있는 상태를 만들고 끊임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의 개념적, 재료적 불확실성은 형태적으로 비물질성, 연약함, 일시성, 가변성의 속성을 지닌 사물의 조합 및 설치와 영상이라는 매체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무거운 자연석을 수직적으로 쌓아올린 형태와 바퀴 <Moving Pagoda, 2012>, 수박무늬 비치볼을 반복적으로 달아 내린 형태와 모터 <수박 비치볼, 2012>, 고무공 위에 얹혀 진 사다리 <공중 사다리, 2012> 센서에 의해 미세하게 움직이는 흰 덩어리 <Someone We Know, 2011> 바람에 의해 떠다니는 비닐봉지 영상 <Empty Travel, 2010> 기존의 전시공간을 사무실 집기 및 스텝들로 새로이 배치하고 익숙하지만 낯선 사물들 (선풍기, 커튼, 바위 등)로 연출 된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2013>은 서로 다른 것들이 결합하며 공존하는 하나의 무대로 연출 된다. 레지던시 입주작가들이 오픈스튜디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소재로 출발한 ‘Another Studio, 2013’는 일시적으로 작가들에게 불필요하거나 사적인 사물들을 보관해주는 동시에 또 다른 전시의 형태로 발전된다. 이처럼 공간 안에 설치된 작품은 아무런 일화나 내러티브 기술의 흔적조차 읽혀지지 않는 단순한 시각적 기호 혹은 분산된 요소들의 집합체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시각적 형태가 아니라 작업이 형태로 나온 후 또 다른 변화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며 이들의 만남 안에서 새로운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이처럼 완결되지 않고 변용 가능한 공간, 장소, 시간의 기입은 공간 심리적 상황에 관객을 내던진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에 급급하여 작업 내에서 의미를 찾거나 관람자들에게 논리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대신 공간 내에서 감각들을 자유롭게 하는 순간, 공감각적 체험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연장 속에서 앞으로의 작업은 최소한의 결합과 거리두기를 통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보다 더 즉흥적이고 우연한 요소를 결합시키며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통해 불확실성을 생산하는 것이 내 몫이라 생각한다.



Another Studio
레지던시 입주 작가 집기 및 혼합매체,
가변연출, 2013

강민숙

학력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영상매체예술
연합전공, 2012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2010

개인전

— 〈Ground〉, 스페이스 켄, 서울,
2012

그룹전

— 〈오픈스튜디오〉,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3

— 〈()를 위한 무대〉, 인사미술공간,
서울, 2013

— 〈AR Festival〉, 파주출판단지,
파주, 2012

— 〈제11회 서울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아이공, 서울, 2011

RESIDENCY

—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3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Minsook Kang



Ground 전시전경, 2012



Another Studio
레지던시 입주 작가 집기 및 혼합매체,
가변연출, 2013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인사미술공간 집기 및 혼합매체,
가변연출, 2013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Ko, Young-Taeg
작업 텍스트		Text for the work
<p>사람의 소리 즉, 말은 서로간의 대화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다가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소리의 주고받음을 통해 생겨난 관계의 중첩은 사회를 이루고, 그 속에서 소리의 흐름은 쌓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하여 긴 역사를 만들어 낸다. 현재를 살아가는 내게 동시대의 소리를 기록하고 작업으로 옮기는 일은 위 과정에 대한 참여의 방법이며 실천의 중요한 재료이기도 하다. 나와 타인의 사소한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따라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각기 다른 삶의 태도와 이해의 방식은 항상 나의 세상을 뛰어넘는다.</p> <p>상대방과 대화를 통한 소통의 방식은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거나 이해를 요구한다. 일정 시간의 소요가 진전되고 찾아오는 침묵은 결속과 와해의 지점을 줄다리기 한다. 공동-내-개인으로 존재하는, 공동의 불가능성을 통해 드러나는 개인의 공동체를 향한 열망. 몇 년 전 눈으로 보았던 어떤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작업은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현실에 드러나는 다양한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번째는 형성된 공동체 속에서 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p>		<p>The sound of human beings, words serve as an important tool to understand and access to others through the conversation. Overlapping of a relationship through giving and taking the sound forms a society, where the flow of the sound is repeatedly piled and scattered to make a long history. To me who live in the present, recording the contemporary sound and working on it is a way of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and an important source of practice. A range of life attitude and understanding methods learned while listening to others' voices from the change of subtle emotions sensed in small talks with others go beyond my expectations all the time.</p> <p>A communication mode through conversations with the other needs tossing around or understanding. Silence after the certain time required plays tug-of-war for the point of solidarity and collapse. Personal desire for the community discloses the communal impossibility which exists as a person-within-group. Begun with anticipation for the potential of a community I saw a few years ago, the work is carried out in two ways: one is to show a diverse community, and the other to cast a question about the potential within the community established.</p>
<p>일상의 공동체</p> <p>수많은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들은 저마다 적당한 자리를 찾아 삼삼오오 앉아 대화를 나누고 짧은 구호가 적힌 종이들을 건넨다. 하나의 사건. 또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은 구호를 외치고 함께 노래를 부른다. 무엇이 그들을 모이게 했을까. 직접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그들의 친구와 가족, 공감대를 형성하고 절박함을 느끼는 많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모여든 현장은 사회의 여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의 장소로서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는, 또는 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이다.</p>		<p>Community in everyday life</p> <p>A great many people are gathered in a place. Men and women from all age groups find their own suitable seats to talk by twos and threes, passing the note with short slogans. People gathered with a case or a goal shout slogans and sing songs together. What makes them gather together? Those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case, their friends and family members, and many others who form a bond of sympathy and feel desperation. As a place for the speech to resolve various conflicts of society, the spot with these gathered people is to make one voice to call for the solution of the case or to find a solution to a problem.</p>
<p>급진적 소통, 다시 말해 계급, 나이, 성, 문화의 차이에 대한 구별 없이 처음 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게 했던 열림 [...] 모두의 평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같이-있음의 가능성을 모든 실리적 관심 바깥에서 드러내는 것이 문제였다. 각자는 뭔가 말할 것이, 때로 (벽에) 써야 할 것이 있었다. 그런데 무엇을? 그것은 거의 중요하지 않았다. 말함 이 말하여진 것을 능가했다.</p> <p>〈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모리스블랑쇼, 장뤽남시</p> <p>연인들의 공동체 (같이 있음) — 사람들이 산을 오른다. 두세 명이 짝을 이뤄 바위에 앉아 휴식을 취한다. 이야기를 나누며 산 아래 펼쳐진 풍경을 바라본다. 오르던 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내려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넨다.</p>	<p>Radical communication, i.e. openness to get together with strangers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of the class, gender and culture. [...] It was a matter of revealing the potential of being-together to prove the right that all were equal outside all practical concerns. Everybody had something to speak, sometimes to write (on the wall). Then, what? That is hardly important. Speaking surpassed being spoken.</p> <p>《The Unavowable Community》, Maurice Blanchot, Jean Luc Nancy</p> <p>A community of lovers (being together) — people climb a mountain. Two or three make a pair to take a rest sitting on rocks. They look down the landscape stretched out, talking each other. People who go up hold their hands and greet those who go down the mountain.</p> <p>A community of death (being there) — people walk along the river. They raise their hands forward vigorously. Power is demanded to stop because of their speeding up. A middle-aged woman shakes her leg wearing a plaster cast. Whether exercising or lacking of power to stop, her leg is different from</p>	<p>22</p> <p>23</p>

죽음의 공동체 (거기 있음) — 사람들이 강변을 걷는다. 앞을 향해 힘차게 두 손을 올린다. 제법 가속이 붙어 멈추려는 힘이 필요하다. 중년의 여성은 김스를 한 다리를 흔든다. 운동을 하는 것인지 멈출 힘이 없어서인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몸과는 다른 다리이다.

취미의 공동체 (그냥 있음) — 사람들이 테니스를 친다. 환한 조명으로 물러든 나방들의 날개짓으로 빛이 쪼개진다. 테니스라켓에 부딪힌 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코트를 넘어 간다. 빠른 발걸음, 짧은 기압과 함께 다시 건너편으로 넘어간다.

공동체 3부작은 과제를 벗어난 공동체에 대한, 영상과 네 명의 인물간의 대화와 독백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다. 연인들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계획의 소멸과 서로의 부재를 통해 존재를 확인하고 장소를 벗어난다. 부재는 타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발견하고 시간을 뛰어넘는 경험을 통해 서로의 연결을 보게되며, 행위는 시간과 장소의 한 지점에서 의미를 잃고 바깥으로 열린다.

커뮤니티 기반 예술(Community - based Art)

— 지역 공동체

아차도에서 작년에 이어 인천문화재단의 지역공동체 문화만들기 2차년도 후속지원으로 진행된 섬의노래 프로젝트는 공동의 가치에 묻힌 개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시각적인 결과를 위주의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여 음반으로 옮기는 작업방식을 기획하였다.

음반이라는 단일 매체로 7명의 작가들이 함께 작업한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에는 작가 한 두 명씩 팀을 나누어 독립기획으로 총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작년 음반이 주민분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올해 진행한 <월간 아차도>는 지역의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여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을 중심으로 바쁜 생활 속에서 마주하기 힘든 주민들간의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6월부터 8월까지3개월간 매월 발행한 <월간 아차도>는 주민들과 외포리선착장에 배포되었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셨던 이장님의 글과 시들이 실리고, 이웃이 발일하는 모습, 그물에 잡힌 꽃게를 떼어내는 모습등, 일상의 작은 사건들을 지면을 통해 기록하였다. 그냥 지나쳐버린 옆집의 선인장꽃을 다시 보고, 저녁 달빛이 물든 마을의 풍경을 보고, 함께 일을 하며 나누었던 이야기와 모습이 기사가 되었다. 월간 아차도로 인해 공동체안에 존재하는 갈등의 관계가 드러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쌓여있던 마음의 섭섭함을 월간아차도에 실기도 하였다. 월간아차도의 사건들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와 같은 보통의 안부인사 처럼 기사거리가 아닌 생활이 담겨 있다.

올해 경기창작센터에 머물면서 진행한 <월간아차도>프로젝트는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일상속 모습을 담고 서로간의 공유를 통한 내부의 변화와 소통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징후(무너지는 것의 무게)>작업은 하나의 문명이 소멸하는 시점을 지는 노을에 비유하여 개인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모든 투쟁과 합의를 통해

the body sitting still on a chair.

A community of a hobby (being around) — people play tennis. Light is split by flapping of moths flocked in to bright lighting. The ball crashed on the tennis racket passes over the court, making cheerful noise. Brisk walking pace. The ball passes back over to the other side with a short shout.

Trilogy of the community is the work composed of the video and dia-

logue and monologue among four people about the community out of the topics. Lovers confirm their existence through extinction of the plan made in their relationship and their absence and get out of the place. Their absence discovers its own death before the death of the other and sees their connection through the experience transcending time. Acts loses the significance at a spot of time and space, being opened to the outside.

Community-based Art

— a local community

The Song of an Island Project performed for the second consecutive year of making a local community culture in Achado supported by the Incheon Cultural Foundation had interest in personal stories buried by the common value, rejecting the visual outcome-oriented method from the beginning planned. It planned a working method to listen to the stories and transcribe them for recording in order to shape the relationship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year, a total of four projects were conducted as independent ones, dividing a team of two artists, which was different from one last year which seven artists worked together with a single medium of recording. While the album last year dealt with the locals' life storie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Monthly Achado* operated in this year published and distributed local newsletters, playing a role of communication media among the residents who seldom came across owing to a busy life driven by trifles in their daily routine.

Monthly Achado published for three months from June to August were distributed to the locales at the Oepo-ri wharf. It posted writings and poems by the village foreman who usually liked writing, and documented minor daily incidents such as neighbors laboring in the fields and taking off blue crabs caught in the net. Articles included stories and looks while seeing cactus flowers of the next door again which had passed by, watching the village scenery tinged with the moon in the evening, and working and talking together. Through Monthly Achado, conflicting relationships within the community were uncovered, and so was long-accumulated disappointment in mind. Incidents in Monthly Achado contained not the articles but the life such ordinary greetings as 'How are you? Have you eaten?'

The *Monthly Achado* project carried out while I stayed in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this year tries to lead internal change and communication through sharing each other and capturing individuals in their daily life as a component of a local community. The work of *Signs (Weight of collapsing)* describes the eyes to predict the collapse of the social structure built by all struggles and agreements in a society which

고영택
medienkunst@hanmail.net

학력
— 독일 자르조청예술대학
뉴미디어학과 마이스터슬러졸업,
2008
— 후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2001

주요 개인전
— 〈징후(무너지는것의 무게)〉,
경기창작센터 기획전시실, 2013
— 〈공간변주〉, 쿤스트독갤러리,
종로구 창성동, 서울, 2009
— 〈Escape〉, 파란네모갤러리,
압구정, 한글라스, 2008

전시지원
— 〈반사〉, 관훈미술관, SeMA
서울시립미술관 신진작가지원 전시,
2008

주요 단체전
— 〈커뮤니티 콜라주〉, 인천아트플랫폼
A동, 인천, 2013
— 〈국제현대미술 광주아트비전〉,
광주비엔날레관, 광주, 2013
— 〈진레다반사〉,
김해글레이아크미술관, 상반기
기획전, 2013
— 〈빛 2012〉,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광주시립미술관, 2012

Ko, Young Taeg
medienkunst@hanmail.net

Education
— Meister Schuler, the
Department of New Media, Saar
College of Fine Arts, 2008
— Graduated the Department
of Western Painting,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2001

Selected Solo
Exhibitions
— *Signs (Weight of collapsing)*,
Special exhibition hall, Geyonggi
Creation Center, 2013
— *Space Variation*, Kunstdoc
Gallery, Chansung Dong, Jongro-
Gu, Seoul, 2009
— *Escape*, Blue Quadrangle
Gallery, Apgujeong, Sponsored
by Han Glass, 2008
— *Reflection*, Kwanhoon Gallery,
Sponsoring young artists by
SeMA (Seoul Museum of Art),
2008

Selected Group
Exhibitions
— *Community Collage*, Building
A,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13
— *Gwangju Vision, International
Modern Art*, Gwangju Biennale,
Gwangju, 2013
— *Jillye Commonplace*, Special
Exhibition in the first half,
Clayarch Kimhae Museum, 2013
— *Light 2012*, Jeongwoong
Ha's Young Artist Invitation
Exhibition, Gwangju Museum of
Art, 2012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Ko, Young-Taeg



Another Studio
레지던시 입주 작가 집기 및 혼합매체,
가변연출, 2013



Another Studio
레지던시 입주 작가 집기 및 혼합매체,
가변연출, 2013



Another Studio
레지던시 입주 작가 집기 및 혼합매체,
가변연출, 2013

박형근
Hyung-geun Park

금기 연작:
보이지 않는 강 & 붉은 풍경
2009-2013

본 프로젝트는 전통적 관점에서 정의하는 '금기'의 현대적 해석으로 근,현대사의 진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출입제한구역 또는 영토 안에 만들어진 비밀스런 경계와 그 내부에 대한 사진 작업이다. <금기연작: 보이지 않는 강(Invisible River)과 붉은 풍경(Red Scape)>은 2009년부터 진행해 온 <금단의 숲>의 후속 프로젝트로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대한 특이점인 한국 전쟁 이후 지속되어 온 분단 상황이 일상의 풍경 속에 재편, 재구성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자 했다.

본 사진작업의 무대가 되는 장항습지는 군사용 민간인 출입통제구역들 가운데 수도권에 가까운 일산 자유로 서남부 지역의 한강 하구를 따라 형성된 습지대이다. 시원하게 뻗은 도로와 맞닿은 철책선, 그리고 간간히 보이는 감시 초소를 제외한다면, 이 곳에서 군사적 긴장감이란 말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망각하기 쉽지만 장항 습지는 엄연히 남북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달리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의 아름다움은 자동차의 속도감에 휩싸이는 순간 마치 소실점을 상실한 눈처럼 평면의 연속성 안으로 사라져 버린다. 손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저 풍경에 대한 항구적 거리감은 나에게 주어진 선택적 시공간에 대한 불편한 감각을 일깨운다.

Taboo Series:
Invisible River & Red Scape
2009-2013

As 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about 'taboo' which used to be defined from a traditional point of view, this project is a photographic work about a secretive boundary and its inside shaped in a restricted zone or a national border where cannot but be inevitably generated in the process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Taboo Series: Invisible River & Red Scape> which is a subsequent project of <Forbidden Forest> pursued from 2009, is to explore whether the current state of division lasting after the Korean War, the most critical feature of the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s reorganized and restructured in scenery of a daily routine.

The Janghang Wetlands, the stage of this photographic work, is a marsh area formed along the Han River estuary on the south-west of Ilsan Freedom Avenue close to the capital among military off-limits sections to civilians. Except the ceasefire line reaching a stretch of the road and some observation posts occasionally seen, the word of a military tension does not appear to be fit in here. Although it is easy to forget because of superb natural landscape captivating our eyes, the Janghang Wetlands is undoubtedly situated in the border area of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moment when the beauty of landscape spread outside the window of a running car is engulfed by the speed of the car, it disappears into the continuity of the flat as if the eyes had lost vanishing point. An eternal sense of distance about the landscape to which is within a hand's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은 잘려져 나간 반쪽 그림처럼 기형적 상태를 유지한 지 오래다. 군사 시설물과 자연 경관의 어울림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풍경의 익숙한 요소로 자리하여 시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뿐이다. 마치 전체를 노출하지 않는 차단과 은폐의 기술이 이데올로기의 오래된 습성인 것처럼 우리 시선의 한 쪽은 늘 가려져 있었다. 언제나 바라보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저 강과 그 너머의 풍경은 분단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를 요구한다.

장항 습지를 비롯한 군사 경계선 내부는 6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외부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지역이다. 단단한 철책선과 군 감시시설이 이질적인 경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이 곳은 개발의 손길로 부터 보호 받은 생태 환경이 연출하는 비현실적 파라다이스인 동시에 군사적 긴장감이 공존하는 금기의 영역이다. 본 작업은 금기 연작 두 번째 프로젝트로 낭만적 풍경에 응축된 이념과 일상의 교차점을 텍스트로 가시화시킨 <보이지 않는 강 (Invisible River)>과 접경지역 내부를 침윤시켜 간 감시의 시선에 대한 몽환적 노출인 <붉은 풍경 (Red Scape)>으로 분화시켜 진행되었으며, 이 작업들은 선형적 역사 속에서 내재된 비가시성에 대한 사진적 증언들이다.

박형근

2013.12

reach but cannot come closer wakes an uneasy sensation about transcendental time and space given to me. In fact, it has been years since the landscape we gaze at maintains a malformed situation like a half of a picture chopped off. The harmony of military facilities and natural landscape has been settled as a familiar element of the Korean landscape over the last half century to be visually insensitive. One side of our eyes is always covered as if cutoff and concealment techniques to veil the whole were an age-long habit of ideology. The river and the landscape beyond that are always gazed but not be seen cry out for changes in new perceptions.

The inside military boundary including the Janghang Wetlands strictly controls the entrance of outsiders for 60 years of mechanical time. This place built with the solid ceasefire line and military monitoring system lays an alien top-security network is an unrealistic paradise produced by the ecological environment which has been protected from development, as well as a taboo area which a military tension is co-existed at the same time. This work as the second project of Taboo Series has been conducted by a division in two: <Invisible River> which has visualized the intersection of ideology and routine condensed in a romantic landscape with the text and <Red Scape> of a dreamy exposure to the vigilance which has infiltrated in the internal border area. It is a photographic testimony about invisibility inherent in a linear history.

Hyung-geun Park
December 2013



Another Studio
레지던시 입주 작가 집기 및 혼합매체,
가변연출, 2013

박형근

artist8293@hotmail.com

학력

- MA이미지&커뮤니케이션 졸업(석사) ,골드스미스컬리지, 런던대학, 2005
- 시각미술대학원 졸업(석사 디플로마), 골드스미스컬리지, 런던대학, 2004

주요 개인전

- 〈금단의 숲: 꽃자왈, 숲의 기록〉,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3
- 〈기억의 항해〉,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11
- 〈금단의 숲〉, 제9회 다음작가상 수상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2011
- 〈시간의 율림〉, 갤러리잔다리, 서울, 2011

주요 그룹전

- 〈생생화화〉, 경기도 미술관, 안산, 2013
- 〈My First Work〉, 갤러리 잔다리, 서울, 2013
- 〈TRAnSHformation〉, 국립현대미술관, 아테네, 그리스, 2013
- 〈Encounter〉, 제4회 대구사진비엔날레, 대구, 2012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Hyung-geun Park



보이지 않는 강-1 Redscape-1
120x150cm, C print, 2010-2013
경기도 미술관 '생생화화전' 전시장면, 2013



보이지 않는 강-1 Redscape-1
120x150cm, C print, 2010-2013
경기도 미술관 '생생화화전' 전시장면, 2013



보이지 않는 강-1 Redscape-1
120x150cm, C print, 2010-2013
경기도 미술관 '생생화화전' 전시장면, 2013

박형렬
Hyong-Ryol Bak

박형렬 전 리뷰

2013. 2. 28-4. 10, 송은아트큐브

40여년 전, 리처드 롱이라는 영국의 한 예술가는 척박한 고원 하나를 넘어가면서 발길에 채이던 돌덩이들을 덤덤히 한 줄로 늘어놓았다. 아무렇게나, 그저 바람과 비에 씻기고 흐른 대로 늘어서 있던 그 돌은 그렇게 한 사람의 발걸음 뒤를 따라 간단한 질서를 얻게 된다. 작가는 본인이 남긴 별 것도 아닌 흔적을 역시나 무덤덤하게 사진으로 담아낸다. 예술가가 지나간 흔적. 폭력도 강제도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다만 지나갔노라 하는 편지 한 장처럼 남아 있는 제 걸음의 흔적. 그것은 사는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살고 난 뒤에도 자연에게 해하는 일 없이, 지나고 난 뒤에도 황폐해지는 일 없이 그저 그 자연과 더불어 한 생을 사는 일 말이다. 땅 위에 남겨진 그 흔적들을 우리는 이름 하여 '대지미술'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오늘날, 여기 박형렬이라는 또 한 명의 예술가가 있다. 지난 선배들의 걸음처럼, 그 또한 무던히 자연의 한 장면을 바꾼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생각이 들어가 있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아라비아 숫자를 1평짜리 면적을 가진 크기로 땅 위에 쌓아 새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흔적이다. 수로 점철된 세상을 향해 사람이 자연을 얼마만큼 전유할 수 있는가 되묻는 일이 더해지는 것이다. 거대한 크기로, 막강한 힘으로 가끔 그 대상을 정복한 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Review on the exhibition of Hyong-Ryol Bak
Feb. 28 – April 10, 2013,
Songeun Art Cube

40 years ago, an English artist Richard Long arranged stones in a row kicked on his feet when passing over barren highlands. The stones placed as washed and flown by the wind and rain gained such a simple order following behind one person's footsteps. The artist captured the traces left by him which were nothing special in a photograph casually. The traces which the artist went by. Without any violence, compulsion and discomfort, the traces of his own steps remained like a letter that he just passed. That makes us think how to live, doing what while we are alive. That is, it is to live a life together with nature without spoiling it after we live, nor ruining it after passing. The traces left on the land are called 'land art'.

And today, there is another artist called Hyong-Ryol Bak here. As the seniors' steps in earlier times, he changes a scene of nature calmly. But this time more thoughts are contained like this: Arabic numbers are carved in a size of one pyeong (3.3 m²) and accumulated on the ground. This is a more active trace. It adds to ask back how much a person can monopolize in the world riddled with numbers. Although it is felt as if sometimes conquering the subject with a huge size and unrivaled power, it enlightens us quietly that we cannot simply belong to somebody one day, and that it is nature which is confined for a while and recovered instantly. The nature he has captured is an event for a moment to enlighten the fact that the feeling is just an illusion. When time passes, it will vanish as hard enough

하지만, 언젠가는 그 누군가에게 간단히 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 잠시 가두어졌다가도 이내 회복하는 것이 자연이라는 것을 나지막이 알려준다. 그가 포획한 자연은 바로 그 착각이 다만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잠시 동안의 이벤트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것이 남아있던가를 살피기 어려울 만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작가는 그 우매함을 깨치는 순간에 번쩍 플래시를 터뜨리듯 사진 한 장을 남긴다. 크레인 위로 올라가, 전능한 신의 눈으로, 사람이 벌인 일을 살피는 것이다. 그 어떤 실용적인 목표도 없이 벌인 그의 작업이 결국 지난 날, 대지미술처럼, 한 장의 사진으로 우리를 깨운다.

작가는 2013년에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해 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의 얼굴을 찍다가 어느 날 그 사람들의 숲 너머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을 찍어야겠다 마음 먹게 된 작가는, 간결하고, 유머러스하며, 뒤통수를 얻어맞고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 만큼 영리한 작품으로 관객을 흥분시킨다. 올 한해 대부도에서 펼쳐질 그의 프로젝트가 기대되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또 한 번 기분 좋게 뒤통수를 얻어맞을 일이 기다려지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은 그렇게 대놓고 야단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다.

황록주

미술평론가,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to probe when it was left. The artist leaves one photograph as if popping the flash lightly at the moment of realizing the stupidity. Going up on a crane, he watches things that people have made with the eyes of the Almighty God. His work carried out without any practical goal finally awakens us with a picture like land art in the old days.

The artist has moved in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since 2013. While taking pictures of countless people's faces, the artist who has determined to take pictures of things visible in their forests over yonder one day excites the audience with an artwork concise, humorous and smart enough to make them feel better even though he makes a surprise attack. The reason why it is expected from his project unfolded in Daebu Island this year is to wait for another pleasant surprise once again. These days, there is none to give a good scolding in our faces like th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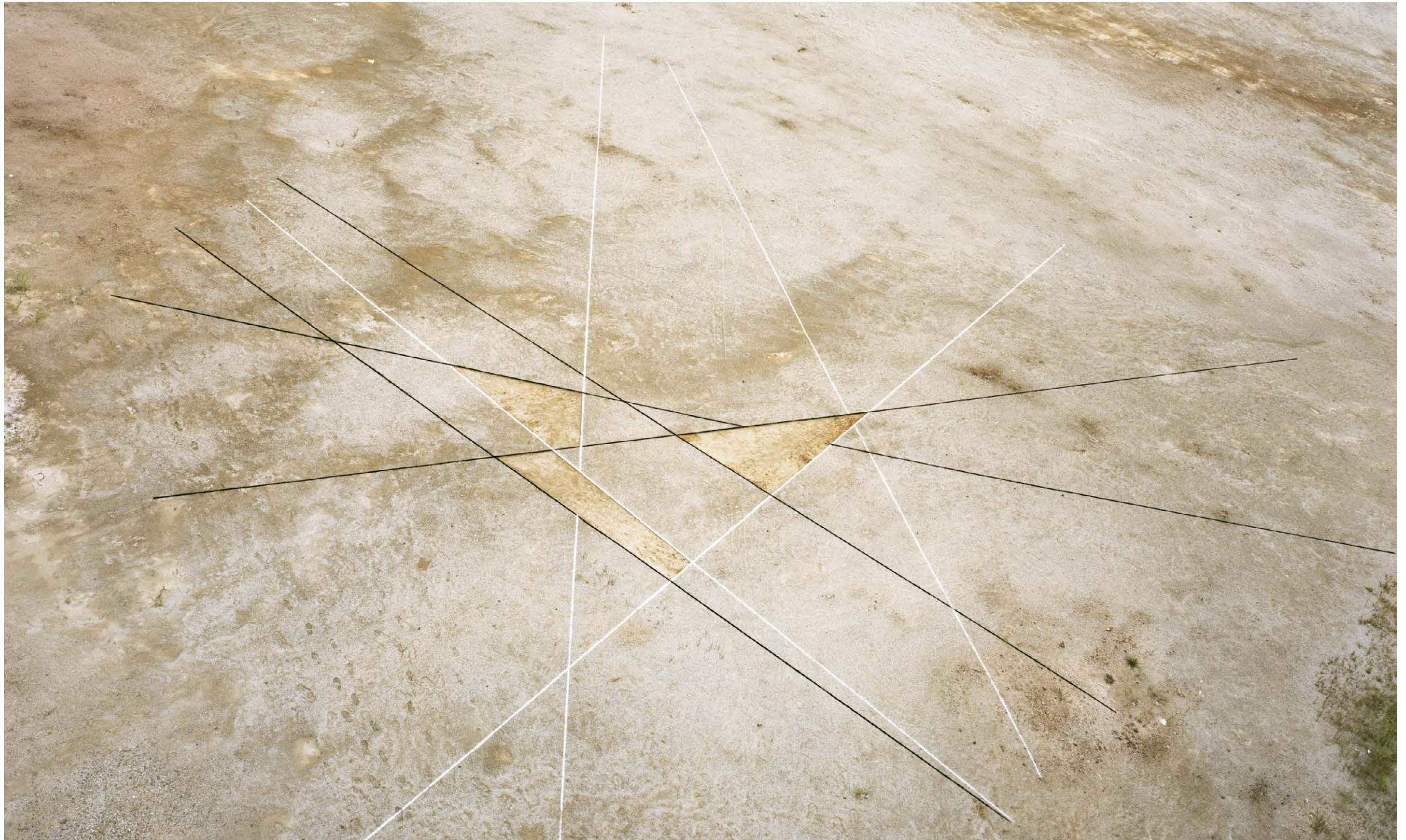
Rock-Joo Hwang

Art Critic,

Curator of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The captured nature_Figure Project_earth#18
Inkjet print, 120x150cm, 2013



The captured nature_Figure Project_earth#22
Inkjet print, 144x180cm, 2013



The captured nature_Figure Project_earth#19,
Inkjet print, 120×150cm, 2013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메타미디어

백정기 작가는 최근 눈에 보이는 시각적 풍경을 음으로 치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감각의 치환은 작가가 제안하는 매체 특유의 기능에서 비롯된다. 전시공간에 설치된 일견 익숙하지만 특이한 원리를 가진 작품들은 미디어의 한계와 가능성을 연구하고, 나아가 관객의 사고를 전환하는 목적을 가진 작가의 메타 미디어적 관점에서 제작된 대안적인 미디어이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환경을 생경한 감각으로 인식하게 하는 전환을 선사한다.

풍경의 음악화

올해 작업하여 **홍은예술창작센터의 단체전에서 처음 선보인 〈맑은 밤 혼자 걷는다〉는 지난해 행동동에서 작업했던 영상작업 〈뽕뽕고가다〉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업이다.**

"〈뽕뽕고가다〉는 행동동의 개발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난잡한 소음과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 느끼는 정연한 환경을 비교하는 영상이에요. 난잡한 소리가 나는 영상과 음악처럼 조화로운 소리가 들리는 영상이 있었고, 그중에서 더 음악적인 풍경을 골라 정식으로 음악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영상의 배경인 수원시 화성 안의 공간은 섬처럼 도시 소음에서 고립되었는 독특한 지역이었다고 작가는 서술하고 있다.

"화성은 도시로부터 들리는 소음을 막아주는 존재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성안은 작은 소리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하이파이(Hi-fi)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영상의 밤 풍경 속 가로등 불빛이 음이 되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빛들이 모여 한 곡의 음악을 연주한다. 번잡한 도시풍경과는 상반된 그윽한 자연공간의 풍경은 작가가 제작한 미디어를 통해 음악으로 전환되어 관객에게 시각적, 청각적 작고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시공간의 천정에는 소리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격자 모양

의 LED 그룹이 설치되어있어 소리가 날 때마다 불빛이 깜빡인다. LED 설치작품 앞에는 작가가 직접 그린 악보가 피아노와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한편 벽에 설치된 모니터에서는 어두운 밤 풍경을 배경으로 가로등의 불빛이 반복적으로 명멸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화면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가상의 현이 좌우로 반복적으로 횡단한다. 움직이는 현이 가로등 불빛과 마주쳤을 때 음이 생성되는 것이다. 화면에서 불빛의 높낮이다 음의 높낮이를 결정하고, 불빛의 간격은 음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규칙에 다양한 음계가 사용되며 같은 영상으로부터 다양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 풍경을 음악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음악적 형식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음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음악이 돼요. 또한, 형식에 따라 음악적 분위기가 바뀌죠. 이 작업은 정연한 풍경을 정식으로 음악적 형식에 담아보고자 하는 노력이자 형식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형식을 취해야 이 풍경이 내가 표현하고자하는 정서를 담은 음악으로 들릴까를 고민했습니다. 예를 들면 5음계를 사용했을 때는 전통음악처럼 들리지만 12음계를 쓰면 차갑고 건조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음계에 따라 변하는 음악적 분위기는 공간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각적 풍경은 미디어를 통해 음악으로 전환되고, 이 음악은 다시 빛을 통한 시각적 자극으로 확장된다. 설치된 작품들은 단순한 시스템으로 시각적 청각적 전환을 관객에게 선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학적인 형식으로 철저히 계산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오랫동안 연구하고 진행해온 프로젝트의 과정과 연구에 대한 설명을 담은 작품설명서를 비치하여 관객들의 이해를 도우려는 시도를 잊지 않았다.

매체 학습과 전략적 미디어

백정기 작가는 원래 회화를 전공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고 의심 없이 화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국, 회화과에 들어가 계속 그림을 그렸지만, 곧 한계를 느끼고 학업을 중단한다.

"추상화 아니면 하이퍼리얼리즘이 대세였던 시기였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평면에 담기가 어렵다고 느꼈어요. 군대를 다녀

왔을 때는 아이티 산업이 부흥하던 분위기였고 바로
그 무렵 회화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작가는 회화보다는 유연한 표현력과 시간성을 지닌 매체를 다루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접근을 시도했다. 조형에
술과에 입학하여 비디오, 사진, 웹 등과 같이 호소력 있다고 생각했던 유연한 매체를 익숙하게 다루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한 사람을 시간적 틀을 두고 촬영한 다수의 영상을 한 채널로 합쳐서 모자이크 형식의 화면으로 구성한 작업 *Portrait, 2004*», 한 화면을 퍼즐 조각처럼 분리하고 다시 맞추는 *Puzzle, 2004*», 촬영된 영상을 TV로 틀어 이것을 다시 촬영하고, 또 텔레비전으로 출력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본래의 실체를 미디어를 통해 해체하는 작업 *Coma, 2003*»등이 이 시기에 작업했던 결과물들이다. 이때 작가는 매체를 해독해야 한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다.

"웹을 배우기 위해서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웹이 관객과 상호소통이 가능한 미디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죠. 하지만 웹을 공부하면서 주어진 코드, 방식을 외워서 조립하는 일에 점점 갇히는 기분이 들었고, 코드로 둘러싸인 미로를 헤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고도화된 미디어를 배우는 것이 결국 내가 그 안에 수용되고 갇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죠."

집중적인 매체학습과 실험은 작가를 미디어의 한계에 직면하게 했다. 이것은 매체를 잘 다룬다는 착각 속에서 매체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매체가 사용자의 생활에 맞춰질 수 있는 작업을 하자는 생각으로 전향하게 하는 방향키를 제공했다. 백정기는 이때부터 전략적인 미디어를 제작하게 된다.

"전략적 미디어는 기존의 고도화된 장비나 기술이 아닌 그것에서 벗어난 미디어를 스스로 제작한 것이에요. 없던 것을 만들다 보니 투박하고 거칠지는 모르지만 제 목적과 삶에 맞는 미디어가 되죠."

작업«RMP, 2006»는 탈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플레이어(Rid-able Multimedia Player)라는 의미가 있는, 촬영과 상영이 가능한 탈 것으로의 개인 미디어이다. 작업은 이전처럼 순수한 매체로부터가 아닌 낮에는 비디오를 배우고 밤에는 우유배달을 했던 경험이 있는 백정기의 삶에서 우러나온 의문과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보편적 미디어 체계에 괴이하게 개입된 기동

성은 곧 수동적 미디어에 '수행'이라는 기능을 추가하여 능동적 수용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자각의 말을 빌리자면 미디어의 종속에 대한 일탈과 반성, 그리고 실천의 총체적인 현시를 위한 실험이 바로 RMP이다.

사운드에 의한 반성과 확장

작가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작업 «RMP»에서 나아가 이번에는 조금 더 수행성이 필요한 RMP를 제작한다. 바로 자전거에 영상기기를 조립한 «RMP-B, 멀미를 회복하다, 2008»가 그것이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시각정보를 수용합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눈알만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감각의 불일치가 엄청나서 멀미를 느껴야 하지만 이미 수동적인 미디어에 적응된 우리는 멀미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멀미를 회복하자'는 것은 우리가 속해있는 비정상적인 미디어 수용과 정상적인 감각생활을 깨닫자는 의미인 것이죠." 고무바퀴가 아닌 나무와 철로 이루어진 바퀴로 구성된 자전거에는 비디오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사용자는 안정처럼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해 찍힌 풍경을 볼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길의 풍경을 신체로 전달되는 새로운 감각과 함께 능동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작업은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현실사회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매체를 통해 멀미를 통해 멀미를 되찾자고 제안한다. 실제로 공유와 실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설명서와 조립도가 함께 제작되기도 했다.

백정기는 실제로 RMP-b를 타고 서울을 주행했고 촬영한 영상을 전시장에 전시했다. 이때 작가는 사운드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된다.

"작업의 첫 의도는 미디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영상의 진동소리가 사람을 압도하고 정서적으로 충격을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때 충격으로 소리에 관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죠. 관련 책, 장비를 알아보고 피아노 학원도 다녔어요."

작가는 이런 음악에 대한 고민과 함께 풍경을 음악화하는 실험을 했고 고된 연구의 결과물을 얻었다. 작가의 반성은 이 같은 대안적 미디어의 확장을 낳고, 작가 스스로 스펙트럼을 넓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전시를 시작한 후 이전보다 여유로워진 작가는 두꺼운 책을 한 권을 읽고 있었다. 책 제목은 ‘음악음향학’. 계속해서 음악에 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스스로 만들어낸 음악적 형식을 그가 지역의 도시에 적용해볼 계획이라고 했다.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대안적 미디어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실험과 연구를 진행해온 백정기작가의 음악 체계를 우리는 문득 익숙한 풍경에서 새로운 감각적 자극과 함께 만날지도 모른다.

2012, ‘미술세계’ 12월호

현소영 기자

백장기

Benzine@naver.com
blog.naver.com/benzine

학력

— 홍익대학교 회화과 중퇴, 1998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조형예술과 졸업, 2007

개인전

— 〈맑은 밤 혼자 걷는다〉, 두들 갤러리,
2013
— 〈RMP-b 서울주행보고,
UNDERLINE〉, 오!재미동 갤러리,
2013
— 〈RMP-b, 멀미를 회복하다〉,
대안공간 미끌, 2008

단체전

— 〈제13회 서울국제뉴미디어
페스티벌〉, 서교예술실험센터, 2013
— 〈어느 봄날에〉, 동탄아트스페이스,
2013
— 〈HAPPY 흥은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展〉, 흥은예술창작센터,
2012
— 〈굴욕길 GMD-행궁동을 걷다〉,
대안공간 눈, 2011

레지던시

— 경기창작센터 2013 입주작가,
2013
— 흥은예술창작센터 2012 입주작가,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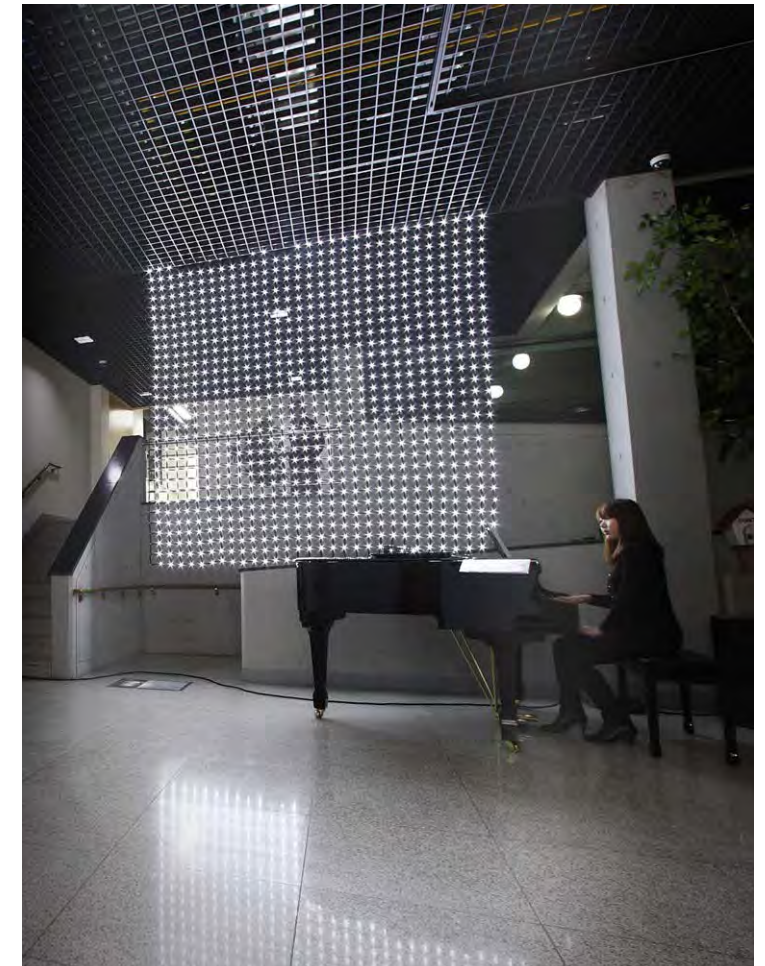
경력

—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 2013
— 문예진흥기금 신진예술가
시각데뷔지원, 2008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Baek Jung Ki

맑은 밤 혼자 걷는다.
영상과 피아노연주, 2012



효창공원앞역
이미지악보, 100×40cm, 2013





궤뚫고 가다
-행궁동 밤길을 가다

백창기



침묵의 봄
-행궁동 밤길을 가다

백창기



행궁동 밤길을 걷는다.
비디오, 2011

도로시엠윤 (윤미연)
Dorothy M Yoon

이대송
Dae Song Lee

작가노트

자연의 형태는 단순히 기능을 따르지도 그리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타입을 따르지도 않는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이상과 인식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내게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그 형태(체계)가 어떻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의 스스로의 역량이 중요하다. 형태는 결국 물질의 능력을 따라 그 형태를 갖게된다. 특정한 형태는 그 특정한 상황에 대한 특정한 체계의 반응이다.

뼈, 아교질 접착제의 늘어짐, 그리고 천의 늘어지고 당겨짐 이 모든 현상에는 재료가 최소 표면을 가지려는 경향과 중력, 그리고 재료체계의 특징-가능성에 의해 다양한 양태가 발현되게 되는데 이는 흔한 자연의 형태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공 환경구조물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아이러니 하다.

공간이 체험되거나 인식되는 감각과

Artist Statement

Natural Forms are not follow functions neither ideal type of beauty. So material-matter exist independently from ideal or perceptual recognitions of us. Therefore, it is not important how it looks like but is important to me how it can be performed. Forms are having their forming process through their capacity. Specific form is reaction or responding to specific condition-circumstances.

Bone structure, viscosity and fabric relaxations are all very common natural phenomenon from various possibilities of material system with forces equivalent like gravity and minimal relaxation but it is ironic point which are no relevant with usual man-made construction environment surround us.

Unfortunately, to me, material and forms are independent matter which induce space where people can experience and recognize sensual or reasonable fields. So I have to be mediator or attractor within part of forming process where are emerg-

이성의 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직해 내는 물질과 형태는 불행하게도 나에게도 독립적이다. 그래서 나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흥미롭거나 좋거나 기능적인 역량이 발현되는 매개자나 끌개가 되어야 한다.

지속되는 삶의 한 과정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있다면 다양한 가능성이 발현되는 양태의 과정속에 디자인이 있다. 그러므로 건축은 삶처럼 즐거운 일이다.

ing various capacities.

If I am on the middle of duration of living process, there is design on the middle of emerging process. Thus it is beautiful thing to do design architecture like our life.



IntensiveField
30cm×40cm×25cm, SpiderWeb, Glue spray, Wood Pow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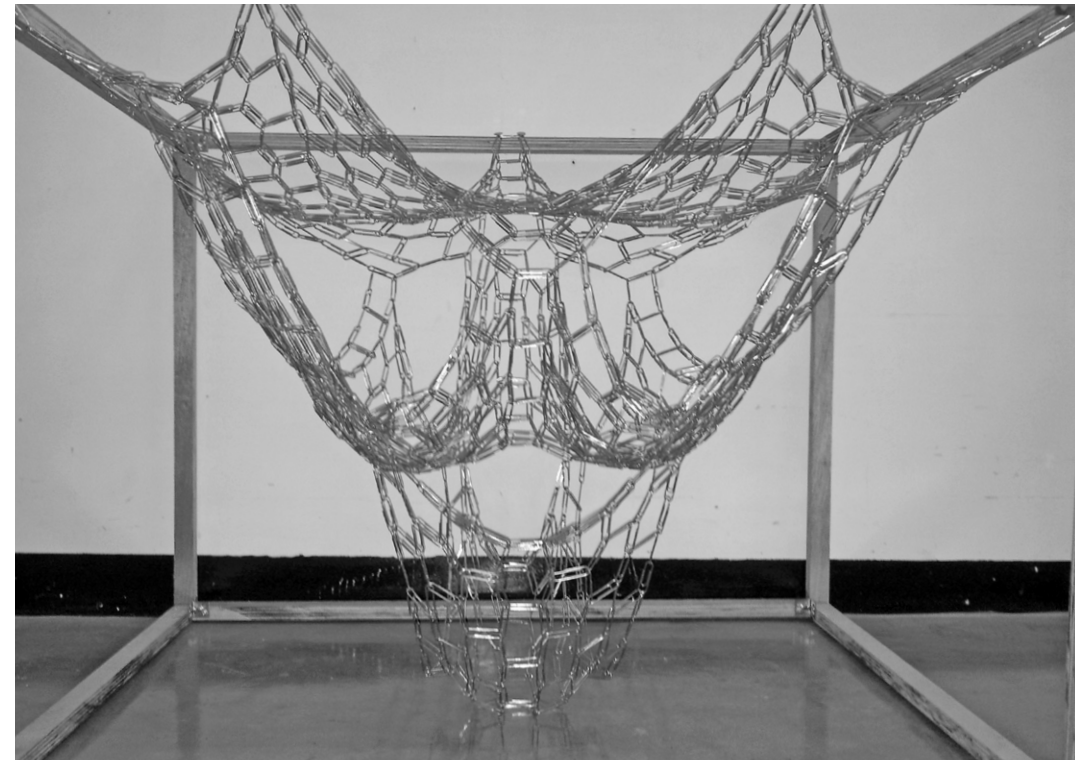
이대송		Dae Song Lee	
<p>자격</p> <p>영국왕립건축사 영국왕립건축사, AA Diploma, 건축 학사, 건축 석사,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p>	<p>출강</p> <p>— 에이에이 인터미디어터 스쿨 비지팅 크리틱, 2005</p> <p>— 에이에이 다플로마 스쿨 유닛4 엔시스 워크샵 튜터, 2006</p> <p>— 에이에이 스쿨 테크니컬 스터디 어드바이저, 2007—2009</p> <p>— 서울대학교 비지팅 크리틱, 2012</p> <p>— 연세대학교 비지팅 크리틱, 2012—2013</p> <p>— 한경대학교 디지털 아키텍처 강의, 2013</p> <p>— 건국대학교 건축 전문대학원 디자인 스튜디오 유닛 마스터, 2013</p> <p>—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디자인 스튜디오와 이론수업, 2013</p>	<p>Title</p> <p>ARB/RIBA, AA Diploma, Bsc, Msc, Adjunct Professor HanYang Univ.</p>	
<p>출판 / 게재</p> <p>— 〈모포 이콜로지〉, 에이에이 출판, 2006</p> <p>— 〈파이브 워크〉, 시공사, 2007</p> <p>— 〈다재(다양)와 변화(변천)〉, 에이디 매거진, 2008</p> <p>— 〈플 팔로우즈 퍼포먼스〉, 아크 플러스, 2008</p> <p>— 〈퍼포먼스 오리엔티드 디자인〉, 이란 건축, 2008</p> <p>— 레이던시 아티스트 쇼케이스 〈와츠온〉, 경기창작센터, 2013</p>		<p>Publication</p> <p>— <i>Morpho-Ecologies</i>, AA Publications, 2006</p> <p>— <i>5 Works</i>, Spacetime, 2007</p> <p>— <i>Versatility and Vicissitude</i>, AD Magazine, 2008</p> <p>— <i>From Follows Performances</i>, ARCH+, 2008</p> <p>— <i>Performance Oriented Design</i>, Iranian Architecture, 2008</p> <p>— Resident Artist's Showcase <i>What's on</i>, Gyeonggi Creation Center, 2013</p>	<p>Teaching</p> <p>— AA Intermediate School, Visiting Critique, 2005</p> <p>— AA Diploma School, Unit4 Ansys workshop Tutor, 2006</p> <p>— AA School, Technical Studies Voluntary Advisor, 2007—2009</p> <p>— Seoul National University, Visiting Critique, 2012</p> <p>— Yonsei University, Visiting Critique, 2012—2013</p> <p>— Hankyung University, Digital Architecture, 2013</p> <p>— Kunkuk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Design Studio Unit Master, 2013</p> <p>—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Adjunct Professor, Design Studio and Theory, 2013</p>
<p>전시회 / 발표</p> <p>— 〈테히도스 익스펜시보스〉, 멕시코시티, 멕시코, 2004</p> <p>— 〈리스프리갈 인플루언스〉, 볼자노, 이탈리아, 2005</p> <p>— 〈스마트 지오메트리 워크샵〉, 옥스포드, 영국, 2005</p> <p>— 〈파라메트릭 컨퍼런스〉, 대영박물관, 런던, 영국, 2006</p> <p>— 〈컴퓨테셔널 매뉴팩처링 워크샵〉, 오픈바호, 독일, 2006</p> <p>— 〈테크니컬 스터디 리트로펙티브 브리뷰〉, 런던, 영국, 2007</p> <p>— 〈청라타워공모전〉, 한국토지공사, 대한민국, 2008</p> <p>— 〈스마트 지오메트리 워크샵〉, 샌프란시스코, 미국, 2009</p> <p>— 〈와츠온〉, 상설전시, 경기창작센터, 대한민국, 2013</p> <p>— 〈빛의 물결의 볼트〉, 창의 체험관 상설전시, 경기창작센터, 대한민국, 2013</p> <p>— 〈생성적 형태와 공간, 공간탐험가(가제)〉— 크로스장르전, 경기도미술관, 대한민국, 2013</p> <p>— 건축특강 〈건축건축가〉, 경기도미술관, 대한민국, 2013</p> <p>— 〈건축에서의 디지털 디자인과 디지털제작〉, 한양대학교 로봇연구실, 대한민국, 2013</p>		<p>Exhibition</p> <p>— <i>Tejidos Expansivos</i>, Mexico City, Mexico, 2004</p> <p>— <i>Reciprocal Influences</i>, Bolzano, Italy, 2005</p> <p>— <i>Smart Geometry Workshop</i>, Oxford, UK, 2005</p> <p>— <i>Parametric Conference</i>, British Museum, London, UK, 2006</p> <p>— <i>Computational Manufacturing Workshop</i>, Offenbach, Germany, 2006</p> <p>— <i>Technical Studies Retrospective Preview</i>, London, UK, 2007</p> <p>— <i>Salt Crystal Tower</i>,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Korea, 2008</p> <p>— <i>Smart Geometry Workshop</i>, San Francisco, USA, 2009</p> <p>— <i>What's On</i>, Free Boxthe Permanent Exhibition Space, GCC, Korea, 2013</p> <p>— <i>Light Wave Vault</i>, Project Zero, GCC, Korea, 2013</p> <p>— <i>Generative Form with Space, Space Explorer-Cross Genre Exhibition</i>, GMOMA, Korea, 2013</p> <p>— <i>Lecture Architecture Architect</i>, GMOMA, Korea, 2013</p> <p>— <i>Lecture Digital Design and Digital Fabrication in Architecture</i>, HanYang Univ, Robot Lab, Korea, 2013</p>	
<p>직업경력</p> <p>— 스콰이어엔파트너스, 런던, 영국, 2006—2009</p> <p>— 자이아, 런던, 영국, 2009—2010</p> <p>— 디자인시스템연구소, 메를랜드, 미국, 2010—현재</p>		<p>Profession</p> <p>— Squire and Partners, London UK, 2006—2009</p> <p>— JAlA, London UK, 2009—2010</p> <p>— Design System Lab, Maryland, USA, 2010—</p>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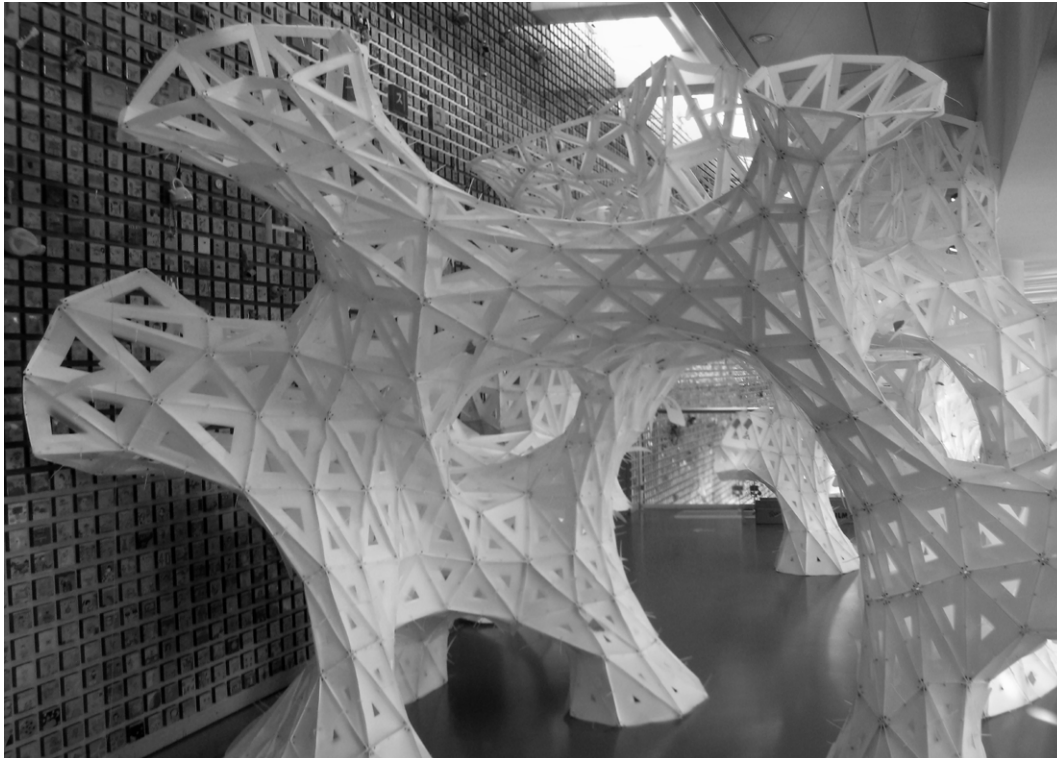
Dae Song Lee



LightWaveVault
200cm×600cm×250cm, LaserCut PP Sheet, Processing-Adoino Controlled LED Lighting



Hexagonal Form Finding
85cm×65cm×65cm, Steel Paper Clips with
Wooden Frame, Gravity



DSL-Components101013
380cm×780cm×300cm, LaserCut PP Sheet,
Cable Tie Assembly

이종석
Lee Jong Suk

네 번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었다. 국공립에도 입주했었고 사립 레지던시에서도 작업을 했었다. 그때마다 많은 작가들을 만났고 여러 미술 관계자들과도 만날 수 있었다. 그때뿐인 인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연도 있었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만난 작가와 결혼도 했다. 레지던시는 사교성이 부족한 나에게 미술계와의 관계를 만들어준 고마운 제도이다. 하지만 경기창작센터에 입주하게 되었을 때 처음의 기대나 설렘보다는 사십이 넘는 무명작가를 그래도 작가로 인정 해주는구나 라는 안도감이 더 컸다. 거리가 먼 탓으로 작업실에 한 번 가면 여기까지 왔는데 작업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에 문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안에서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렇다고 엄청난 양의 작업을 한 것도 아니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기회만 놓쳐버렸다. 아쉬운 일 년이 되어버렸다.

지난 일 년 동안의 작업 과정은 정체기 혹은 과도기인 것 같다. 몇 년 동안 집중해왔던 작업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업에 대한 실험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작업 과정이 담긴 새로운 폴더들만 수십 개 생겼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작품을 실험하고 생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작품이 완성된 것 보다 즐긴다. 아마도 처음 생각이 완성될 때쯤엔 한계와 현실에 부딪쳐 지나치게 다듬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살아온 도시인이 도시를 바라보는 시점은 오랜 시간 내 작업의 관심사였다. 무릉도원으로 상징화되는 자연에 대한 동경은 관념화 된 자연스러움이고, 실제로는 도시의 인공적인 조형물들이 도시인에겐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준다. 그러나 1년 동안 바다가 보이는 전

망 좋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15년간 머물렀던 서울의 작업실을 정리하고 시골의 전원주택으로 옮긴 지금 작업이 변화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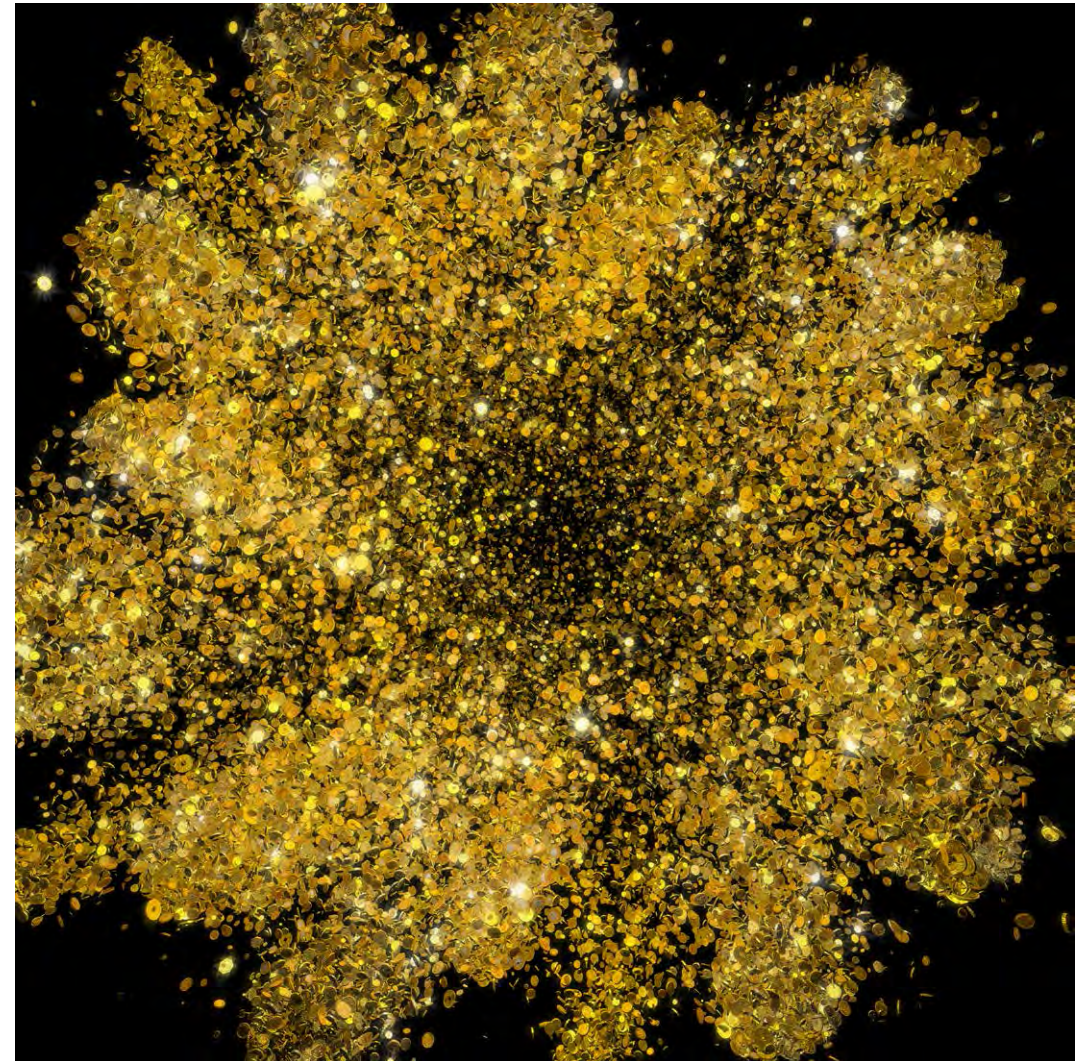
15년 전 붓을 내려놓고 뉴미디어 작업으로 변화했던 시기부터 인터랙티브 작업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영상을 30초도 보기 힘들어 했던 그 당시 관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고 관객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미디어 작업의 정체성이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회화의 완성도에 익숙한 나는 인터랙티브를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낮은 해상도와 기술적 한계를 견디기 힘들었다. 이런 고민이 깊어질 때 쯤 한 레지던시 세미나에서 영상으로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왜 인터랙티브에 집착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후 점차 영상에만 집중하는 작품만을 하게 되었고 HD 시대가 되면서 완성도 있는 영상을 구현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뉴미디어는 빠르게 진화하였다. 비용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드웨어 성능은 원하는 건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였고 생계를 위해 배웠던 프로그래밍 능력도 새로운 작업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환경과 나 자신의 변화로 나는 다시 인터랙티브 작업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미래엔 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가상 영상 작업이나 아이디어 스케치들을 꺼내어 보았다. 여전히 실현하기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현실화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설레인다.

얼마 전 차범근의 인터뷰를 봤다. 왜 감독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전과 같은 열정이 없어서'라는 대답을 했

다.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후배를 위해서라도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말이었다. 문득 내가 아니었다면 누군가가 이곳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작업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작업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그래서 다행이다. 다만 기회나 제도에 기대어 작업을 하기엔 좀 미안한 나이가 된 거 같다. 이번 레지던시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 작업할 계획이다. 하지만 집에서 공부하다 역시 독서실에 가서 해야 해 하며 결국 집을 나섰던 학창시절처럼 언젠가 다시 레지던시 공지를 뒤적거릴 지도 모르겠다. 학생 시절, 그림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그렸던 나에게 변화와 유연함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자연, 인간, 사물, 진리, 참과 거짓... ‘모든것은 변한다’라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변한다.”

2014년 봄,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레지던시를 마치며...
이종석



Urbanwave-water fall
digital print, 120×120cm, 2013



Urbanwave-redeveloped
digital print, 148×70cm, 2014



urbanwave-fountain
single channel HD video, 2m55s, 2013

임선이
Im Sun ly

존재로서의 '작업'

고원석

임선이는 작가로서의 분명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화법이나 분위기와 같이 개인적인 차원의 것은 아니다. 그 개성은 임선이가 자신의 실존적 삶과 유리되지 않고, 삶 속에서 경험한 여러 감정들이 밀도 높게 결합된 작품들을 보여주는 작가라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러 요소들은 그가 명확하게 정리된 개념적 프레임을 정교하게 구현하기보다 모호한 기대와 혼란, 어지러운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일상의 불투명함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임선이의 그러한 특징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작품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학부에 재학중이던 2000년, 공장 미술제에서 그는 실내 벽면에 원래 존재했던 파이프라인 주변에 비슷한 파이프들을 연결, 배치하여 일종의 변형된 풍경을 구축하였다. 실재하는 풍경 속에 있음직한 어떤 오브제들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도치시켜, 원형과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 것이다. 관람자들이 대부분 작품인줄 모르고 지나쳤다는 그의 웃음 섞인 말은 그가 예전부터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 다른 요소들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할 줄 아는 작가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

2003년 두아트 갤러리에서 임선이는 첫 개인전을 열었다. 다양한 종류의 작품군을 충실하게 준비한 그의 전시는 일부 젊은 작가들이 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반복 생산하거나 복제하여 구성한 개인전의 빈약함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 전시에서 선보였던 시멘트 선인장들은 날 것의 느낌이 나는 전시장의 시멘트 바닥과 조화를 이루며 전체 분위기를 주도했다. 전시장이라는 환경에 자극 없이 존재하는 어떤 오브제를 만들어 놓고, 그 오브제와 자연스럽게 합쳐진 새로운 풍경을 다시 만든 것이다. 오브제 자체는 인위적이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느낌마저 들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경에 합일되어 원래 그렇게 존재했던 것처럼 밀게 만드는 어떤 힘을 발산하고 있었다. 지나쳐버리기 쉬운 일상적 재료의 속성을 예리하게 관찰하여 최소한의 스케일로 전체 공간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능력은 그가 지닌 특별한 작가적 재능이었음이 분명하다.

이후에도 그는 꾸준히 풍경에 개입하는 일련의 작업을 지속한다. 일상에 접하는 대부분의 풍경들이 의도적으로 미화된 것들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는 어느 날 공중파 TV방송의 전후의 애국가 화면에서 전형적인 풍경의 관념적 왜곡을 관조했다. 통상적으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자연 풍경들을 가공하고 채색하여 일종의 유토피아적 배경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들을 마치 실제로 체험했던 것처럼 익숙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폭력적인 행위의 결과는 어떤 기준과 관점이 부재한 상태로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의심 없이 믿어 버리는 현상이 그에게 매우 거슬리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왜곡에 대해 개입하는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그는 부정과 냉소, 혹은 찬성과 동화의 양 극단으로부터 모두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가 관

심을 갖는 것은 그러한 태도에 대한 결과론적 비판이라기보다, 그러한 것들이 아름답다고 여겨지게 만드는 인식적 상황이다. 일련의 행위에 의한 결과로서의 풍경 보다는 그 풍경을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의 문제에 집중한 것이다.

최근 수년간 발표해온 'Trifocal Sight' 시리즈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가 작품으로 묘사한 인왕산은 서울에 중심에 존재하며, 누구에게나 친숙하게 여겨지는 풍경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왕산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으며, 일종의 관념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풍경이다. 어느날 주변을 지나다 우연히 인왕산의 형태를 관찰하게 된 임선이는 막연한 명칭으로만 인식했던 인왕산을 새롭게 재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인왕산의 등고선이 프린트된 지도들을 축적하여 어떤 형태의 틀을 얻은 다음, 선을 따라 커팅하여 정교한 형태의 매스를 얻어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태를 파내고 남은 공간이 만들어내는 네가티브적 풍경을 발견하게 된다. 실재의 인식과 재현을 위해 기호의 체계로 분석하고 구현한 등고선이라는 소재를 물질감을 갖는 매체로 활용하여 대상의 입체적 구현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세상의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부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사물들에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의 시멘트 선인장은 남들 눈에 크게 거슬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도, 초록빛을 띠어야 할 본래의 모습을 위장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건조한 상태로 풍경 속에 조용히 기생하는 것들이다. 패턴이 인쇄된 벽지 위의 자수 작업이나 장판지 위의 편칭 작업도 비슷한 것들이다. 임선이는 그 거북살스러운 풍경에서 또래보다 늦은 진학 등 동료집단의 주류적 움직임에서 벗어나 혼자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다고 말한다.

앞서 언급했듯 그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응보다는 환경을 관조하는 시선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어쩌면 그가 표현하는 시선은 일종의 착시일수도 있다. 그가 그 착시를 통해 자신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 모호함이야말로 임선이의 실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실 세상은 절대적인 법칙에 따라 원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주체'의 시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관심은 그가 구현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구현하는 임선이에게 집중된다. 우리는 임선이라는 사람이 작가로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구현해내는 자신만의 세계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확고부동한 원칙과 기준들이 정교하게 들어맞아 예측이 가능한 환경들은 대개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것은 번민과 방향을 반복하며, 양립불가능한 극점들을 넘나드는 불안한 모습으로 서있는 것이 아닐까? 임선이와의 대화에서 혹시 그가 명확하게 정리된 관점을 확보한 작가로서 작품활동을 지속하는 모습을 일종의 이상향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만일 그렇다면 작업을 지속하는 자신에 대해 너무 준엄한 과제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의 삶에 존재하는, 비루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도 결국 그의 삶에 존재하는 어떤 '현상'이며, 크게 보아 그의 작업의 일부로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들일테니 말이다. 작가는 그 삶이 작업이다.



Trembling eyes 전시전경
2013, 라이트셋 C-프린트

백칭기

Benzine@naver.com
blog.naver.com/benzine

학력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주요 개인전

— 〈기술하는 풍경〉, 갤러리 비올, 서울,
2010

주요 단체전

— 〈메타데이터 metadata〉,
우민아트센터, 청주, 2012
— 〈플레이그라운드 — 아코미술관
주제기획전〉, 아코미술관, 서울,
2012
— 〈신나는 미술관 — 山水, 디지털을
만나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12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Im Sun ly



Trembling eyes 전시전경
2013, 라이트젯 C-프린트



Trembling eyes 전시전경
2013, 라이트젯 C-프린트



Trembling eyes 전시전경
2013, 라이트젯 C-프린트

작가노트

우리들 기존의 인식 방식과 사유체계, 가치기준과 경계 등 그 사이의 필연적이면서도 불편한 관계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사물과 공간을 매개하여 내 스스로가 경험하고 관찰하는 일상 속 구체적 사건, 현상 등을 통해 기존의 실체론적 인식 방식과 범위, 구조와 원리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우리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내면의 지극한 순조로움, 의심의 여지조차 없이 그러한 것 혹은 그래야 하는 것, 즉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 연구하고 실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과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분리되고 자유로워 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또 묻는다. 그렇기에 작업은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지점을 향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들 인식 방식과 그것이 관계하고 있는 기존의 모든 가치체

Artist Statement

The work starts from doubting and questioning about inevitable but uncomfortable relations between our conventional method of recognition, thinking structure, value criteria and boundaries. By the medium of objects and space, it looks closely into existential recognition methods and scope, structure and principles through actual events and phenomena in everyday life experienced and observed. Then it studies and experiments how this establishes relations with utmost smoothness we have inside, things without any doubt, or all things we know and believe. Above all, I constantly ask how I can be separated to be free from all those. For this reason, instead of facing a point to reach, the work may be the process itself which continues to dissolve and transform all established value system and meaning structures felt fear and involved in our recognition method, as well as my approach and method about the problem.

계와 의미구조들을 지속적으로 해체하고 전환시키는 과정 자체이자, 문제에 관한 내 접근 태도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Construction
dimensions variable, cardboard, moved objects
from artist's studio, pedestal, 2013

조재영

www.jaiyoungcho.com
jaiyoung.c@gmail.com

학력

- Utrecht School of the Arts
M.A in Fine Art Utrecht, The
Netherlands, 2012
- 이화여자대학교 조소전공 M.F.A,
서울, 한국, 2007
- 이화여자대학교 조소전공 B.F.A,
서울, 한국, 2003

주요 개인전

- *«point. C»*,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5월 예정), 2014
- *«SCAN»*, 갤러리 토포하우스,
서울, 2009
- *«Empty Material»*, 송은 갤러리,
서울, 2009
- *«NOW & HERE»*, 갤러리 도을,
서울, 2008

주요 단체전

- *«나 - 너»*, 갤러리 보는, 서울, 2013
- *«돌림노래는 세상을 구하지
못한다»*,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3
- *«통유»*, 자하미술관, 서울, 2013
- *«이상한 쓰»*, 대안예술공간 이포,
서울, 2013
- *«What's on»*,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3
- *«Channels of Interpretation»*,
스페이스 컴, 서울, 2013
- *«신진기에: Up and Comers»*,
토탈미술관, 서울, 2013
- *«Creative Basket II»*, 시몬느
핸드백 박물관, 서울, 2012
- *«Longing Belonging»*, Academy
Gallery, Utrecht, 2012
- *«Three Artists Walk into a
Bar...»*, De Appel Boys' School,
Amsterdam, 2012
- *«Creative Basket»*, 시몬느 사육,
의왕, 2011
- *«일상 '숙' soak; 스며들다»*,
경기대학교 호연갤러리, 수원, 2010
- 모란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전
«사이와 긴장», 모란미술관,
남양주, 2010
- 현대미술 수(繡)를 놓다 *«Art in
sewing»*, 북촌미술관, 서울, 2010
- 키미아트 개관 5주년 기념전
«Salmons of KIMI», 키미아트,
서울, 2009
- *«KIMI for You: Take Color»*,
키미아트, 서울, 2008

- *«파브르 곤충 일기»*, 서호미술관,
남양주, 2008
- *«당연한 관계»*, 진선복카페,
서울, 2008
- *«The observers»*, 스페이스 무음,
서울, 2007
- *«기억의 보물창고»*, 갤러리 인데코,
서울, 2007
- *«LOVE IS»*, 갤러리 도스, 서울,
2006
- *«시사회 展»*, 대안공간 팀 프리뷰,
서울, 2005
- *«비밀과 거짓말»*, 스타일큐브
잔다리, 서울, 2005
- *«VISION 21: Painting &
Sculpture»*, 성신여대 미술관,
서울, 2004

레지던시

-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경기문화재단, 안산, 2013

수상 & 선정

- 쿤스트독 갤러리 전시작가,
쿤스트독, 서울, 2013
-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9
- ARTO Art Fair 신진작가공모 대상,
ARTO Art Fair, 부산, 2009
- 송은 갤러리 전시지원,
송은 문화재단, 서울, 2008
- 갤러리 도을 신진작가, 갤러리 도을,
서울, 2008

기타

- Threeing - Paul Ryan,
Performer, Documenta 13,
Kassel, Germany, 2012

강의

- 이화여자대학교, 조소전공, 서울,
2013-14

Jaiyoung Cho

Selected Solo

Exhibitions

- Forbidden Forest: Gotjawal,
memories of forest,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2013
- Voyage of Memories, Jeju
Museum of Contemporary Art,
Jeju, 2011
- Forbidden Forest, Exhibition for
the Awarded Artist of 9th Daum
Prize, Insa Art Center, Seoul,
2011
- Resonance of Time, gallery
zandari, Seoul, 2011

Selected Group

Exhibitions

- The Breath of Fresh, Gyeonggido
Museum of Art, An san, 2013
- My first work, gallery zandari,
Seoul, 2013
- TRAnSHformation, Th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Athene, 2013
- Encounter, Dae-gu Photo
Biennale 2012, Daegu, 2012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Jaiyoung Cho



Covers

72×62×189cm, 60×50×133cm,
cardboard, acrylic, pedestal, 2013



Sculptures in the blank
dimensions variable, cardboard, contact paper,
moved objects from artist's studio, 2013



Composition
dimensions variable, cropped photos,
black frame, 2013

최은경
Choi Eun-kyung

풍경 혹은 비풍경
이 영 욱 (미술평론, 전주대 교수)

1.

최은경의 그림은 보는 사람들을 촉발시키는 기묘한 분위기, 일종의 촉매 같은 것을 내장하고 있다. 예전 방안을 그릴 때나 최근 바깥세상을 소재로 한 그림이나 이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이 그림들은 눈앞에 바라보이는 장면을 재현하는 오랜 사실적 회화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풍경화의 관습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풍경은 어딘가 예사롭지 않다.

2.

그녀의 초반기 작업(2001년 1회 개인전, 2005년 2회 개인전)은 자취방 안의 정경을 그린 것들이다. 이 그림들은 여러모로 문제적이었다. 나는 이 그림들에서 오랫동안 온몸과 정신의 감각으로 방안의 벽과 공간과 기물들을 느끼고 주시한 한 작가를 만난다. 아마도 작가는 대상과 상호구분이 힘들어, 거리감을 잃고 통상적인 의미망 형성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빠져들지 않았나 싶다. 대상은 고정되지 않아 진동을 계속하고, 주체는 혼란 속에서 투사와 망연자실을 거듭하게 되는 어떤 상황 말이다.

그림은 이러한 상황의 회화적 재현이자 동시에 작가 편에서의 일종의 대응의 결과인 듯하다. 일종의 긴장이 확보되는 순간 작품이 산출되는데, 어떤 경우는 좀 더 명확히 대상의 유동과 주체의 혼란을 억제한 듯 보이며,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아 대상 편에서의 응시와 작가의 투사가 좀 더 전면에서 드러난다. 이 그림들에서 화면 속의 대상이 보는 사람들의 몸과 시선을 뒤덮는 방식으로 클로즈업되는 것, 대상이 평면화되고 그 표면이 부각되는 것, 대상들이 엇비슷하게 기울어져 보이거나, 화면에서 떨림이 감지되는 등의 장치와 효과들은 이 같은 작업논리에 따른 작업과정의 소산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그림들에서 나는 격심한 고투를 통해 확보한 잠정적 균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또한 화면에서 끝을 종잡기 힘든 투명함, 괴체怪體의 흔적 같은 것들과 대면하기도 한다. 화면과 대상이 탈색되어 모호한 중간 톤으로 투명해지면서도 어스름한 섬광이 화면 위를 떠돌고, 수건, 부적, 창문, 수도꼭지, 수채구멍 같은 기물들이 정상적인 형체를 잃거나 봉합 불가능한 잔여의 출몰을 암시하는 듯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정황의 등가를 아닐까?

하지만 이 그림들이 지닌 덕목의 요체는 그들이 또한 구체적인 현실의 층위를 상기시키는데 있다. 작가는 감성과 인식의 주체로서 뿐 아니라 기억과 정서의 주체로서 대상 혹은 화면과 대치한다. 나는 이 그림들에서 다름 아닌 이곳 도시 변두리 자취방 안에 고립된 개체, 하지만 그곳에서 지탱하기를 각오한 한 개체를 느낀다. 그리고 그 개체에게 축적된 기억의 잔영과 그 개체가 영위하는 현실의 편린들을 감지한다.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Choi Eun-kyung

Landscape or non-landscape
Youngwook Lee
(Art critic, Prof. in Jeonju University)

1.

Paintings of Eun-kyung Choi embed a weird mood, a kind of catalyst to evoke the spectators. It is not very different from the recent works of the outside world or when she painted the inside of the room in earlier times. These paintings are rooted in realistic tradition art which reproduces the scenes in front of the sight.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y revert to the practice of landscape paintings. However, this landscape has something out of the common.

2.

Her earlier works (a solo exhibition in 2001, two solo exhibitions in 2005) described the views of her rented room. They are problematic in many ways. Perhaps the artist steeped in inability to form a meaningful network, having difficulty in mutual divorce from the target to lose a sense of distance. This is some kind of situation that the target is not fixed to vibrate continuously, while the subject repeats projection and abstraction in chaos.

The fruit of the working process according to the following logics would be the device and effects: to be a close-up of covering the body and eyes of the spectators by the target in these paintings; the target becomes flat and its surface is embossed; and the targets look tilted similarly or vibration is sensed from the screen.

The key point of these paintings is to remind of the strata of a concrete reality. The artist as the subject of sensibility and recognition as well as of memory and emotion confronts with the screen. I sense an isolated entity, one being who is determined to hold up with painting in a rented room on the edge of this city. Also I feel the relics of memories accumulated in the entity and the glimpse of reality managed by the entity.

3.

These days Eun-kyung Choi paints the external landscape, which has been for 3-4 years. A solo exhibition in 2007 after painting of the internal room introduced the works which drew the spaces inside a school. Since 2009, she has finally gone out to paint alleys although the focus is on the objects found there rather than the landscape of alleys. Now, she seriously draws the scenery outside of the world.

To paint the scenery outside of the world after drawing the inside of a room is not very special. To the realist artists, this route often appears in a form of expanding the horizon of their sensibility and thinking in a natural way. However, there is quite a big gap between drawing the inside and the outside.

3.

요사이 최은경은 바깥 풍경을 그린다. 한 3-4년쯤 됐다. 그간 최은경의 화력은 방안에 서 걸어 나와 밖의 세상을 그리는 궤적을 보여 왔다. 방안 그림 이후 2007년 개인전에는 학교 건물 안 공간들을 그린 그림들을 선보였다. 2009년경부터는 비로소 바깥으로 나와 골목길을 소재로 한 그림들을 그렸지만, 이 그림들의 초점은 골목 풍경보다는 그 곳에서 발견한 오브제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깥세상의 풍경을 그린다.

방안을 그리다 바깥세상의 풍경을 그리게 되는 것, 그 자체는 그리 특기할만한 일은 아니다. 사실적 회화를 그리는 화가들에게 흔히 그 경로는 작가의 감성과 사유의 지평이 확장되는 양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곤 한다. 하지만 방안을 그리는 일과 바깥을 그리는 일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4.

최은경의 바깥풍경 그림 중 반절 너머는 낙향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인근의 농촌풍경들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녀의 서울 생활과 연계된 장소들, 예를 들어 쌍문동, 이문동, 미아리 같은 도시 변두리의 일상 풍경을 그린 것들이다.

나는 이 풍경들이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들여다보면 ‘몽환적 그림,’ ‘비정형非定型 풍경,’ ‘현실적 풍경’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그녀의 작업이 이 틀에 맞게 똑똑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마도 실상은 이 세 가지 지향이 각각 상이한 비중으로 조합되어 하나의 작품 안에 깃드는 것에 가까울 것이다.

‘몽환적 그림’은 어떤 측면에서는 풍경화와 어긋난다. 이 유형의 그림들은 꿈이나 몽상, 기억의 장면들이 실제 풍경과 결합하여 재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현실 속의 계기가 이러한 꿈과 기억을 불러일으켰던 아니면 역순이건, 이 그림들은 반복해 다시 상기되는 기억의 대체물이며, 그 기억에 대한 사회가 표명된 결과물이다. 나는 <뚝박의 만남>(2010), <처마 끝>(2010) 같은 작품들에서 이러한 그림의 전형을 본다. 그림의 표면은 우리를 기억, 꿈, 몽환의 잔상과 정서적 아우라 속으로 이끌며 이로써 감춰진 기억의 서사, 시간의 순환에 참여하게 한다.

‘비정형 풍경’은 2009년 당시 골목길 풍경 연작과 일면 연속된 작업이다. 이 그림들에서 초점은 이미 말했듯 골목 풍경이 아닌 그곳에서 발견된 오브제에 맞춰져 있다. 발견된 오브제란 여기서 뜬금없이 골목길에 노출된 바위의 일부, 바위덩어리들이다. 건물 모퉁이에 박혀 있거나, 골목길 축대 밑 부분에 돌출돼 있는, 혹은 시멘트로 덮여 계단이 된 바위덩어리. 폭력적 결합으로 생겨난 이질적인 오브제들.

<실개천의 아이들>(2010), <관청리 동상들>(2010), <실개천의 여름>(2012) 같은 작업들이 비정형 풍경의 사례들이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하듯 그림들 속 평범한 일상 풍경은 내부에 요해 불가능한 이질적 요소들을 숨기고 있다. <실개천의 여름>의 경우 그 지점은 개천 안 무너진 가설보假設狀 부근이다. 이곳 흩어진 돌들과 그 사이를 넘나드는 물의 흐름은 형체가 해체되어 마구 엉클어진 세밀한 필선으로 채워져 있다. 바타이유는 비정형을 가래침에 비유한 적이 있다. 그것은 형태의 분명한 존재도 부재

4.

The half of the external landscape paintings of the artist Choi are the rural scenes of Gwancheong-ri, Gobu-myeon, Jeongeup-si where her father lives after retiring to the country. The rest are the places related to her Seoul life, the daily scenes the outskirts such as Ssangmun-dong, Imun-dong and Miari.

These scene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types of ‘fantasy paintings,’ ‘irregular scenery,’ and ‘realistic scenery.’ It does not mean that her works are exactly fit in this framework. In reality, it is likely that these three directions are combined into one painting with different importance.

‘Fantasy paintings’ are against landscape ones in some aspect. It seems right that this type of paintings is restructured, combining the scenes of dream, fantasy and memory. Its archetype is revealed in <Unexpected encounter>(2010) and <The edge of the Eaves>(2010). The surface of paintings leads us to the afterimage of memory, dream and fantasy and emotional aural, making us participate in the narration of memory and circulation time.

‘Irregular scenery’ is a kind of consecutive works to the alley landscape in 2009. These paintings concentrate on the objects found there, not on the alley landscape, as already mentioned. The objects found are part of rock, a mass of rock exposed in alleys out of the blue. A mass of rock stuck in a corner of a building, stuck out under an embankment in alleys, or being stairs covered by cement. Heterogeneous objects produced by violent fusion.

Works like <Children in a Streamlet>(2010), <Gwancheong-ri Bronze Statues>(2010) and <Summer of a Streamlet>(2012) are the paintings of irregular scenery. As if playing a pictorial puzzle, ordinary daily scenes in them hide alien factors inside which are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location of <Summer of a Streamlet> is nearby a collapsed erecting beam inside a stream. Pebbles scattered here and the flow of water in between them are filled with minute drawing lines disheveled as the form is dismantled. Georges Bataille (1897-1962) compared irregularity to spit. This is neither a clear form nor absence. It denies language and a form, and does not want anything independent newly. Thus daily and nondaily life, landscape and non-scape coexist, which has no stratagem.

‘Realistic scenery’ is the type of paintings pursued most recently. In these works, the artist tries to embrace the horizon of life as an individual who lives along with others, not as an isolated one. She pays attention to abandoned land, hidden spots. <Out the Window, Open Space of Gwancheong-ri in Winter>(2012) or <Out the Window, Winter in Gwancheong-ri>(2012) reminds of being abandoned and hidden, thereby suggesting different non-scape or half landscape. Here the landscape fixes the viewpoint of some witness which cannot be passed by. And a kind of remorse or emotional rolling from the viewpoint billows. She is walking in this landscape now.

도 아니고, 언어와 형태를 부정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이 독립된 무엇을 원하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일상 은 비일상과 풍경은 비풍경과 공존하며,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적 풍경’은 가장 최근 작업들이 지향하는 유형의 그림이다. 이 작업들에서 작가는 홀로 고립된 개인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한 개인으로서 삶의 지평을 포용하려 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그곳의 풍경들은 과거의 공동체가 해체되어가면서, 후기 산업적인 황무지로, 생태학적 폐허로 전락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곳은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 의해 생산되고 동시에 훼손된 슬럼slum화된 지대이다. 즉,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변형된 외설스럽고 불경한, 변이變異적이고, 과잉된 상처이자 '돌기'로, 바로 21세기적 우리 삶의 단면이자, 기형적인 우리 근대성의 증상적 지점일 것이다.”

이번 경우에도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버려진 땅, 보이지 않도록 가려진 지점들이다. 〈차창 밖, 관청리 겨울 공터〉(2012)나 〈차창 밖, 관청리 겨울〉(2012)은 이 버려짐과 가려짐을 상기시키며, 그것으로 또 다른 비풍경 혹은 반풍경을 제시한다. 여기서 풍경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어떤 목적의 시점을 고정시킨다.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일종의 회한 혹은 정서적 일렁임 같은 것이 피어오른다. 그녀는 지금 이 풍경 속을 걷고 있다.

5.

바깥세상을 대면한 최은경의 작업은 마치 활짝 열린 공터 이곳저곳을 이리저리 질주하는 듯하다. 그녀의 풍경은 기억과 일상과 사회적 현실의 층위 모두에서 각각 상이한 방식으로 비풍경을 제기한다. 그리하여 우리를 시간의 순환 속 어떤 열린 틈새로 인도하는가 하면, 더없이 평평한 일상 속 심연과 대면케 하기도 하고, 어떤 일렁임에의 기대에 달뜨게도 한다. 그녀의 이 낮선 풍경, 낮선 세계에 대한 탐구가 더 절실하여 융송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5.

The works of Eun-kyung Choi facing the outside of the world seem to speed here and there in a wide open space. Her landscape suggests non-scape from all strata of memory, routine and social reality in each different mode, thereby guiding us to some open gap in time circulation, meeting an abyss in even routine, and hyping us up for the expectation of rolling. Is it too much to hope that this strange landscape of the artist, the exploration of a strange world would be intensified for full treatment?

최은경

— sunnyroomc@naver.com
— http://blog.naver.com/sunnyroomc

학력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졸업, 2006
—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1997

주요 개인전

— 〈어스름〉, 갤러리 담, 서울, 2013
— 〈서쪽의 초행길〉, 광주신세계
갤러리, 광주, 2012
— 〈뜻밖의 만남〉, 사루비아다방 기획,
스페이스 공명, 서울, 2010
— 〈내월 來月〉, 가 갤러리, 서울,
2007
— 〈제4회 송은미술대상전 대상수상
기념전〉, 송은 갤러리, 서울, 2005
— 〈시루떡 먹은 북어〉, 갤러리 보다,
서울, 2001

주요 단체전

— 〈경기창작센터 오픈스튜디오
기획전: 최은경 개인전_서쪽의
초행길〉, 경기창작센터 기획 전시실,
안산, 2013
—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아티스트 릴레이 프로젝트〉,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2
— 〈Thinking of SARUBIA-사루비아
기급마련전시〉, 이화익 갤러리, 서울,
2012
—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제6기 입주작가 공동 워크숍〉,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12
— 〈제13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선정작가展〉, 광주신세계 갤러리,
광주, 2011
— 〈힘의 풍경_이효연, 최은경展〉,
덕터박 갤러리, 양평, 2010

수상 및 지원

— 서울문화재단 정가공모지원사업
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 선정, 2013
— 서울문화재단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작품공모 선정, 2012
— 갤러리 신한 역사 그림 공모 당선,
2012
— 175 갤러리 공모 선정, 2012
— 제13회 광주신세계미술제 우수상
수상, 2011
— 〈스페이스 공명〉, 사루비아다방
기획 전시 후원 작가, 2010

Choi Eun-kyung

— sunnyroomc@naver.com
— http://blog.naver.com/sunnyroomc

Education

— MA in the Formative Arts,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2006
—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Duksung Women's
University, 1997

Selected Solo Exhibitions

— 〈Dusk〉, Gallery Dam, Seoul,
2013
— 〈The first trip to the west〉,
Shinsegae Gallery, Gwangju,
2012
— 〈Unexpected Meeting〉,
Sarubia Coffee Shop Project,
Space GongMyoung, Seoul,
2010
— 〈Next Month〉, Gaga Gallery,
Seoul, 2007
— 〈The 4th Celebration of the
Grand Prize, Songeun Art
Award〉, Songeun Gallery, Seoul,
2005
— 〈Dried Pollack Eating Steamed
Rice Cake〉, Gallery Boda, Seoul,
2001

Selected Group Exhibitions

— Special Exhibition, Open
Studio, Gyeonggi Creation
Center: Eun-kyung Choi Solo
Exhibition 〈The first trip to the
west〉, Special Exhibition Hall,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2013
— 〈Artist Relay Project,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2012
— 〈The 13th Exhibition of
Artists selected by Shinsegae
Gallery, Gwangju〉, Shinsegae
Department Store Gallery,
Gwangju, 2011
— 〈Landscape of a Rest_
Hyoyoung Lee, Eun-kyung Choi〉,
Dr Park Gallery, Yangpyeong,
2010

Awards and Sponsorship

— Selected in Visual Arts,
Art Creation Fund, Regular
Competition Sponsor Projec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3
—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Art Campaign
〈Flirtatious Art〉 Selected Work in
Competition, 2012
— Winning in the Shinhan
Gallery Yeoksam Group Contest,
2012
— 175 Selected by Gallery
Contest, 2012
— Award for Excellence in the
13th Gallery Shinsegae Art
Festival, Gwangju, 2011
— 〈Space GongMyoung〉 Special
Exhibition sponsored by Sarubia
Coffee Shop, 2010

Residency

— The 4th term Gyeonggi
Creation Center Residency, 2013
— The 6th term Cheongju Art
Studio Residency, 2012
— Takeout Drawing Café
Residency

Placement of works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Ilmin Museum of Art, Songeun
Cultural Founda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rt Bank,
Gaga Gallery, ING Bank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Choi Eun-kyung



골목 1 / Alleys 1
Oil on canvas, 130x162cm, 2013



관청리 2 / Gwancheong-ri 2
Oil on canvas, 130×146cm, 2012



관청리 3 / Gwancheong-ri 3
Oil on canvas, 117×91cm, 2013



밤 골목 / *Alleys at Night*
Oil on canvas, 117×91cm, 2013

작가노트

역사를 포함한 세계를 기술하는 방식들은 때때로 세상의 주체인 인간의 담론을 담아내는 절대적 기원으로 간주하는 리얼리즘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연루된 내 작업들은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의 허구적 시점을 시각적 물질로 번안하기 위해 실재의 데이터들을 부조리한 세계관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력하게끔 한다. 그리고 가상의 타임라인 안에 각각의 시간-출연자들을 축자적으로 호명하면서 실렘시스의 순간으로 향하는 미술적 의사-영화를 구축한다. 물화된 이 사건들은 관습적인 미술의 재료와 형식 대신 컷과 미장센 등의 단위로 재설정되고 시각매체라는 외연의 문법의 기능과 가능성을 재질문 한다. 이 과정들은 필연적으로 오역의 범위를 동반하고 작동하면서 제 존재의 당위성을 성취하고자 한다.



오픈 스튜디오의 빅토리안 부케 극장
The Victorian Bouquet Theater at Open Studio
installation view, Live flowers & fruits,
artificial fruits, vase, plastic wine glass, eggs,
branches, films(made by other directors)-
projection, 2013

*The
Victorian
Bouquet
Theater*



146

147



최은경

— sunnyroomc@naver.com
— <http://blog.naver.com/sunnyroomc>

학력

— 덕성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

전공

— 덕성여자대학교 예술학부
동양학과, 시각디자인과 복수전공

수상 및 지원

—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2
— ISCP New York 레지던시
프로그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해외 레지던시 참가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09
— 문화예술진흥기금-뉴스타트
시각예술 신진예술가부조 선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 2008
— 제 29 회 중앙미술대전, 선정,
중앙일보사, 서울, 2007
— 제 7 회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송은문화재단, 서울, 2007
— 포트폴리오 리뷰, 공모선정,
스페이스 바바, 서울, 2007

레지던시

— 경기창작센터,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대한민국, 2013
— 세라믹창작센터,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경상남도, 대한민국,
2012
— ISCP: International Studio &
Curatorial Program, 브록클린,
뉴욕, 미국, 2009

개인전

— 〈비가 내릴 것이다〉, 16번지
갤러리현대, 서울, 2012

그룹전

— 〈롤링노래는 세상을 구하지
못한다〉,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2013
— 〈Testing Testing 1.2.3〉,
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2
— 〈Exchange: Over and Over〉,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창작스튜디오,
서울, 2012
— 〈에필로그: 경계에 서다〉,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2011—2012

Choi Eun-kyung

— sunnyroomc@naver.com
— <http://blog.naver.com/sunnyroomc>

Education

— MA in the Formative Arts,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2006
—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Duksung Women's
University, 1997

Selected Solo

Exhibitions

— *Dusk*, Gallery Dam, Seoul,
2013
— *The first trip to the west*,
Shinsegae Gallery, Gwangju,
2012
— *Unexpected Meeting*, Sarubia
Coffee Shop Project, Space
GongMyoung, Seoul, 2010
— *Next Month*, Gaga Gallery,
Seoul, 2007
— *The 4th Celebration of the
Grand Prize, Songeun Art
Award*, Songeun Gallery, Seoul,
2005
— *Dried Pollack Eating Steamed
Rice Cake*, Gallery Boda, Seoul,
2001

Selected Group

Exhibitions

— Special Exhibition, Open
Studio, Gyeonggi Creation
Center: Eun-kyung Choi Solo
Exhibition *The first trip to the
west*, Special Exhibition Hall,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2013
— *Artist Relay Project,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2012
— *The 13th Exhibition of
Artists selected by Shinsegae
Gallery, Gwangju*, Shinsegae
Department Store Gallery,
Gwangju, 2011
— *Landscape of a Rest*,
Hyoyoung Lee, Eun-kyung Choi,
Dr Park Gallery, Yangpyeong,
2010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Choi Hae-ri



Plain Suites Overture
detail, 2013



평원 모음곡 서곡 / Plain Suites Overture
still cut, mixed media, 2013

홍원석
Hong Won Seok

실크로드를 타는 택시드라이버 — P택시 프로젝트 : DMZ
김종길 미술평론가, 경기문화재단 책임큐레이터

이 글은 <P택시 프로젝트 : DMZ>의 비평적 탐색을 위한 몽상적 대화다. 몽상가 E씨와 비평가 K씨는 연인 사이로 경기도미술관에 설치된 작가의 프로젝트 설치작품을 보고 난 뒤 카페테라스에 앉았다. 겨울호수가 얼어서 눈밭이다.

몽상가 E : 여자. 우울한 눈빛으로 일탈을 자행하는 시인이자 시나리오 작가

비평가 K : 남자. <P택시 프로젝트 : DMZ>을 작가에게 권유한 바 있는 비평가

E : 매력이라고는 콩알만큼도 없는 프로젝트야. 미리부터 <택시드라이버>의 로버트 드니로(트레비스 역)를 떠올린 것이 패착이었어. 최소한 드니로식 낭만주의 정도는 있겠지 생각 했거든. 낭만주의 없는 삶은 너무 역겨워! 헛바퀴 도는 다람쥐들 같잖아! P택시가 달리는 이유는 뭐야?

K : 홍원석이 그동안 해왔던 ‘커뮤니티형’ 아트택시가 상상의 실크로드를 타기 시작한 것이지. 지난 해 <동네미술>전에 참여하면서 그는 현실계(現實界) 내의 장벽을 월경할 수 있는 ‘P택시’를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홍원석이 생각한 그 [현실계-내(內)-장벽]의 구도가 하이데거가 말했던 [세계-내-존재]의 구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난. 예컨대 그는 평양행 택시를 사전에 공지한 뒤 신청서를 제출한 손님과 평양으로 가는 모험을 단행하려고 했거든. (말도 안 되는)평양행 택시와 택시를 둘러싼 사회(자본에 따른 노동임차 구조)가 한국사회의 분단모순과 자본주의를 보여주는 현실계라면, 그들이 올라탄 택시는 현실계의 내적 구조라 할 수 있어. 그런데 홍원석이 구조화 한 [P택시-현실계]는 이미 모순에 차 있으므로 택시에 올라탄 그를 모두는 이미 총체적인 ‘장벽’인 셈이야. 택시로 갈 수 없는 곳과,

그 갈 수 없는 곳을 가려 하거나 갔거나 갔단 온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사회가 바로 여기잖아. DMZ가 실제로서의 장벽이라면 ‘분단모순’의 현실은 그 선을 넘어가려는 어떠한 심리적 시도조차도 여기서는 장벽으로 작동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P택시를 탄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현실계를 초월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라.

E : 초월하고 싶었던 것일지 모른다고? 초월해야만 하는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들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분단모순’이라는 장벽을 가지고 있어. 어쩌면 모두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진 척 하지 않거나 잊어버려서 문제인 나라야 여간. 우린 고립된 섬처럼 60년을 살고 있어. 때때로 나는 숨막혀 죽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뛰어가지 않겠어? 달려야지, 평양이든 신의주든 연경을 거쳐서 인도로 가거나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해서 시베리아로 가거나 어디로든 달려갈 필요가 있다고! [내-존재]의 승객들이 서로 거울을 보듯이 쳐다보면서 달려가야 해. 초월이 터지려면 서로의 거울면(-面)이 필요하거든. 내가 나를 보고 네가 너를 보고 또 내가 너를 보면서 마주하는 그 면, 그 마주침의 거울, 위와 아래를 구분할 수 없는, 위와 아래가 딱 달라붙은 그 우물면(-面) 말이야. 그 우물면이 투명하게 열려서 서로주체로 교통하게 되는 순간이 초월이니까.

K : 통일대교 앞에서 P택시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 더 이상 갈 수 없었지. 거기까지가 현실계의 장벽이라면 장벽이야. 내가 말하는 우물면은 그 다음이겠지. 상상의 통일터널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유터널이라고 할까? 아니, 그건 터널이 아니라 어떤 통로 같은 것이겠군. 그 우물면 말이야. 우물 속으로 깊게 들어가서 다른 통로로 이어지는 상상을 해 보는 거야. 일종의 상상 의 확장선 그리기 같은 걸 말이지. 전시장에 설치 해 놓은 거대한 다리와 그 밑에서 쏘아 올린 영상에서 나는 그걸 느껴. 영상은 마치 물밑 심연에서 표상되어 올라가듯이 천장을 향해 쏘아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통일대교의 철골구조 다리처럼 제작된 그 작품이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잇는 교각(橋脚)같은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 우물이 보이진 않는 의식의 통로라면 그 작품은 섬과 섬, 섬과 대륙을 잇는 다리라는 얘기야. 홍원석의 P택시는 지금 그 위를 달리는 상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E : 오호라, 그러니까 네 말은 홍원석의 P택시가 ‘섬 탈출’ 기계란 말이지? 섬 탈출이라... 말 되네. 내가 하고

A taxi driver running the Silk Road - P Taxi Project : DMZ
Jongil Kim, Art critic, Chief curato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This article is a dreaming dialog for critical exploration into <P Taxi Project: DMZ>. Lovers of a dreamer E and a critic K sit on a café terrace after seeing an artist Won Seok Hong's installation work displayed in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 winter lake is a snowfield frozen.

Dreamer E : A woman. A poet and scenario writer who commits deviation with melancholy eyes.

Critic K : A man. A critic who recommended the artist P Taxi Project: DMZ.

E : It is an unattractive project. It was a bad move to remind of Robert De Niro in <Taxi Driver> in advance. I thought it might have De Niro-like romanticism at least. The life without romanticism is too much disgusting! It repeats a routine endlessly. Why does P Taxi run?

K : ‘Community-type’ art taxi conducted by the artist Hong has begun to ride the imaginary Silk Road. Last year, participating in Community Art, he thought of P taxi to cross the border within the real world. Since [P Taxi-Real World] structuralized by the artist is full of inconsistency already, however, all those who are on the taxi are the collective ‘barrier’. It is here that the society applies the most powerful national security law to those who try to go or have been the place which cannot reach by taxi. If DMZ were a barrier, any psychological attempt to cross over the line could work as a barrier in the reality of ‘a contradiction of division’. For this reason, those who are in P taxi might want to overpass the real world, facing one another.

E : We should transcend it. Not only them but also all people living in this society have ‘the contradiction of division’! Perhaps everybody has it but pretends not to have or forgets it, which is a problem. We have lived for 60 years like an isolated island. Sometimes I feel suffocated to death. So, I have to run not to die.

K : P Taxi could not but stop in front of the Unification Bridge. It could not go further, which is the barrier of

the real world, so to speak. I felt that an enormous bridge and the image projected from under is a kind of drawing an imaginary extending line. The image was shot to the ceiling as if rising up from an abyss under the water. The work constructed like a steel-frame structure of the Unification Bridge appears to be a post connecting this and that worlds. It is a bridge to link one island with the other, and an island and the continent. Hong’s P Taxi imagines driving on it now, doesn’t it?

E : Oh well, you mean his P Taxi is a machine for ‘an escape from an island.’ That is what I want to say. Escape from an island! Then romance pops up. Is Hong’s work romantic? In my opinion, he turns round and round a coastal road, let alone the escape from an island. It is departure, which rushes here and there.

K : Your opinion is problematic. DMZ and North Korea are never a jungle, nor a swamp. Those are a divisional situation and reality. Without this awareness, it is impossible to imagine any. This is not art taxi, but P Taxi. ‘P’ indicates Pyongyang directly, but it could be paradise, a parallel line or peace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the interpretation opens according to what P means. What do you think about it?

E : If I say, both a driver and the party of passengers have the same goal. It is the driver who suggested the project with the destination of P, and passengers who agreed to P’s goal-orientation. Their proceeding to P is a different attitude from art taxi which the artist has carried out. Art taxi which has made a community artist Won Seok Hong today is humanity-expanding projects, a kind of sympathetic community art projects. I do not want to grant any significance beyond the fact that the artist has inherited the family business for living from his grandfather to father as art taxi although I can approve his planning ability to shift ‘living’ to ‘art’, being himself as the art taxi driver, and his effort to operate ‘a communal character’ flexibly which has been hardened or stopped in the villages and towns conducting projects. P Taxi is the most provocative, lively, pleasant and subversive imagination which only ‘art taxi’ can dream. The artist and passengers try to rush to the agnostic unknown ‘unknowingly’.

K : P Taxi runs a vast expanse of wayless grassland. An imagination to drive a wayless road is too much unrealistic. You story sounds supernatural as much as finding a being of [my-being] invisible on the road in the middle of nowhere. When I think otherwise, P

Taxi project cannot be practiced without overpassing the reality. The bridge in the exhibition built by the artist might be ‘an ion channel’ heading for the invisible road. You may realize that my idea and belief is not too much when seeing his paintings. The taxi in his paintings not only runs the road but also flies the dark sky or the outskirts of the street. The taxi itself searches for the rudder. When losing the rudder, the taxi would anchor in an unknown uninhabited island, a kind of a platform or stop. If so, Pyongyang is not the destination but a stop. Then an imaginary territory would be completed to ride on the Silk Road. When a road is stretched to extend endlessly, the road disappears. If so, the road is everywhere as well as nowhere. This is the goal of the project imagined by P Taxi ultimately.

E : It is time to pause. Temporary pause, temporary stop! Shall we stop here? Both of us have gone too far conceptually. There is one thing we have overlooked. While concentrating on a moving machine of a taxi, we have not talked about [my-being/a being] consisting of Won Seok Hong and passengers. Who are they? I do not feel comfortable with them. When positioning P as a stop, I cannot understand their behaviors all the more. They neither practice revolution to cross the barrier, nor standing nowhere of a stop or an extended life. As you mentioned before, a vast bridge in the exhibition hall stands for the extension life even though it is an unrealistic fiction.

K : If their belief were agnosticism as you said, the artist and passengers could be nomadic ascetics. In short, they are companions training together as travel partners. Although the work of Won Seok Hong is not called an ascetic project, their attitude and travel are filled with asceticism already. As seen in the image, they are not different from clowns wandering from place to place. Look at the performance they presented at the Panmunjeom, a spot of a temporary stop. It may be their charitable deeds practicing at the nomadic site. As Hyecho roamed India on foot in the 8th century, the artist Hong wanders around by P Taxi now. It is to leave for a brilliant ascetic way to ride on the imaginary Silk Road, transforming art taxi to P Taxi.

E : Do not try to make such a conclusion. If only an artistic practice is the reality, the artist's project is very much an illusion. In order to enter the imaginary territory, he should find freedom for himself. It is impossible to do that without demolishing the barrier of ‘the contradiction of division’

within myself as well as yourself. That is why Won Seok Hong, his taxi and the passengers on it are not unrestricted. They are lingering over the fence of the borderland so far.

K : If you say so, all our talks until now come to nothing. Who demolishes the borderland? Is it the contradiction of division? If so, how can they cross over the division barrier of a psychological contradiction? The artist cannot solve it by himself. When we cut through the barrier of the contradiction coiled up inside ourselves, his P Taxi can pick up momentum. It can go anywhere. What happens when leaving and completing to return home? He comes back home! Where is his home? How can he find it while it had left already? Is a family home one which he should come back? At the spot where these questions shower, P Taxi should run again, I think. If we want to continue our talk, we should have a fresh start from the spot! He should come back where to come back. The place to come back is everywhere. However, he must remember where he starts. This is the very DMZ.

싶었던 말이 그거야. 섬을 탈출하라는 것! 그래야 낭만이 터지지. 그런데 홍원석의 작품이 낭만적이었나? 섬을 탈출하고 있기는 한 거야? 내가 보기에 홍원석은 섬 탈출은 고사하고 해안도로만 빙빙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군. 목을 꺾어서 뚫어져라 영상을 쳐다 봐도 섬 탈출기 따위는 어디에도 없었거든. 통일대에서 막혔으면 정글로 들어갔어야 해. 늪에 빠졌거나. 택시드라이버 로버트 드니로가 보았던 세계의 인식방식을 적용하면 홍원석은 섬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탈출을 감행했어야 하는 거라구. 그렇다고 내가 드니로의 치명적인 공격성이나 분노를 생각하는 것은 아냐. 일탈이지, 일탈! 이곳에서 저곳으로 후딱 달려가는 것 말이야.

K : 네 생각에 문제가 좀 있어. DMZ와 북한은 결코 정글이나 늪이 아니야.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분단적 상황이자 실체지.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상상도 불가능해. 우리는 쉽게 인디애나 존스가 헤쳐 나갔던 방식의 정글탐험이나 늪을 떠돌릴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 홍원석이 고민했던 것도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아트택시가 아니라 분명히 P택시거든. 알파벳 대문자 ‘P’는 직접적으로 평양을 가리키는 기표문자인 않지만, 해석에 따라 그것은 파라다이스가 될 수도 있고 평행선(parallel line)일수도 있으며, 평화일수도 있어! 다시 말해 P택시의 택시론이 무엇이나 하는 거야. 사실 P가 무엇이나에 따라 해석은 열려 있는 셈이지. 넌 어떻게 생각해?

E : P택시의 택시론이라고? 택시론이라... 택시론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거야? 굳이 따져서 말하면 드라이버나 승객이나 둘 다 목표가 같다는 것이 있겠네. P를 목적지로 프로젝트를 제안한 건 드라이버고, 그 P의 목적지향에 동의한 것이 승객이니까, 둘이 P를 향해가는 것은 그동안 그가 수행해 온 아트택시와는 다른 태도야. 지금의 커뮤니티 아티스트 홍원석을 있게 한 아트택시는 휴머니티 확장형 프로젝트였어. 일종의 공감형 커뮤니티아트프로젝트였다고 할 수 있단 얘기가.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이어진 ‘택시 운전’이라는 생계형 가업을 예술가 홍원석이 아트택시로 물려받았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아. ‘생계’를 ‘아트’로 기획한 홍원석의 기획력과 직접 그 자신이 아트택시 드라이버로 나섰다는 것, 게

다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마을과 도시에서 딱딱하게 굳었거나 멈춰버린 ‘공동체성’을 유연하게 작동시키려 애썼다는 것을 긍정할 순 있지만 말이지. 그러나 P택시는 휴머니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목적지를 설정했고, 불특정 다수의 커뮤니티 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이나 도시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교란할 수도 있는 확장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트택시와는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고 P택시를 포괄적 의미에서 아트택시프로젝트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 P택시는 ‘아트택시’만이 꿈꿀 수 있는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발랄하고 유쾌하며 전복적인 상상이라고 생각해. 아트택시프로젝트가 아닌 P택시는 그저 무모할 뿐이야. 나는 또 P택시를 탄 그들이 불가지론(不可知論)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 P를 목적지로 둔 이상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초경험적 상태를 노정하게 되어 있거든. 불가지론(agnosticism)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한 아테네의 ‘알 수 없는 신에게(agnōstō theō)’라고 새겨진 제단에서 비롯된 것이잖아. 홍원석과 승객들은 그 알 수 없는(agnostic) 상태의 미지를 향해 참으로 ‘알 수 없게’ 돌진하려고 해. 알 수 없는 길에의 알 수 없는 돌진. 그게 P택시의 택시론이라면 택시론일 수 있다고 봐.

K :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P택시론은 길 없는 길을 가는 데 있다는 것이겠군. 길이 없는 광막한 초원을 달려가는 P택시가 보여. 자, 그렇다면 네 얘기는 필연적으로 홍원석의 택시론이 ‘길의 상상력’과 연관이 있다는 말인데, 길 없는 길을 달린다는 상상은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 어디에도 없는 길에서 보이지 않는 [내-존재]의 존재자를 찾는 황당함만큼이나 네 얘기가 초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가지 않은 길이거나 보이지 않는 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길, 길 없는 길을 택시론의 개념으로 들다니 뭔가 큰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런데 말이지. 네가 말하는 그 문제적 발언이 어쩌면 핵심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 참, 나 스스로도 아이러니 하군. 달리 생각해 보면, 홍원석의 P택시 프로젝트는 현실을 월경하지 않고서는 결코 실천될 수 없는 프로젝트잖아. P택시프로젝트는 현실을 월경한 곳에서만 제 길을 찾거나 만날 수 있을 거야. 그가 전시장에 세운 교각은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길로 향하는 구체적인 ‘이온통로(ion channel, ~通路)’일지도 몰라.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런 내 생각과

믿음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거야. 그의 그림 속 택시는 길 만이 아니라 어두운 하늘이나 길의 외곽을 날아다니기도 해. 그림 속에서 택시는 스스로 방향타를 찾고 있는 셈이야.

E : (조용히 읊조린다) 그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사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되라, 그대여 높이 서려면 산 꼭대기에 서고 깊이 가려면 바다 밑으로 가라, 살아도 온몸으로 살고 죽어도 온몸으로 죽어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대여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버려라!

K : 방향타를 상실했을 때는 무인도 같은 이름 모를 섬에 정착하겠지. 플랫폼이거나 경유지같은 곳 말이야. 그런 맥락에서 'P'는 경유지(經由地)에서 '지(地)'의 장소를 뜻하는 포인트(Point)일수도 있을거야. 그러면 평양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뜻도 돼. 그래야 실크로드를 타는 상상의 영토가 완성되지 않겠어? 길이 길로써 수없이 뻗어나가 확장선을 탈 때 길은 스스로 사라지지. 그렇게 되면 길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어디에도 없는 것이기도 해져. 그것이 P택시가 궁극적으로 상상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이기도 할 거야.

E : 그때쯤 퍼즈(pause)가 필요하겠군. 일시정지, 일시멈춤! 자, 여기서 잠깐 멈춰 서 볼까? 개념적으로 너무 멀리 왔어, 우리 둘 다. 홍원석이 택시여행 수행자도 아니고 경허(鏡虛) 도사도 아닌 바에야 뭐 그렇게 철학적일 필요가 있을까 고민이군. 그리고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택시라는 이동기계에 집중하다 보니 홍원석과 승객으로 구성된 [내-존재/존재자]의 얘기를 많이 하지 못했어. 드라이버 홍원석이라는 존재/존재자, 승객으로 동승한 자들의 존재/존재자. 자, 이들의 정체는 뭘까? 나는 사실 그들이 좀 불편하거든. P를 경유지로 놓으면 더더욱 그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은 장벽을 월경하는 혁명을 실천하지도 못했고 경유지는커녕 확장선을 타거나 확장성의 어디에도 서 있질 않거든. 네가 말한 것처럼 전시장에 세운 거대한 교각의 상징이 확장선을 위한 상징물이라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실체적인 허구일 뿐이야.

K : 네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불교적 개념인 '회향'이란 말이 있잖아. 회향(迴向/迴向)은 대비심(大悲心)으로 현재까지 쌓은 공덕을 일체의 중생에게 돌려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말해. 회향으로 홍원석을 한 번 보자고. 우리는 그가 가는 길이 없는 길이라고 했고, 그 길의 통로가 우물 같다고도 했어. 그들의 신념이 네가 말한 것처럼 불가지론이라면 홍원석과 승객은 P를

향한 유목적 수행자일 수도 있다고 봐. 한마디로 동반 여행자로서의 동반인 셈이지. 굳이 홍원석의 프로젝트를 수행성의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의 태도와 여행은 수행으로 가득 차 있어.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마치 이곳저곳을 떠도는 광대들과 다르지 않잖아. 일시멈춤의 장소였던 판문점에서 그들이 펼친 공연을 보라고. 나는 그게 그들이 쌓는 유목지에서의 공덕이 아닐까 생각해. 물론 그들의 공덕공양이 일체 중생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8세기에 혜초가 천축국을 무벽지로 떠돌았다면 이제 홍원석은 P택시로 떠돌고자 하는 것 같아. 아트택시가 P택시로 전환되어서 실크로드의 상상을 타는 기발한 수행성의 길 떠나기로서 말이지.

E : 그렇게 결론 내리려고 하지마. 너는 항상 '상상을 탄다'고 말하면서 작가를 부추기지. P택시를 부추긴 것도 네가 아니었어? 예술적 실천만이 실상이라면 네가 부추기는 홍원석의 프로젝트는 지나칠 정도로 허상이야.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기 힘든 네 말들도 구라가 심해. 몽상이 터져서 상상의 영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그 스스로 자유를 찾아야만 할 거야. 네 안에 있고 내 안에도 있는 '분단모순'의 장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해. 홍원석이, 홍원석의 택시가, 택시에 올라 탄 승객들이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야. 그들은 경계지의 울타리에서 맴돌 뿐이라고 아직까지는.

K : 네가 그렇게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다 헛수고가 돼. 생각해 봐. 누가 경계지를 허물지? 분단모순이라고? 그럼 심리적 모순의 그 분단장벽을 어떻게 월경할 수 있지? 그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아니, 그건 너고 나야만 해. 홍원석 혼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파리를 틀고 앉은 그 모순의 장벽을 뚫고 나가야만 그의 P택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어디로든 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떠나서 회향이 다 이뤄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으로 돌아가야 겠지! 그럼 그의 집은 어디 있지? 이미 떠나고 없는 집을 어떻게 찾지? 고향집이 돌아갈 집일까? 나는 바로 그 질문이 터지는 곳에서 다시 P택시가 운행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려면 그 지점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봐!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돌아갈 곳은 어디에나 있잖아. 하지만 지금 그가 출발하는 곳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라구. DMZ라는 사실을 말이야.



주요 개인전

— 〈문래입기(새나라자동차프로젝트)展〉, 서울시 창작공간 문래예술공장 M30, 2013
 — 〈이동의 기억 展〉, 갤러리 포월스, 서울 / 아트스페이스 휴, 파주, 2012

주요 단체전

— 〈생생화화:生生化化〉, 경기도미술관, 2013
 — 〈신진기예:新進氣銳〉, 토탈미술관, 서울, 2013
 — 〈미술관속 사진 페스티벌:사진과 사회-소셜아트〉, 대전시립미술관, 2013
 —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생명의 고라〉, 울산광역시 남구 태화강 둔치 입대, 2013
 — 〈동네미술-커뮤니티아트展〉, 경기도미술관, 2012
 — 〈창동그라파〉, 국립현대미술관 창동창작스튜디오 전시실, 서울, 2012

Selected Solo

Exhibitions

— *Mullae diary, MAP(Mullae Artist Project)*, artist 3st, Seoul Art space Mullae, 2013
 — *Memories of journey*, Gallery 4Walls, Seoul / Artspace Hue, Paju, 2012

Selected Group

Exhibitions

— *The Breath of Fresh : 生生化化*,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2013
 — *UP-AND-COMERS : 新進氣銳*, Total Museum, seoul, 2013
 — *Photography and Society : Social Art*, Daejeon Museum of Art, 2013
 —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The Circle of Life*, 2013
 — *Community Art*,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2012
 — *Changdong-graphy*, Changdong Art Studio Gallery, Seoul, 2012



멈춤-다리 / Pause-bridge
 영상설치, 720x1000cm, 2013



어두운 길 / *The dark way*
oil on canvas, 130×162cm, 2013



한강 / *Han gang*
oil on canvas, 132×162cm, 2013



규호산책(叫號散策)스틸컷_홍성시장
photographed by이샘, 2013

궁극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마치며.

2005년 10월 북 독일의 쉐핑엔에서 시작된 뮌mioon이 참여한 많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2014년 2월 대부도의 경기창작센터(GCC)에서 끝을 맺는다. 큰 지도를 놓고 그 동안 거주하며 작업하였던 곳들을 핀으로 꼽아 실로 연결하면 서로 겹치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그어진 비대칭의 거미줄이 만들어질 것이다. 안개가 자주 자욱하게 끼고 한없이 고요했던 북 독일의 쉐핑엔, 항상 번잡했지만 언제나 에너지가 넘쳤던 서울의 창동스튜디오, 겨울에 가서 정말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덕분에 다양한 치즈를 맛봤던) 프랑스의 CEAAC, 뉴욕 주 북부의 숲속 들판의 야생사슴이 뛰어다니던 Art Omi, 스펙타클의 서사의 지존(至尊)을 장식했던 남아공의 Bac Factory, 5개월간 뉴욕 미술계의 생리에 대해서 공부했던 ISCP,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중해의 섬처럼 작업실

Finishing an ultimate residency program.

Started from Schoppingen of the northern Germany in October 2005, a number of residency programs in which Mioon has participated end in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GCC) located in Daebu Island in February 2014. When pinning the places where I have stayed and worked and connecting them with thread on a big map, an asymmetrical web will be constructed, overlapping lines one after another. Schoppingen of the northern Germany where it would be very often foggy and serene, the National Art Studio, Changdong in Seoul which would be always crowded but very energetic, CEAAC of France where nothing happened indeed in winter (for its sake, I tasted a wide variety of cheese), Art Omi in the north of the New York State where wide deer would run in its forest fields, Bac Factory in South Africa where I completed the supreme epic of spectacles, ISCP where I studied the art world of New York for five months, Gana Studio in Jangheung where I was isolated in the workshop for a long time like an island in the Mediterra-

에서 고립되어 지냈던 장흥의 가나스튜디오, 한껏 쾌적하고 널찍했던 파주의 메이크샵를 거쳐서 환상의 섬 대부도의 경기창작센터... 항상 작업실이 필요했고, 때로는 전시 후에 돌아온 거대한 작업을 위한 창고가 필요하기도 했고, 가끔은 낯선 곳에 머물고 싶을 때마다 옮겨 다녔던 것 같다. 근 10년간의 이동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작가 이력에 도움이 될까, 미술계에서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 외국의 레지던시는 어떻게 진행될까. 여러 가지 궁금증과 기대를 가지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그리고 그 곳들이 우리에게 제공했던 것은 '너희는 작가고, 작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거야'라며 이야기 하는 작업을 생각하고 진행할 수 있는 '작업실'이었을 것이다.

2014년 2월.
개인전을 준비하며
대부도에서 뽀mioon

nean, Makeshop Art Space in Paju which was highly comfortable and large, and then GCC in Daebu Island, an fantastic island. ... I wanted a studio, and sometimes needed a warehouse for a huge artwork coming back after exhibiting. It seems I have moved whenever I wanted to stay in foreign places from time to time. From the movement almost for a decade, I experienced a lot at first with various curiosities and expectations, including whether this could be helpful for my career, whether I could make a good network in the world of art, and how residency programs would be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What was essential to the ultimate and those places provided me, however, would be 'the workshop' which could think of the work to carry out, saying 'You are an artist and needs space for working.'

Preparing a solo exhibition
at Daebu Island
in February 2014. Mioon



Habitat
가변 사이즈, 2013

원
김민선 Kim, Min-Sun
→ www.mioon.net
→ info@mioon.net

학력
→ 뒤셀도르프 미술대학
(Kunstakademie Duesseldorf).
독일
→ 쾰른 미디어 예술대학 (Academy
of media Arts. Cologne) 연구과정
졸업

주요 개인전
→ mioon개인전, 코리아나미술관,
한국, 2014
→ Kaleidoscope, 스페이스 켄
베이징, 중국, 2013
→ Lead Me To Your Door!,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Superstudio, 밀라노, 이탈리아,
2011
→ Blickwechsel. NRW Art
Project, 쿤스트페어라인
코스펠트(Kunstverein Coesfeld),
독일, 2010

주요 단체전
2013 해인아트프로젝트,
해인사, 함천, 한국
2012 Licht An, 에어프루터
쿤스트페어라인(Erfurter
Kunstverein), 독일
2011 Lichtsicht Projection
Biennale, Bad Rothenfelde, 독일
2010 리버풀 비엔날레-Media
Landscape, Zone East, CUC,
리버풀, 영국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Mioon



Habitat
가변 사이즈, 2013



Habitat
가변 사이즈, 2013



Habitat
가변 사이즈, 2013

염지혜
Ji Hye Yeom



경기창작센터 오픈스튜디오
설치전경

학력

— 골드스미스 대학교 (University of London, Goldsmiths College), 예술대학원(MFA), 예술학과 (Master of Fine Art), 2009~2011
 —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대학교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예술대학원(MA), 예술학과 (Master of Arts), 2009~2011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2001~2006

레지던스

—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한국, 2013
 — Lugar a dudas (루가 다 두다스), 칼리, 콜롬비아, 2012
 — Casa Tomada (카사 토마다), 상파울로, 브라질, 2012
 — Stichting Kaus Australis (카우스 아우스트랄리스), 로테르담, 네덜란드, 2012
 — Arteles Creative Centre (아테레스 창작센터), 탐페레, 핀란드, 2012
 — Al-Mahatta International Artists Workshop (알마하타 갤러리), 라말라, 팔레스타인, 2011
 — RYBON art centre collaboration (라이본 아트센터), 테헤란, 이란, 2010
 — Sansa International Artists Workshop (산사 국제작가워크샵), 쿠마시, 가나, 2009

주요 단체전

— «Young Artists Project», EXCO, 대구, 2013. 11
 — «비디오 & 미디어», 갤러리 정미소, 서울, 2013. 5
 — «Circled the Man», Heliopolis Gallery, New York, 미국, 2012. 11
 — «Cash Nexus», AS Gallery, Krakow, 폴란드, 2012. 10

Education

— University of London, Goldsmiths College, Postgraduate course in Fine Art (MFA), Department of Art (Master of Fine Art), 2009~2011
 —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 Postgraduate course in Fine Art (MA), Department of Art (Master of Arts), London, 2007~2008
 — Department of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1~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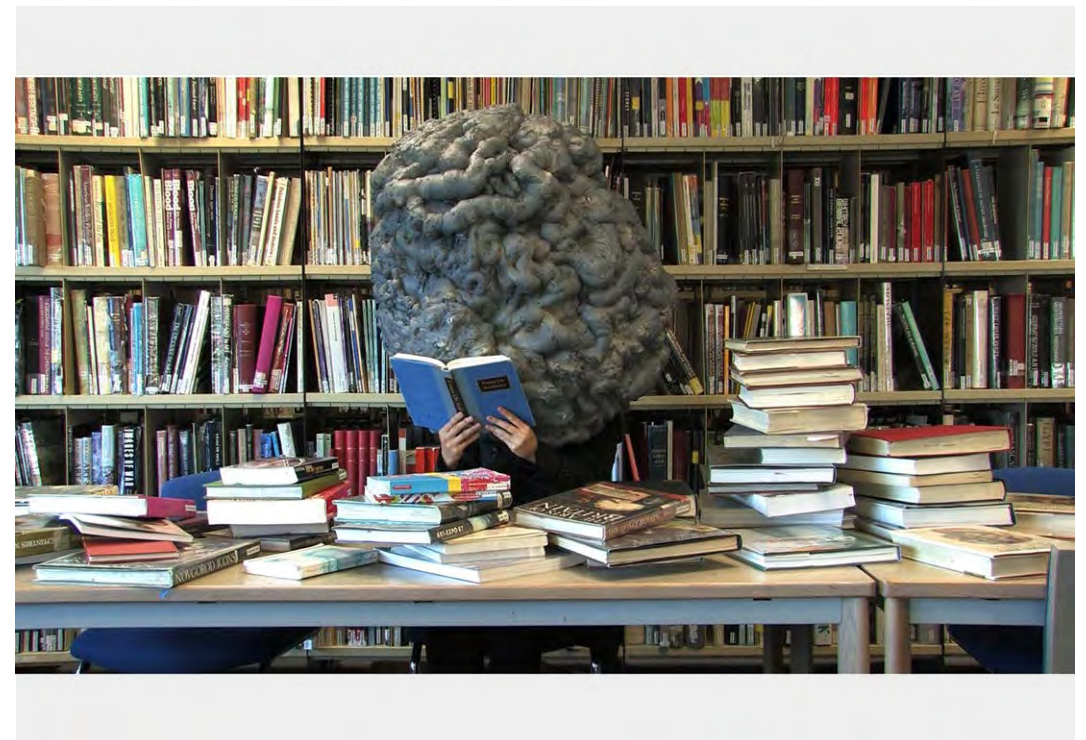
Residency

—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2013
 — Lugar a dudas, Cali, Colombia, 2012
 — Casa Tomada, San Paolo, Brazil, 2012
 — Stichting Kaus Australis, Rotterdam, the Netherlands, 2012
 — Arteles Creative Centre, Tampere, Finland, 2012
 — Al-Mahatta International Artists Workshop, Ramallah, Palestine, 2011
 — RYBON art centre collaboration, Tehran, Iran, 2010
 — Sansa International Artists Workshop, Kumasi, Ghana,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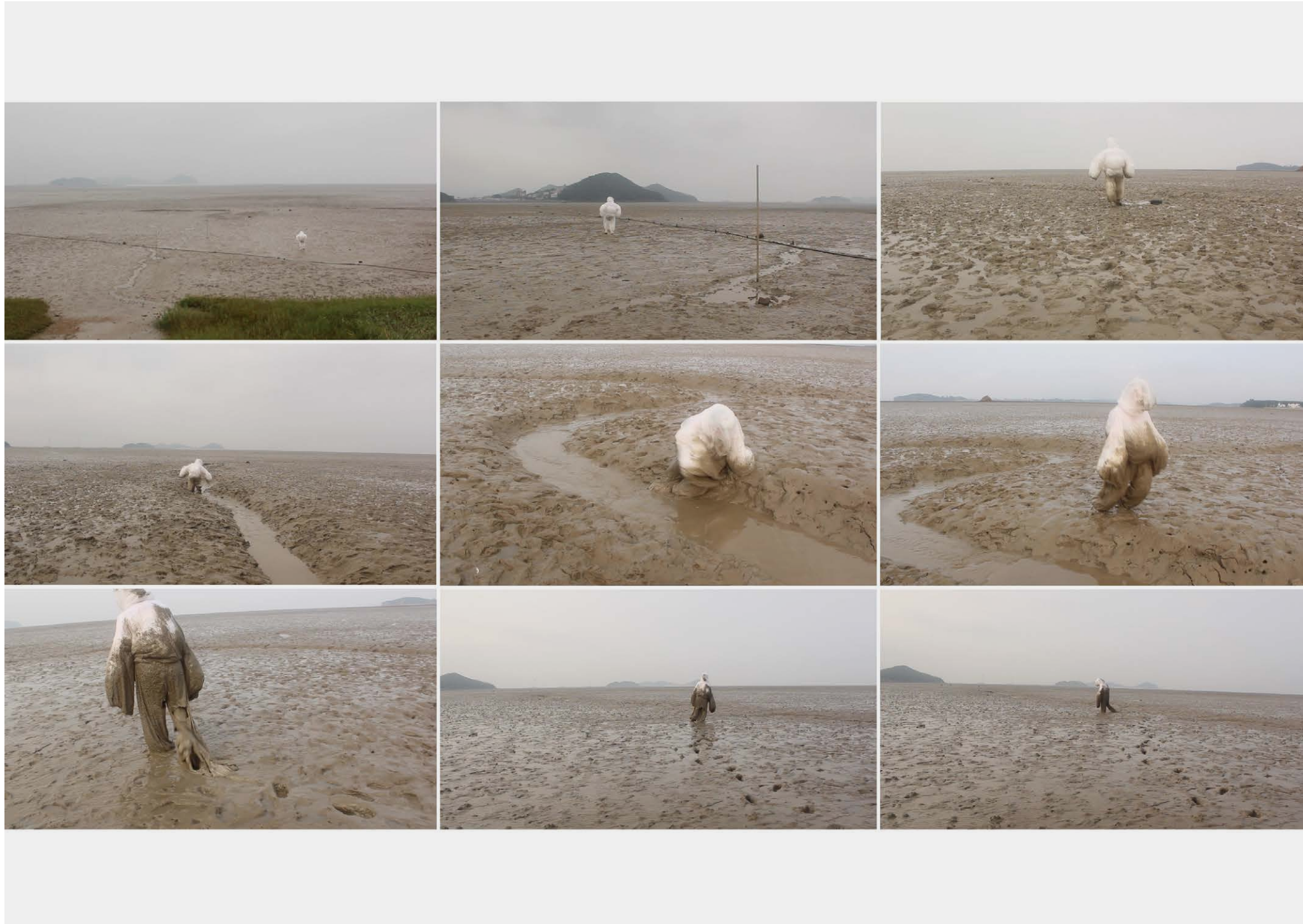
Selected Group

Exhibitions

— *Young Artists Project*, EXCO, Daegu, 2013. 11
 — *Video & Media*, Gallery Jungmiso, Seoul, 2013. 5
 — *Circled the Man*, Heliopolis Gallery, New York, USA, 2012. 11
 — *Cash Nexus*, AS Gallery, Krakow, Poland, 2012. 10



Gray Matter
 HD single channel video, 6:15, 2011



Being Lost
HD single channel video, 10:11, 2013



Being Lost
drawing, paper, pen, 2013

Wee Young II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Wee Young II	Wee Young II
<div data-bbox="43 96 592 182"> <div>캔버스 위에 주사위를 던지다</div> <div>이선영, 미술평론가</div> </div>	<div data-bbox="592 96 1141 182"> <div>결과를 낳았음을 보여준다. ‘기네스적인 욕망’은 ‘기록을 위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술을 위한 예술’이나 ‘생산을 위한 생산’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동어반복적인 그것들은 체계, 형식, 동일성에 갇혀있는 자기 지시성의 논리가 낳은 부조리한 결과물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전시에는 한 작가의 작품을 의심케 하는 정체불명의 평면 7점을 걸어 놓았다. 어쨌든 작가로서는 그가 선택한 방식을 통해서 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독특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직접 만든 변형 캔버스에 조합된 요소들이 깔끔하게 안치되어 있는 작품들은 나름의 심미적 대상이 된다. 최종 산물은 일종의 회화지만, 결과보다는 개념적 과정이 더 중요하다.</div> </div>	<div data-bbox="1141 96 1689 182"> <div>Cast a dice on canvas</div> <div>Sunyoung Lee, Art Critic</div> </div>	<div data-bbox="1689 96 2532 182"> <div>canvases which the artist made for himself become aesthetic targets in their ways. The final outcome is a kind of painting, but the conceptual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sult. The one who throws a dice and produces an artwork accordingly is exclusively the artist himself. A video button to record casting a dice is pushed by the third party in attendance, which strict process guarantees the originality of the work. The video which records casting a dice and its outcome become one set of the work. The work is approved as the original with both of them because it is variables and (re)interpretation that are significant as much as the system set by the artist.</div> </div>
<div data-bbox="43 287 592 891"> <p>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냈지만, 다시 인간의 욕망을 규정짓곤 하는 기호들을 조합함으로써 과잉 욕망으로 비틀린 사회를 풍자해왔던 위영일은 이번 전시에서 미술사라는 풍부한 기호의 장에 놀이판을 폈다. 새로운 양식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미술사와의 게임 원칙은 주사위 던지기이다. 이전 작업의 한 갈래였던 만화 캐릭터의 조합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변수를 다루기 때문에, 상상력에 기대기보다는 주사위 던지기라는 기계적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그 조합이 낳을 수 있는 결과는 거의 무한대로, 작가가 나머지 여생동안 이 원칙만 그대로 고수해 작업을 밀고나간다면 해도 이 시리즈의 끝을 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 시스템으로 나올 수 있는 작품 수는 4만개가 넘기 때문이다. 2009년에 처음 착상되었지만, 이번 전시에서 시도되는 ‘설정성 회화(aleatorik painting)’에 대한 작가의 정의는, ‘미술사를 토대로 미리 설정되는 매뉴얼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는 회화’를 말한다. 결과는 전시부제 ‘who knows?!’대로, 예측하기 힘들다.</p> </div> <div data-bbox="43 891 592 1583"> <p>‘주제-프레임-스타일-배경-공간 레이어-탐 레이어’로 등으로 나뉜 수평적 항목을 아래 6개의 선택사항을 6번의 주사위 던지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연속적인 6번의 주사위 던지기가 하나의 작품을 결정짓는다. 전시 장소의 한계 때문에 작품의 중요 요소 중의 하나인 사이즈는 제외된 6개의 항목 중에서, 스타일(사실주의-인상주의-표현주의-추상-뉴페인팅-팝아트)이라는 변수가 가장 복잡하다. 스타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엄격하게 규정된 닫힌 체계를 열린 체계로, 코드를 탈 코드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전시장에 제시된 대로 제작 원칙은 누구나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산물은 불투명하다. 내용과 형식이 복잡하게 조합된 작품의 면면은 괴물의 추상화라고 해야 할까. 그것은 <기네스-욕망>전(2012년, 카이스 갤러리)에 보여주었던 입체 작품 <쓸모없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쓸모 있는 것>의 회화적 버전이라 할 만하다.</p> <p>그 작품은 ‘예술이란 늘 미래적 형태여야 한다’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낯선 재료’를 사용하여 ‘다각도로 표현’한 정체불명의 사물이다. <기네스-욕망>전은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높이 등으로 규정지를 수 있는 신기록에 대한 욕망이 부조리한</p> </div>	<div data-bbox="592 287 1141 891"> <p>미술계에는 조수를 쓰는 작품들도 많지만, 이번 전시에서 주사위를 던지고 그에 따라 작품을 제작하는 이는 철저히 작가 본인으로 설정된다. 주사위 던지기를 기록하는 비디오 버튼은 입화한 제 3자가 누르고, 이러한 엄격한 과정이 작품의 원본성을 보증한다. 그래서 이 작업은 주사위를 던지기를 기록한 비디오와 그 결과물 한 세트가 작품이다. 이 둘이 같이 있어야만 진품으로 인정된다. 숫자의 조합으로 대신한 작품 제목만큼이나 작가의 개성은 익명적이다. 그것이 통상적인 의미의 예술 작품을 특징짓는 ‘독특한 개성의 표현’ 따위는 아니지만, 작품이 가져야할 요건은 갖춘다. 그것은 작가가 정한 시스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변수와 (재)해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술 뿐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인간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런 차이들에 의해 갈등도 생기지만, 변화도 가능하다.</p> </div> <div data-bbox="592 891 1141 1583"> <p>시스템의 수용 뿐 아니라, 시스템의 생성에도 시스템 이외의 요소들이 작용한다. 모더니즘은 거의 수학자에 버금가게 형식주의를 강조하곤 했지만, 논리학자 괴델이 불완전성의 원리에서 증명했듯이, 한 형식체계가 언급자하는 완전성(무모순성)은 그 자체의 형식 내에서는 증명 불가능하다. 시스템은 불완전한 것이다. 인간이 불완전하기에 시스템을 필요로 할 뿐이다.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성만큼이나 욕망이 작용한다. 아니, 이성 자체가 욕망의 한 지류일지로 모른다. 위영일의 작품은 질서정연함 이면의 무질서, 이성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패러디로 가득한 파타피직스(pataphysics), 동일자를 이루는 타자, 창조를 무색하게 하는 (재)발견이 강조된다. 그래서 작업의 엄격한 방식은 놀이와 해방의 과정에 열려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규정되는 방식에 대한 풍자가 포함된다. 가령 그는 한 가지에 익숙해질 틈 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p> </div>	<div data-bbox="1141 287 1689 1583"> <p>Combining signs created by human desire, and in turn defining the desire, Young Il Wee has satirized a distorted society caused by excessive desire. In this exhibition, he plays a game of art history with abundant signs. The game rule with art history which can be said to be a ferocious battlefield of new modes is casting a dice. Since he deals with a great number of variables incomparable with the combination of cartoon characters which was one section of his previous work, this work applies the mechanical rule of throwing a dice rather than relying on imagination. Although conceived first in 2009, the definition of the artist about ‘aleatorik painting’ attempted in this exhibition indicates ‘the painting performed according to the number from casting a dice with the manual pre-set on the basis of art history.’ The result is unpredictable as the subtitle, ‘who knows?!’</p> <p>Six options under the horizontal categories of ‘theme, frame, style, background, middle layer and top layer’ are determined by casting a dice six times. Consecutive six dice-castings decide one piece of work. Due to the limit of the exhibition space, the size is excluded from the main elements of the work. Among six categories, a variable of style (realism, impressionism, expressionism, abstraction, new painting and pop art) is most complex. How to interpret style is a delicate problem. It is an element to shift a strictly defined closed system into an open one, and codes into decodification. The fundamental rule of production presented in the exhibition can be clearly understood to everybody, but its consequences are uncertain. All sides of the work combining the content and form are a pictorial version of three-dimensional work <i>Something useful to prove something useless</i> presented the <i>Guinness-desire</i> exhibition (Cais Gallery in 2012).</p> <p>In order to fulfill the expectation that ‘art should be a futuristic form all the time,’ it is an unidentified thing to ‘express from various angles,’ using ‘strange materials.’ The exhibition <i>Guinness-desire</i> caused an absurd result from the desire for a new record which could be defined as much more, much faster and much higher. The ‘Guinessic desire’ might be regarded as ‘the record for recording.’ From a similar context, this exhibition introduces seven pieces of unidentified flat work which make us wonder if they belong to one artist. The artworks settled clearly with the combination of elements on modified</p> </div>	<div data-bbox="1689 287 2532 1583"> <p>canvases which the artist made for himself become aesthetic targets in their ways. The final outcome is a kind of painting, but the conceptual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sult. The one who throws a dice and produces an artwork accordingly is exclusively the artist himself. A video button to record casting a dice is pushed by the third party in attendance, which strict process guarantees the originality of the work. The video which records casting a dice and its outcome become one set of the work. The work is approved as the original with both of them because it is variables and (re)interpretation that are significant as much as the system set by the artist.</p> <p>The works of Young Il Wee emphasize on disorder behind orderliness, pataphysics full of ridiculous parodies about rationality, the other forming the identical one, and (re)discovery putting to shame on creation. Therefore, the strict method of the works is open to the process of a game and liberation. Still Young Il Wee is most associated with ‘complexman’. The work which made another monster by exquisitely uniting six characters of Hulk, Superman, Flashman, Batman, Spiderman and Wonderwoman, is the fruit collecting his complicated career that he majored in design, was a pupil of a famous cartoonist and graduated from an art college. But his will to decode by combining codes has become coded (re-territorialization) again. Resisting against the will of power which tries to make an artist a ballot paper, he runs away when he is almost caught. Such a strategy also goes against the flow of the market which a certain code determines the brand of an artist. The art history ranged over in this exhibition cannot avoid from a mistake to categorize the artist.</p> <p>Considering his career gone through before Young Il Wee worked as an artist, his repulsion concentrating on one thing can be understood. Although he has created this exhibition for himself without any help, he empties and erases self-identity and color at most. Chance or randomness could be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to acknowledge the personality of an artist, but it is exclusively used to wipe out the artist in case of Young Il Wee. This paradox is found from all quarters of his work. To him, it is the starting point at least or just a precondition for classification to reject classification, presence to be becoming, and settlement for escape.</p> <p>Diceplay which combines inevitability and chance is the device for a multidimensional paradox. A device for accidental results from his work has been rigorously determined, which is the requirements to make a game the game. He throws a dice on</p> </div>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Wee Young Il
<p>아직도 위영일이 하면 ‘팜뽕맨’이 먼저 떠오른다.</p> <p>헐크, 슈퍼맨, 플래쉬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등 여섯 가지나 되는 캐릭터를 절묘하게 조합하여 또 다른 괴물을 만든 그 작업도 디자인 전공·유명 만화가의 문하생·미대 출신이라는 복잡한 경력이 결집된 산물이지만, 코드를 조합하여 탈코드화 시키려는 그의 의지는 다시 코드화(재영토화)된 것이다. 작가를 하나의 코드로 기표화 하려는 권력에의 의지에 대항하여, 잡힐 만하면 도망간다. 이러한 전략은 특정 코드가 한 작가의 브랜드를 결정짓는 시장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그가 이번 전시에서 다루는 미술사 역시 작가를 범주화하려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한 작가를 철저히 연구하면 할수록 어느 사조에도 끼워 맞출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런 작가로 피카소와 고야의 예를 들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한 항목으로 코드화되는 것은 작가 탓도 크다. 작가가 주제에 따라 매체를 매번 새롭게 결정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용기나 능력이 없어서, 또는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p> <p>쉴림현상이 심하면서도 좀처럼 예술에는 기회를 주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한 우를 파기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우물파기를 통해 가능한 숙련이란 장인의 가치이지, 예술가의 가치는 아니다. 위영일이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 통과한 이력들을 보면, 한 가지만 열심히 파는 일에 대한 그의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스스로 만든 판에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작품을 제작했지만, 자기 정체성과 색깔을 최대한 비우고 지운다. 그것은 위영일 특유의 ‘중구난방 스타일’의 하나일지도 모르지만, 그 어느 때 보다는 작가의 신화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피력한다. 우연이나 무작위는 한 작가의 개성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위영일의 경우에는 작가를 지우는 용도로 전용된다. 이러한 역설은 그의 작업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에게 분류는 분류를 거부하기 위한, 있음은 되기를 위한, 정주는 탈주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 내지 전제조건에 불과하다.</p> <p>필연과 우연을 결합시키는 주사위 놀이는 다차원적인 역설을 위한 장치이다. 그의 작품에서 우연적 결과가 나오기 위한 장치는 엄격하게 결정되어 있다. 그것은 게임이 게임으로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놀이는 일상과는 다른 한정된 시공간을 필요로 하며 정해진 규칙을 따라 진행된다. 이를테면 바둑은 바둑판에서 씨름은 모래판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캔버스 위에 주사위를 던진다. 물론 캔버스 형태도 주사위로</p>	<p>결정된다. 놀이는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정해진 한계와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놀이의 진정한 매력은 폐쇄적인 총체라는 조건이 아니라, 매번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점에 있다. 우리의 꼬인 인생과 달리, 놀이와 예술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자유가 있다. 전시장에 작품과 함께 설치된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주사위 놀이판은 일련의 규칙에 따르는 소우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놀이가 펼쳐지는 특수한 시공간을 강조한다.</p> <p>이번 전시의 놀이규칙은 타인이 주사위를 던져서도 안 되고, 반드시 6번을 연속적으로 던져야 한다. 규칙의 준수는 필수적이다. 놀이의 인류학적 의미를 서술한 카이유와의 〈인간과 성(聖)〉은 속임수를 쓰는 자보다 더 나쁜 자는 규칙을 거부하고 게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멸시하는 자라고 한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 파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인류의 진보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향한다. 예술가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게임 원칙을 고안하고, 그 안에서 신나게 놀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라는 점에서, 노동/소비라는 이원적 체계에 저당 잡혀 있는 대중들보다 자유롭다. 작가가 고안된 장치 속에서 놀지 못하고 붙잡혀 있다면, 그 또한 보통 사람들처럼 소외된 존재에 불과하다. 미술계, 특히 미술시장에는 놀이를 노동으로 격하시킨 작업들이 종종 발견된다. 그것들은 대개 자본주의적 분업시스템에 충실하다. 반대로 노동은 놀이로 고양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예를 ‘생활의 달인’ 같은 기이한 부류에서 발견한다.</p> <p>카이유와가 분류한 네 가지 놀이방식—경쟁(Agon), 우연(Alea), 가장(Mimicry), 현기증(Illinx)--중에서, 위영일이 선택한 것은 우연이다. 〈인간과 성〉에 의하면, 알레아란 라틴어로 주사위 놀이를 의미한다. 그것은 우연적인 운명의 판결에 따르는 것이며, 우연의 자의성 자체가 놀이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놀이 방식은 상호간에 조합되거나 교차될 수 있는데, 새로운 것이라는 경쟁적 가치를 위해 만들어진 각종 미술사의 코드들을 우연적으로 선택하는 위영일의 작품은 독특한(유일한) 작품을 가장하며, 조합의 복잡성에 따른 현기증도 자아내는 것이다. 이전의 팜뽕맨은 가장과 현기증이 결합된 경우이다. 주사위 던지기는 필연의 재현이 아니라, 우연의 생성을 중시하는 현대철학에서 주목받는다. 질 들뢰즈는 〈니체, 철학의 주사위〉에서 주사위 놀이라는 관점으로 니체의 철학을 다시 읽는다. 그에 의하면 니체는 우연을 다수성, 단편들, 부분들, 혼란과 동일시한다. 모든 사물들에게 우연을 돌려준 니체는 우연을 긍정으로 변화시킨다. 우연을 긍정하는 법을 아는 것은 놀이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p>	<p>192</p>	<p>canvas in this exhibition. The form of canvas is decided by a dice. A hexagonal dice game board installed alongside the work stands for a microcosm which follows a set of rules. It underlines special time and space spread by the game.</p> <p>Among four kinds of game mode classified by Caillois (Roger Caillois, 1913–1978) — competition(Agon), chance(Alea), mimesis(Mimicry), vertigo(Illinx) — it is chance that Young Il Wee has chosen. Casting a dice receives attention from the modern philosophy which highlights the creation of chance, not a re-creation of inevitability. According to Gilles Deleuze (1925–1995), Nietzsche (Friedrich Nietzsche 1844-1900) identifies chance with polymerism, fragments, parts and confusion. Nietzsche who returned chance to the whole thing changes chance with a positive affirmation. Knowing how to affirm chance is to know how to play. The complex-man joined with heroes who are busy protecting the Earth is a caricaturized image of the main character in a master narrative. Chance which has made a comeback from postmodernism comes up as an antidote. Following Nietzsche, however, Deleuze believes that the universe has no purpose, which has no goal to hope anything beyond being known.</p> <p>This is an essential certainty to play well. Casting a dice fails when chance is not affirmed fully in one toss. Thus a true player does not toss a dice many times. Numerous tosses are not counted. A good player is more concerned with chance, inevitability and a fateful relationship than causality, probability and finality. Casting a dice affirms polymerism of interpretation pursuing the meaning. With this, the world is justified in an aesthetic way. Casting a dice is to enjoy the difference of itself and play the game. According to Deleuze, polymerism derived from this is a gap between one and the other, creation is a different gap from oneself, and chance is a gap among everything. He reads a message from Nietzsche's philosophy that a gap is happy. Namely, polymerism, creation and chance are enough to be the target of delight.</p> <p>Instead of confrontational labor or pain of the negative, we have delight in an aggressive game of the gap, affirmation and destruction. The game of the gap turns to the truth of polymerism, true pluralism. All things are related not to the transcendental nature but to the power to interpret them. Even the self is the product of interpretation. The work of Young Il Wee which the elements determined by chance compete one another emphasizes on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does not stem from the nature, but the</p> <p>193</p>	<p>nature itself is the consequence of interpretation.</p> <p>A target itself is power, namely an expression of power. The work of Young Il Wee which determines wider powers in layers does not revert to one meaning. He says, ‘Seeing an art is not to see the real world but to see a world set arbitrarily by an artist.’ An argument that everything is the interpretation by the will to power marks with a side dot on the freedom of art rather than an obscure arbitrariness. Diceplay unites chance with inevitability like art. In other words, art is ‘genuine thanks to freedom which includes everything and tells everything’ (Marthe Robert 1914–1996), and art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game rules chosen by it. A chance game strictly applied in this exhibition by the artist is open to freedom.</p>

통계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연도 많이 집적되면 인과성과 개연성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목표가 생길 수 있다. 틀뢰즈에 의하면, 우연을 인과성과 궁극성의 손아귀 속에 붙잡아 없애는 것, 우연을 긍정하기 보다는 던짐의 반복을 계산하는 것, 필연을 긍정하는 대신 결과를 기다리는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나쁜 놀이꾼들의 행위이다. 그들은 이성에 뿌리를 대고 있는 것이다. 가령 과학과 경제 등, 지배의 기술에 통계학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그렇다. 필립 볼은 ‹물리학으로 보는 사회›에서 과학자나 경제학자는 겉으로는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것에서 규칙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통계학적 방법으로 미시적인 혼동에서 질서를 밝혀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본주의 시장이 움직이는 보편적인 통계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규칙성을 밝히고, 시장의 변동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은 개발하는 것은 경제학자의 꿈이다. 그들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계획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궁리 한다.

우연은 법칙화 되어 다시 결정론의 그물에 갇히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며, 통계에 대한 해석 역시 정치적인 것이다. 만사를 통계법칙으로 환원하려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가령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이의 원동력이 우연과 무작위성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곧 그 후계자들에 의해 인간, 사회, 역사의 발전 법칙 등으로 왜곡되었다. 역사는 어떤 궁극의 목적을 향한 진보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 부류가 끼친,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악한 결과를 낳은 예로 넘쳐난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영웅들로 뭉쳐진 팽팽맨은 거대사사의 주인공의 회화화된 모습이다. 근대 미술사 역시 평면을 향한 진보의 필연성을 발견하기 위해 분류될 수 없는 작가들을 일렬로 배열하곤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복귀된 우연은 필연에 대한 해독제로 다가온다. 그러나 틀뢰즈는 니체를 따라 우주가 아무런 목적도 없다는 것, 그것은 그것이 알려지게 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희망할 만한 아무런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잘 놀기 위해 필요한 확실성이다. 주사위 던지기는 우연이 한 번의 던짐 속에서 충분히 긍정되지 못하면 실패하고 만다. 그래서 진정한 놀이꾼 주사위를 너무 많이 던지지 않는다. 수많은 던짐을 계산하지 않는다. 훌륭한 놀이꾼은 인과성, 개연성, 궁극성 보다는 우연과 필연, 그리고 운명의 관계를 중시한다. 주사위 던지기는 의미를 추구하는 해석의 다수성을 긍정한다. 이를 통해 세계는 미적으로 정당화된다. 니체는 실존에 대

한 미적 정당화에 대해서 ‘우리는 예술가 안에서 필연과 제멋대로의 놀이, 그리고 대립적 긴장과 조화가 어떻게 예술작품을 창조하기 위해 짝이 되어야 하는지를 본다’고 말한다. 주사위던지기는 그 자신의 차이를 즐기고 놀이하는 것이다. 틀뢰즈에 의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수성은 하나와 다른 하나의 차이이고, 생성은 자기와는 다른 차이이며, 우연은 모든 것을 사이에서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틀뢰즈는 니체의 철학에서 차이란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읽는다. 즉 다수성, 생성, 우연은 그것들만으로도 기쁨의 충분한 대상이다.

대립의 노동, 혹은 부정적인 것의 고통 대신에 우리는 차이의 호전적인 놀이, 긍정과 파괴의 기쁨을 갖는다. 차이의 놀이는 다수성의 진리, 진정한 다원주의(pluralism)를 향한다. 모든 사물은 선험적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과 관련된다. 자아조차도 해석의 산물이다. ‘개인은 비개인적인 존재, 개인보다 우월한 존재로 변형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니체는 자아가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반대로 사고의 결과라고 말한다. 자아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근대의 주체 중심적 이성을 부정한다. 우연에 의해 결정된 요소들이 경합을 벌이는 위영일의 작품은 해석을 중시한다. 본질로부터 해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자체가 해석의 결과이다. 틀뢰즈의 니체 독법에 의하면, 하나의 사물은 그것을 점유할 수 있는 힘을 만큼 많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그 사물 자체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현재 자신을 점유하는 힘과 근친성을 가진다. 본질은 한 사물의 모든 의미 가운데서 그 사물이 최고로 친근하게 되고자 하는 힘을 그 사물에 부여하는 것이다.

대상 자체는 힘, 즉 하나의 힘의 표현이다. 많은 힘들이 종종 결정된 위영일의 작품 역시 하나의 의미로 환원되지 않는다. 세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위영일은 ‘우리가 예술을 본다는 것은 현실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설정된 세계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권력에의 의지에 의한 해석이라는 주장은 막연한 자의성 보다는 예술의 자유에 방점이 찍혀있다. 주사위놀이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우연과 필연을 결합시킨다. 마르트 로베르는 ‹기원의 소설, 소설의 기원›에서, 소설이란 바로 소설이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하게 될 의무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해진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는 특수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미술에도 해당된다. 즉 예술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 덕택으로 진실이라는 것’(마르트 로베르), 그리고 예술은 자신이 선택한 게임 원칙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위영일이 이번 전시에서 엄격하게 적용한 우연 놀이는 자유를 향해 열려있다.

Aleatorik painting manual





	1. Subject	2. Frame	3. Style	4. Background	5. Mid layer	6. Top layer
1	Figure	Circle	Realism	Red color series	Red color series	Red color series
2	Landscape	Ellipse	Impressionism	Yellow color series	Yellow color series	Yellow color series
3	Still life	Triangle	Expressionism	Blue color series	Blue color series	Blue color series
4	Desire	Quadrangle	Abstractionism	Green color series	Green color series	Green color series
5	Abstract	Polygon (random choice above pentagon)	New painting	Mid colors series (brown, orange, violet, etc)	Mid colors series (brown, orange, violet, etc)	All colors
6	Narrative	Organic shape	Pop Art	Achromatic colors	Achromatic colors	Achromatic colors

Aleatorik painting manual(Style & Background, Mid layer,Top layer)

Style

- 1. Realism
 - Realism
 - Neue Sachlichkeit
 - New Realism
- 2. Impressionism
 - Impressionism
 - Neo-impressionism
 - Post-Impressionism
- 3. Expressionism
 - Expressionism
 - Neo-Expressionism
- 4. Abstractionism
 - Informal
 - Neo-plasticism
 - Abstract expressionism
 - Color field abstraction
 - Op art
 - Geometric abstraction
 - New Abstraction etc
- 5. New painting
 - Transavantgarde
 - Bad painting
- 6. Pop Art
 - '80s Pop Art
 - Neo-pop
 - Political Pop

Color chart <Background, Mid layer,Top layer>

- 1. Red color series
 - 
 - 
 - 
- 2. Yellow color series
 - 
- 3. Blue color series
 - 
 - 
 - 
- 4. Green color series
 - 
 - 
 - 
 - 
- 5. Mid colors series (brown, orange, violet, etc)
 - 
 - 
 - 
 - 
 - 
 - 
- 6. Achromatic colors
 - 

위의 스타일과 컬러의 분류는 미술사와 색채학 이론을 참조하여 알레아토릭 회화법을 위해 6단계로 일의적으로 재설정된 것입니다.

위영일

학력

→ 홍익대학교 회화와 졸업 등 대학원 졸업

주요 개인전

→ 〈Who knows?!〉, 갤러리비원, 서울, 2013
→ 〈Guinness Desire〉, 카이스갤러리, 서울, 2012
→ 〈Planet wee012 All-Star〉,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9
→ 〈주체로의 욕망〉, Void Gallery, 서울, 2009
→ 〈그들만의 리그 II, III〉, 노암갤러리, 서울, 2007
→ 〈그들만의 리그 I〉, Espacej Gallery, 상하이, 중국, 2007

주요 단체전

→ 〈Animamix Biennial 2013-2014〉, 대구미술관, 대구, 2013
→ 〈Open Studio‘삼일야화’〉, 경기창작센터, 경기, 2013
→ 〈토끼와 거북이〉, 양평군립미술관, 경기, 2013
→ 〈what's on〉, 경기창작센터, 경기, 2013
→ 〈Portfolio Archive Lounge〉,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3
→ 〈판타스틱미술백서〉,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2
→ 〈요셉의원을 도와라〉, 126팩슨, 서울, 2012
→ 〈이미지의 역습〉, 국립고양창작스튜디오, 경기, 2012
→ 〈이것이 대중미술이다〉, 세종문화회관, 서울, 2012
→ 〈경남 고성 공통엑스포〉, 고성공통엑스포 아트갤러리, 경남, 2012
→ 〈Being with you〉, behive, 서울, 2011
→ 〈명화에 대한 명화〉, 일현미술관, 양양, 2011
→ 〈그 색은 그 색이 아닐 수도 있다〉, 무연탄, 서울, 2011
→ 〈공통환각〉, 경기대학교 호연갤러리, 수원, 2011
→ 〈난지 Open Studio(Retro)〉, 난지 창작스튜디오, 서울, 2011
→ 〈Fun + POP 유쾌한 현대미술〉, 과천시민회관, 경기, 2011
→ 〈Festive Korea〉, 파오 갤러리, 홍콩, 중국, 2011
→ 〈Bring into the World〉, 난지갤러리, 서울, 2011

→ 〈로봇시티 판타지 꿈의 대화〉, 315

아트센터, 창원, 2011

→ 〈LOOK UP〉, force 798갤러리, 북경, 중국, 2011

→ 〈레지던시 교류전(난지&대전)〉, 아공갤러리, 대전, 2011

→ 〈기억속의 인사동 탐기 프로젝트〉, 서울, 2011

→ 〈A Fantastic Place〉, 사우스 표갤러리, 서울, 2011

→ 〈ATU〉, 상상마당, 서울, 2010

→ 〈Korea Tomorrow〉, SETEC, 서울, 2010

→ 〈월간 퍼블릭 아트 New Hero Fly in Heyri〉, 갤러리 한길, 경기, 2010

→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III-POP ART〉, 김해 문화의 전당, 김해, 2010

→ 〈강진 Celadon Art Project〉, 강진도자기 박물관, 전남, 2010

→ 〈스마일코드〉, 가일미술관, 가평
→ 〈일상레인보우〉, 포천아트밸리, 경기

→ 〈New Focus〉, ART SEASONS, 싱가포르, 대만, 2010

→ 〈방어기제〉, TN Gallery, 북경, 중국, 2010

→ 〈프리스타일 : A Dialogue Between Art and Design〉, HOMA, 서울, 2010

→ 〈Star Wars-Episode III New Future〉, UNC Gallery, 서울, 2010

→ 〈NART〉서울문화재단 젊은 예술가 지원프로그램 수혜, 2009

→ 송은 미술대상전, 2008

→ 소마드로잉센터 아카이브 작가, 2007

→ 중앙미술대전 선정 작가, 2005

→ 〈레지던시 및 수상경력〉

→ 금천예술공장 장기입주작가

프로그램, 서울, 2013-2014

→ 경기창작센터 중기입주작가

프로그램, 경기, 2013-2013

→ 난지스튜디오 장기입주작가

프로그램, 서울, 2010-2011

→ 국립창동스튜디오 장기입주작가

프로그램, 서울, 2008-2009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기금 수혜, 2013

→ 〈NART〉서울문화재단 젊은 예술가

지원프로그램 수혜, 2009

→ 송은 미술대상전, 2008

→ 소마드로잉센터 아카이브 작가, 2007

→ 중앙미술대전 선정 작가, 2005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Wee Young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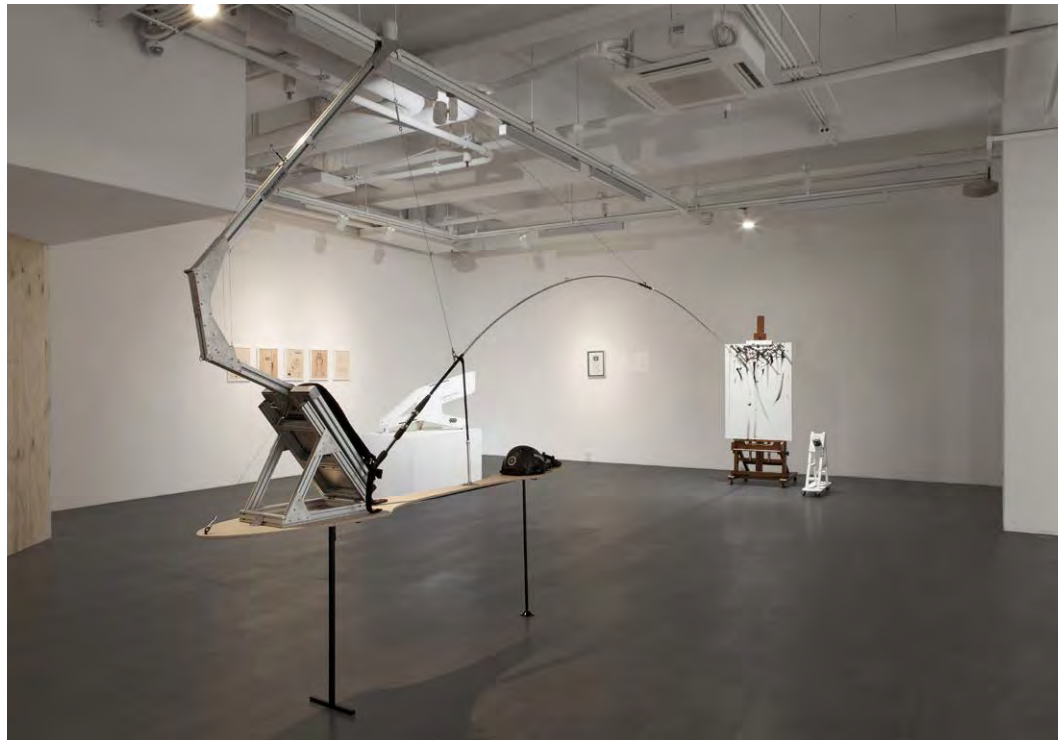


1-6-4-5-6-4

자작나무판 위에 실크스크린잉크,
126x67cm, 2013



5-3-6-4-3-3
패널 위에 아크릴칼라, 실크스크린잉크,
78x90cm, 2013



세상에서 가장 멀리서 그림그리기
가변설치, 2012

이병호
Lee, Byungho

〈Snaps〉

single channel video,
4min 23sec, 2013

우리 삶에서 찰나와 같이,
순간으로 남은 사진들.
그 사진 속엔 영원과 끝이 공존한다.

스냅사진 속의 움직이지 않는 풍경들.
그것에 10초의 시간을 주었다.
주어진 10초와 우리 삶의 시간.
이 순간 그대로 영원하길 바라는 삶이 주어진
10초만큼 짧게 여겨지기도,
멈춰버린 스냅사진처럼 영원할 것도 같다.

Snaps

single channel video,
4min 23sec, 2013

Like an instant in our life, photographs
left as moments.
In those photographs, eternity coexists
with the end.

Immobile scenes in snapshots.
10 seconds are given to them.
Given 10-second and the hours of our life.
The life which this moment is desired
to be everlasting might be considered
short as 10 seconds, and eternal as
snapshots stopped.

〈파티 (Party)〉

내가 아닌 것들 사이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흐르던 정처 없는 것들.
내 작은 생채기 그곳도 고일 곳이라고
모여드는 가여운 울음.
부디 내 몸에 한낱 암 덩어리로라도 커다오.
후에 혐오스레 맏힌 너의 응어리를 터트려
나의 방을 물들여라.
누구도 오지 않는 방에서 그저 아름답다면
아름답게.

Party

Things rootless which flew without
attracting attention among things
which were not me.
Poor tears clustering to my tiny scratch
as a spot to be pond.
Please grow even as a lump of cancer
in my body.
Later, dye my room by bursting your
lump grown disgustingly.
Just be beautifully if you are beautiful
in a room which nobody comes.

Snaps 2013

이병호

Lee, Byungho

주요 개인전

— 〈Shade Tree〉, 16번지 갤러리, 2011

— 〈Blow-Up〉, 갤러리 잔다리, 2009

주요 그룹전

— 〈Project Zero〉,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2013

— 〈Serious Live Show〉, club venus, 서울, 2013

— 〈Thought on body〉, 소마미술관, 서울, 2012

— 〈Mapping the gray〉, 갤러리 잔다리, 서울, 2012

— 〈Blow-up〉, 엔시소프트 본사, 서울, 2011

— 부산 비엔날레 2010

〈진화 속의 삶〉,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 2010

Selected Solo

Exhibitions

— *Shade Tree*, 16 Bungee

Gallery, 2011

— *Blow-Up*, Gallery Zandari, 2009

Selected Group

Exhibitions

— *Project Zero*,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do, 2013

— *Serious Live Show*, club venus, Seoul, 2013

— *Thought on body*,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eoul,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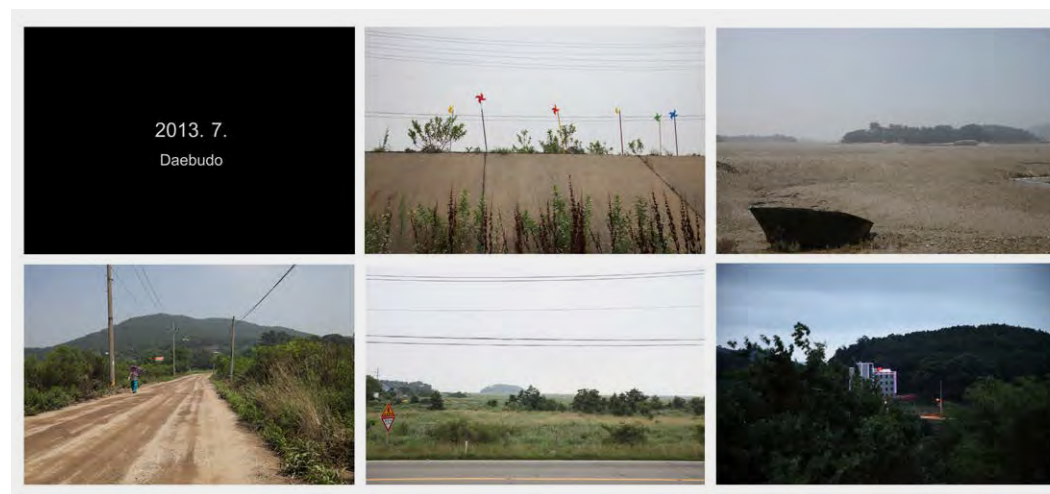
— *Mapping the gray*, Gallery Zandari, Seoul, 2012

2011 'Blow-up', NCSOFT,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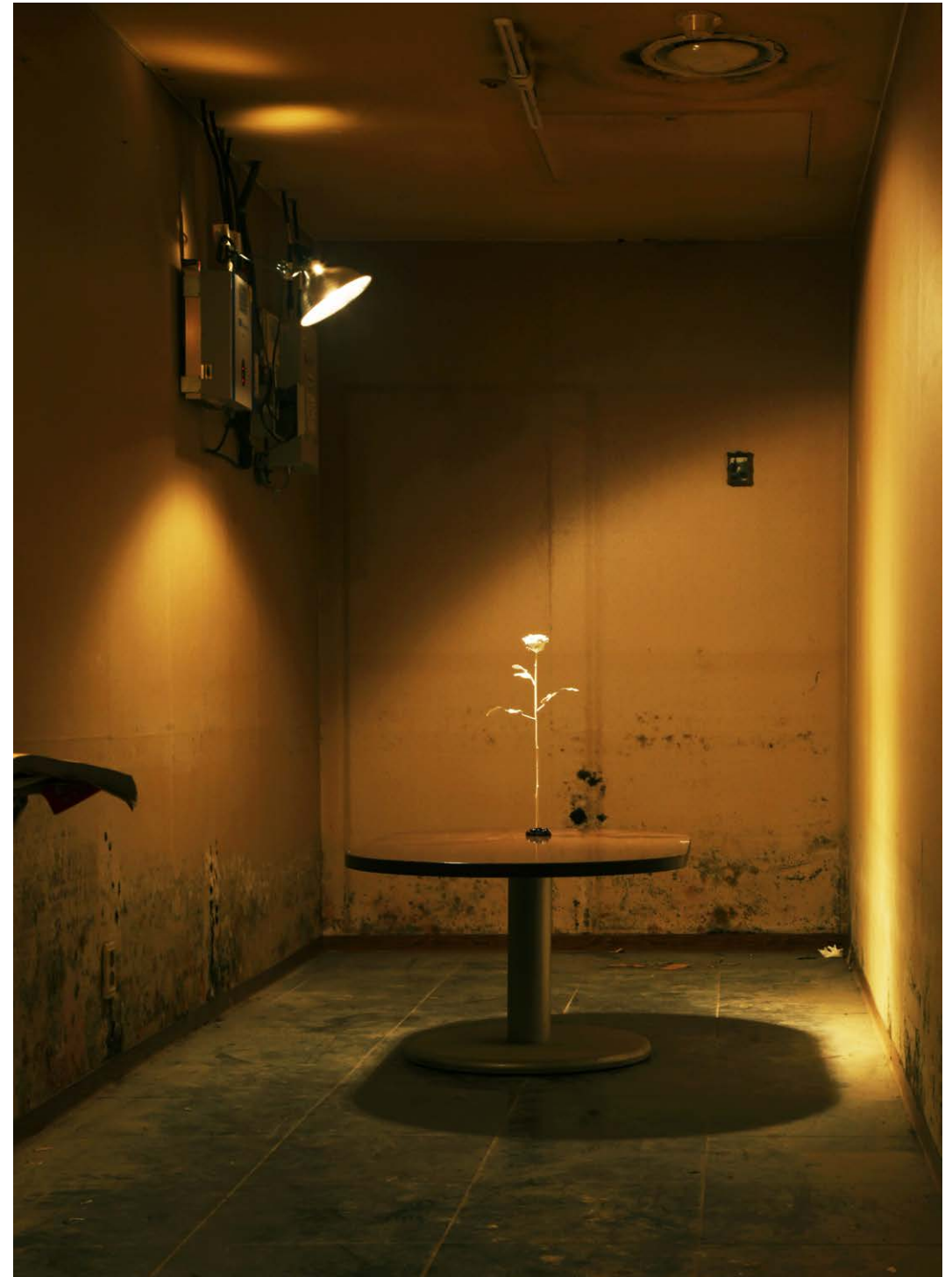
2010 Busan Biennale 'Life in Evolution' – Busan Museum of Art, Busan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Lee, Byu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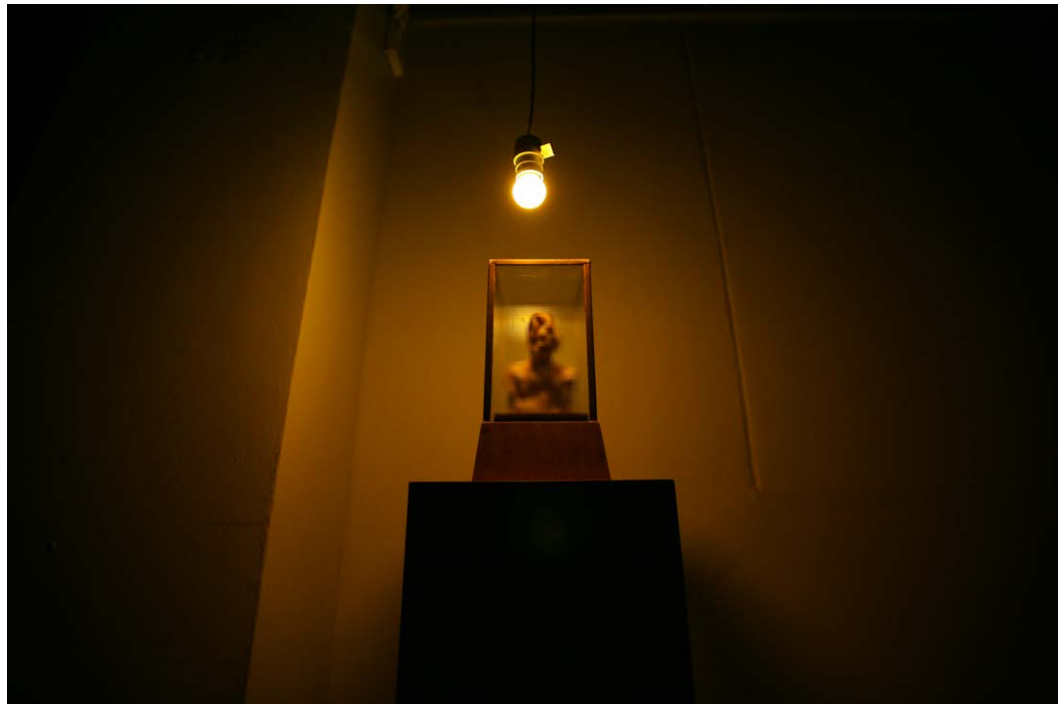
Snap
single channel video,
4min 23sec, 2013



210

211

Party
Mixed Media, Installation, 2013



Portrait of a man
Mixed Media, Installation, 2013

Painting

— 허태원

많은 예술가들이 삶과 예술의 일치를 말한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항상 삶과 예술, 두 세계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느낀다. 좀 더 정확하게는 두 세계에 걸쳐있는 느낌이다. 작업을 하고 미술관에서 작품을 볼 때는 예술의 영역에 있는 듯 하지만 그 외의 많은 관계들, 공간 속에서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설명하기 힘들 때가 많다. 두 세계 사이에서 나는 불안하고 무기력하다.

나는 나의 작품이 예술 안에서만 의미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하는 작업들이 예술을 제외한 삶에서도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번 전시에서 아름답고 '쓸모 있는' 페인팅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그린 이 페인팅이 내가 살고 있는 두 세계의 틈을 메워주었으면 한다.

Painting

— Taewon Heo

Many artists talk about correspondence of life and art. However, I always felt that I live in "between" the two worlds: life and art. To be more exact, it feels that I am extending over the two worlds. When I am working or looking at art works in art museums, it seems that I am in the art territory, but there are a lot of times when it is difficult to explain what kind of work I am doing or how I should define myself within many other relationships and spaces. I feel anxious and helpless in between the two worlds.

I do not want my work to have meanings only within art, but do my works have meanings excluding the art world? In this exhibit, I wanted to make beautiful and "useful" painting. Hopefully, it could fill the crack between the two worlds that I live.

쓸모 없는 아름다움의 쓸모에 대해 골몰하기

— 여경환,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세상에 던지는 썰렁한 농담

알.아.서.잘.그.리.자.

12년 전, 미술대학을 졸업하던 졸업전시회에서 그가 내놓은 건 오직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이미지와 문구로 이루어진 ‘알아서 잘 그리자(Paint at own Risk)’(2001)라는 포스터였다. 정말 단순한 색상과 레이아웃으로 이루어진 8절 크기의 포스터였다. 그리고 그는 100호, 200호짜리 캔버스가 즐비하던 전시장과 학교 곳곳에서 “art guard”라고 쓰인 완장을 두르고 마치 검열을 하듯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를 하고, 회화과 작업실에는 ‘알아서 잘 그리자’의 문구와 포스터를 뒤섞어 붙여놓았다. 물론 아들의 졸업전시를 보기 위해 부산에서 상경한 부모님은 말할 수 없는 실망을 하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허태원의 작업은 알아서 잘 그려지고 있을까. 잘 그리고 있기는커녕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을 회화적 스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집요하고 정교하게, 그의 아버지 말대로라면 “예술성이 없는 (혹은 없어 보이는) 그림”을 줄곧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회화에 마음이 있을까

허태원에게 쏟아진 것은 꽃심기 프로젝트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 세례였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허태원의 이전 작업은 예술과 예술 아닌 것 사이의 경계에서 과연 무엇이 예술일 수 있는가를 묻는 여전히 미학적인 차원의 작업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게시판에 벽보가 뜬 자국들에서 아름다운 콜라주를 발견하고(‘발견된 콜라주’, 2005), 기둥의 틈을 메운 페인트칠과 그것에서 발견한 추상화를 병치시키기도 하며(‘한 쌍의 페인팅, 2005’), 거리 곳곳에 세워지고 버려지다 남겨진 갖가지 페인트 흔적들(‘untitled’시리즈, 2005~현재), 그리고 심지어 팔레트의 물감자국들까지(‘I collect your palettes’, 2008~현재) 수집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태원의 작업은 어떻게 하면 ‘알아서 잘 그릴 것인가’의 문제, 회화라는 매체로 구현하는 예술의 방식에 대한 질문들을 놓지 않고 있었다.

군복이라는 설치,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의 퍼포먼스, 리본이라는 사물의 수집이라는 일관성을 찾기 힘든 작업을 사이에 공유되는 것은 그 비일관성 자체와 사진이라는 아카이브로 남겨졌다는 것, 그림이라는 것의 겉과 속을 찾아 헤매는 집요함, 그리고 아름다움의 쓸모/쓸모없음에 대한 공통된 관심이었다. 한마디로 허태원의 작업은 자신의 작업을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치 않은 작업이었다. 예술이란 것이 갖는 무의미한 의미를 탐색했던 작가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진짜 관계들과의 접촉이었다.

끊임없이 원점에서 생각하기

현대미술 작가라면 응당 자신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조형적 일관성, 한 가지 주제의 몰입, 깊이 있는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 현대미술이란 이미 훤히 다 알고 있는 게임의 법칙을 누가 먼저 센스있게 참조하고, 영민하게 비틀어서, 자기만의 언어로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허태원의 작업은 그 게임의 법칙에 동참하는 대신, 그 게임의 법칙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변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무엇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며, 쓸모 있는 것으로 이미 넘쳐 흐르는 세상 속에 쓸모 없는 것을 찾기 위한 부질없음이라는 것을 우린 모두 알고 있다. 허태원이 선택한 전략은 그저 자신이 머물러있는 회의의 언저리에 머무르며 골몰히 몰두하며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그것이 예술과 비예술 사이에서든, 예술과 삶의 사이에서든, 알아서 잘 그려 보자고, 말이다.

학력

→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MFA in Painting and Drawing, 2006
→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2002

프로젝트

→ 〈그림벗 프로젝트〉, 창전동, 서울, 2012~2013
→ 〈여기에 꽃을 심어도 될까요?〉, 상수동, 창전동, 서울 / 대흥동, 대전, 2011~2012
→ 〈금천공동정원〉, 독산동 일대, 서울, 2011

주요 개인전

→ 〈페인팅〉, 갤러리팩토리, 서울, 2013
→ 〈금천공동정원〉, 금천예술공장, 서울, 2011
→ 〈여기에 꽃을 심어도 될까요?〉, 선유도, 서울, 2011

주요 단체전

→ 〈Round-up〉, 서울시립미술관, 서울(12.13~), 2013
→ 〈사진과 사회: Social Art〉,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13
→ 〈What's on〉,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3
→ 〈Residency, Now〉, 송원아트센터, 서울, 2013
→ 〈아티스트 포트폴리오〉아카이브 라운지, 사비나미술관, 서울, 2013
→ 〈원도심을 리뷰하다〉,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대전, 2012
→ 〈동네미술〉,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 안산, 2012
→ 〈프로젝트 대전 2012: 에네르기〉,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및 대흥동, 대전, 2012
→ 〈34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예술의전당, 서울, 2012
→ 〈Ilhyun Travel Grant 2011〉, 일현미술관, 강원도 양양, 2011
→ 〈Identity·Healing·Society·Sex〉,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2010

수상 및 기타

→ 문예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 SeMA 신진작가 전시지원선정, 서울시립미술관, 2013
→ 제34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중앙일보사, 2012
→ NArT in SAS(유망예술가 육성지원사업 공모)지원금 선정, 서울문화재단, 2011
→ 금천예술공장 커뮤니티아트 프로젝트 자원작가 선정, 서울문화재단, 2011
→ 일현 트레블 그랜트 수상, 을지재단, 2011
→ MFA Fellowship Award Recipient,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2006

레지던시

→ AIAV, 아마구치, 일본, 2014
→ 경기창작센터, 안산, 한국, 2013







Jinokist의 작품세계 :

팝 아트(Pop Art)의 역설과 차용을 통한 변주곡

———— 이 태 호

미술평론가, 익산문화재단 정책연구실장

인스턴트 시대로 대변되는 현대미술의 양상 또한 다양한 매체의 확장과 장르의 해체, 주제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그 다원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테크놀러지의 눈부신 비약적 발전이나 탈이념 시대의 개막이라는 외형적인 요인 이외에도 개성적인 세대의 탄생이나 비판적 역사주의, 키치, 새로운 매체의 사용을 통한 다양한 창조 욕구, 전통적인 진리와 이론들에 대한 해체 등에 따른 것이다. 작가 Jinokist 역시 숨 가쁘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정한 예술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작가가 초기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삶과 죽음의 근원적인 질문'은 지난 어린 시절의 개인사를 담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과 표현의 내재적 깊이가 깊은 고민과 성찰의 흔적만큼이나 매우 심오할 뿐만이 아니라 느낌이나 그 표현에 있어서도 매우 이국적이고 독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게 되는 작품들 역시 표현에 있어서는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외형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있지만 현대미술 속에서 예술의 진정한 의미와 예술가로서 작품창작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여전하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Jinokist의 이번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팝 아트(Pop Art)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의 표현방법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삶과 죽음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던 초기의 작품들이 회색과 흑백 모노톤으로 표현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작품들은 빨강과 파랑, 노랑 등 강렬한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이전의 작품들에 비해 한층 더 밝아지고 메시지 역시 훨씬 더 강렬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느낌도 잠깐.... 작품을 좀 더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노라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느껴졌던 이런 표면적인 느낌들이 어느덧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빨강과 파랑, 노랑 등 강렬한 원색을 통해 표현된 이번 작품들은 역설적이게도 회색빛 모노톤으로 표현되었던 초기의 작품들에서 느낄 수 있었던 삶에 대한 진지함과 색감자체에서 느껴졌던 명상이나 고요함을 뛰어넘어 색이 화려해진만큼 화려한 색의 이면(裏面)에 가려져 있던 우울함과 더불어 처연하고 공허한 느낌마저 느끼게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소비문화의 대중미술이었던 팝 아트(Pop Art)는 1960년대 초기에 미국과 영국화단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범람했던 기성의 이미 지들을 차용함으로써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대량생산과 대중전달 수단이 낳은 생활양식의 변화, 사고의 획일화와 조직의 거대화, 평준화 등에 의해 종래의 사회체계가 무너짐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던 시기에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대량생산과 소비가 절정에 달하게 되었고 고도로 발달된 매스컴의 기능으로 말미암아 대중들은 추상표현주의의 진부한 양식에

The art world of Jinokist:

Variations through paradox and borrowing of Pop Art

———— TaeHo Lee, Art critic, Head of Research Policy,
Iksan Cultural Foundation

The contemporary art represented by an instant era shows diversified trends owing to the expansion of various media, deconstruction of genre and a range of subject matters. Apart from outward factors lik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or the opening of de-ideology era, these phenomena are caused by the emergence of individualistic generations, critical historicism, kitsch, a wide range of creative desire by the use of new media, and dissolution of conventional truth and theories. The artist Jinokist also seems to b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meaning and nature of real art in the hectic stream of times. Although the earlier works of the artist presenting 'the basic question of life and death' hold the history of his childhood, the intrinsic depth of such feelings and expressions is not only very profound as much as serious concerns and introspection, but also very exotic and creative. The works introduced in this exhibition have newly changed in their visual appearance with innovative description. But her intense attitude toward the genuine meaning of art and the creation of work in the contemporary is still the same.

A characteristic of these works is to borrow a new form of Pop Art most of all. They have become brighter and their message looks powerful using strong primary colors of red, blue and yellow, whereas the Jinokist's earlier works were expressed with the monotone of gray, black and white. While looking into them with the greatest care, however, it is found that such superficial feelings faced at first are disappearing. In other words, these works expressed with intense primary colors make us feel gloomy, pitiful and empty hidden behind fancy colors beyond seriousness about life and meditation or tranquility sensed from the quality of the earlier works.

According to a French sociologist Jean Baudrillard, Pop Art represents the reality of 'the consumer society' most faithfully because the most outstanding thing is 'commodity' in that society. Since commodity is an already established sign coming out of the assembly line of a factory, its trademark replaces its meaning. This is the reason why the artist borrows the form of Pop Art here. She sends her own message, handling the characters and images of strong visual attractions such as Andy Warhol, the leading figure of Pop Art, the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famous actresses with metaphorical and symbolic signs.

Pop Art appreciates not the reality sensed directly but the established expression mode about the reality found among graphic design or mass media. On the one hand, the artist Jinokist employs the forms of Pop Art and methodological strategies which used popular and conventional images. On the other hand, such images have various intrinsic meanings different from Pop Art in a sense that they portray not only the reality sensed directly but also capture a critical view about the reality. From the image of Andy Warhol appearing with the statement of *Pop Art is dead*, we can see her critical view raising an issue about the commercialization of art. Also from the toilet associating Marcel Duchamp, seen is her will to succeed the idea and spirit of Dada which attempted novelty of art and the first start. A chunk of meat which emblemizes the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Jinokist
<p>무감각하게 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팝 아트는 우리에게 친숙한 광고 문안이나 상품의 사진 또는 유명 배우의 얼굴 포스터와 같은 것들을 변형 없이 캔버스 속에 재배치하였다. 프랑스의 사회기호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에 따르면 팝 아트는 ‘소비사회’의 현실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예술이었다. 왜냐하면 소비사회에서 가장 탁월한 사물은 바로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상품이란 공장의 조립라인 안에서 막 나온 기성의 기호이기 때문에 상표가 그것의 의미를 대신하는 그런 사물이다. 작가가 팝 아트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팝 아트의 대명사인 앤디워홀이나 고(故) 박정희 대통령, 유명 여배우 등 시각적 주목성이 강한 등장인물들과 이미지들을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기호로 조작함으로써 작가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p> <p>팝 아트는 직접적으로 감지된 현실이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이나 대중매체가 운데에서 발견되는 현실에 대한 기존의 표현방식을 그 음미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팝 아트의 가장 특징적이었던 측면은 팝이 형상성을 띠고는 있지만, 그것은 직접 관찰된 실재(實在)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공적인 제2의 이미지로서 채택된 것이었고 이런 이미지들이 화면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공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반면 작가 Jinokists는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이미지를 활용했던 팝 아트의 형식과 방법적인 전략을 차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이미지들이 직접적으로 감지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 역시 담아내고 있다는 의미에서 팝 아트와는 다른 내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직접적이면서도 다분히 은유적이다. ‘팝 아트는 죽었다’는 선언문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앤디 워홀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작가의 비판적 시각과 더불어 마르셀 뒤샹을 연상시키고 있는 번기에서는 예술의 새로움과 최초의 출발을 시도했던 다다(Dada)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 역시 엿볼 수 있다. 한 마리의 동물이 되어 거칠고 본능적인 두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느끼며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해 대중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작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고깃덩어리나 작품의 중앙에 중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작가 자신의 모습은 비단 작가 자신만의 모습이 아니라 현시대의 예술계를 바라보는 우리를 모두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p> <p>이처럼 팝 아트적인 표현형식과 전략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작가의 작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얼핏 포스터나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을 연상시킬 수도 있는 작가의 작품에서 이미지와 형상들은 화려한 배경의 색상위에 마치 부유(浮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형상과 이미지들은 마치 본질과 실재(實在)는 점점 사라지면서 이미지와 현상만이 세계를 사로잡아 그것들을 대신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이런 박진욱의 작품에서 포스트모더니즘시대의 대중매체시대를 지배하는 사물의 운명을 ‘표피의 존재론’이라 지칭했던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크라(Simulacra)’ 이론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시뮬라크라는 실재와 주체가 증발된 채 기표(記標)들만이 유희하는 공간으로서 거대한 모조공간이다. “실재가 이미지들과 기호들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는 보드리야르의 언급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사물의 내면적 실체성이 증발해 버린다는 점을 압축적으로 표</p>	<p>will of the artist to show that she watches and feels reality with wild and instinctive eyes as an animal, or the image of herself appearing in the center of the work as the key element expresses all of us symbolically and metaphorically who watch the art world of the present as well as the artist herself.</p> <p>As such, there is another element on which we should focus in her work that has diverse meanings through the Pop-Art expression modes and strategies. Images and figures in her work which looks like a poster or illustration at a glance throw a feeling as if they were floating on colors in the showy background. This work demonstrates us the Simulacra theory of Jean Baudrillard who referred to the fate of a thing as ‘ontology of epidermis’ which dominates the era of mass media of postmodernism. Simulacra are vast fake space where only ballot papers play without esse and the subject. Borrowing strong visual attractions, it is apparent that the substance and esse, not to speak of implication and symbolic meaning implicit in the images, are all evaporated and disappear.</p> <p>Jinokist brings up a serious question once again through another method and question. She is concerned with the impact of popular art on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direction to advance through the Pop-Art factors. She places emphasis on a series of process and flow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work rather than the result. Therefore, she not only shows eager attention to art and work creation, but also recognizes the dignity about human beings and art and the significance of their true nature. This attitude is disclosed in her work note.</p> <p>The dignity of art mirrors the spirit of the age observed from a new angle to develop the age and to lead the public. Searching for the nature of art is the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and it is the revolution of consciousness happening in between. Despite the media full of innovation and development, the awareness of the public becomes a bland in this era. The revolution of the public awareness is the responsibility of artists. However, the arts of the contemporary art are more concerned with compromise than revolution.</p> <p>—— From the note of the artist</p>
228	229

현한 것이다. 작가의 작품 역시 시각적 주목성이 강한 이미지들을 차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그 이미지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사물의 본질과 실재는 물론이고 암시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역시 증발되고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 보자. 작가 Jinokist는 또 다른 방식과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진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서구 팝 아트 작가들이 서구사회의 일상적인 현상들을 매혹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소통의 방법’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도록 유도하였던 것처럼, 혹은 고급문화의 체계를 고수하면서도 대중과 친숙한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심리적인 경계를 허물었던 것처럼, 다분히 팝 아트(Pop Art)적인 요소들을 통해 대중예술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작가의 나아가야 하는 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결과보다는 작품제작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과 흐름을 중요시하고 있는 작가는 예술과 작품창작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인간에 대한, 예술에 대한 존엄성과 본질의 중요성 역시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작가의 작업노트에서도 엿보인다.

예술의 존엄성은 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그 시대를 좀 더 발전시키고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예술의 본질을 찾는 것이 결국 대중과의 소통이며,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의식의 혁명이다. 미디어와 매체는 혁신과 개발로 가득하지만 정작 대중들의 의식은 텅 비어있는 시대이다. 대중들의 의식(意識)에 대한 혁명은 바로 예술가들의 몫이다. 그러나 현대미술의 예술은 혁명보다는 타협을 중시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 작가의 작업 노트 중

박진욱

artist8293@hotmail.com
www.facebook.com/jinokpark

학력

— 추계예술대학교 동양화 전공, 2001~2003
— Ontario College Of Art & Design (Faculty of Fine Art, Drawing & Painting)전공, Toronto, Canada, 2005~2008

주요 개인전

— 교동아트 레지던시 기획 초대전
Jinokist, 교동아트 스튜디오, 전주, 2012

주요 그룹전

— <게니우스와 유노 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Jma
스페이스, 서울, 2012
— <On Air전>, 교동아트 스튜디오,
전주, 2012
— <V-party>, 쿤스트 라운지, 광주,
2012
— <What's on>,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기획전, 2013

레지던시

— 교동아트 레지던시 3기 입주작가,
2012
—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2013~2014

Jinokist

artist8293@hotmail.com
www.facebook.com/jinokpark

Education

— Studied Oriental Painting,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2001~2003
— Studied in the Faculty of Fine
Art, Drawing & Painting, Ontario
College Of Art & Design, Toronto,
Canada, 2005~2008

Selected Solo

Exhibitions
— Gyodong Art Residency
Invitational Exhibition, Jinokist,
Gyodong Art Museum, Jeonju,
2012

Selected Group

Exhibitions
— *Genius and Juno*, Jma Space
(Jeonbuk Museum of Art), Seoul,
2012
— *On Air*, Gyodong Art Museum,
Jeonju, 2012
— *V-party*, Kunst Lounge,
Gwangju, 2012
— *What's on*, Special Exhibition
of Residency Artists in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2013

Residency

— The 3rd Gyodong Art
Residency, 2012
— Gyeonggi Creation Center,
2013~2014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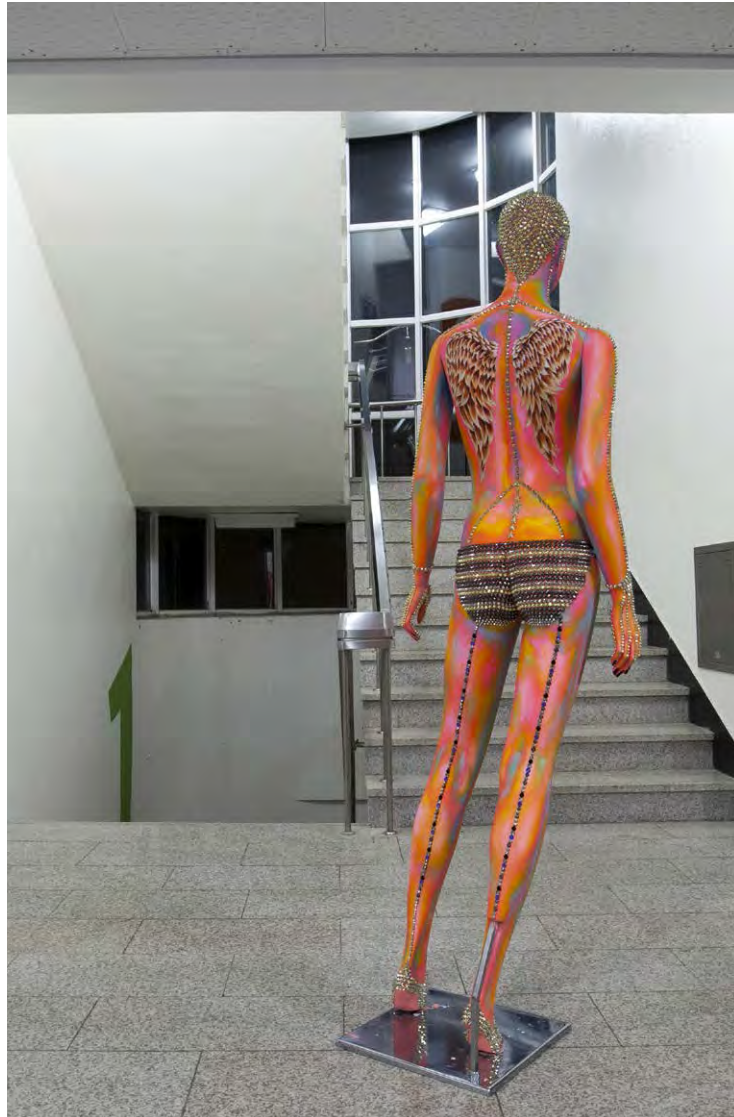
Jinokist



Pop is dead
227.3×181.8cm, oil on canvas, 2012



The good die young
240×180 cm, oil on wood panel



DaDa is dead
가변설치, 2014

236

237

양쿠라
Yang kura

일상의 삶 속에 가장 반복되는 현상 중 하나는 이동이다. 이동은 각각의 목적성에 따른 발걸음으로 본인 또한 현대사회의 한 개인으로서 자신만의 목적성에 따른 이동을 해 왔다. 하지만 본인은 남들이 항상 같다고 하는 일상의 풍경을 이동 중에 감상한다. 비록 획일화된 재료로 만들어진 건물과 도로들의 풍경이 펼쳐지지만, 그러한 풍경 안에 조금씩 다른 풍경이 발견되기도 한다. 본인이 발견하는 풍경은 시간성에 따른 변형으로 생성된 것으로, 다양한 형상들로 감상이 된다. 또한 이미지들을 수집하며, 수집된 이미지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해당 이미지들은 흔히 보수돼야 하는 것이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며 이미지가 지닌 시대적 의미는 획일화되어가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유희거리와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미지 발견하는 행위에서 우연성이 크게 작용하며 우연적 발견행위는 무의식을 배경으로 정리되었다. 무의식은 현실세계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반영되는 것이기에 정신과 현실세계의 연결고리이다.

In a daily life, one of the most repeated phenomena is movement. As a step following individual's finality, I have moved for my own finality as a person. While moving, however, I appreciate everyday landscape which is regarded as the same by others all the time. Although the landscape of buildings and streets built by uniformed materials, a little bit of different landscape is occasionally discovered. The landscape observed by me is generated by transformation according to temporality, which is the subject of enjoying the diversity of forms. I collect images and sometimes give them spiritual and physical values. Those images are considered as things to be repaired or things unnecessary. Periodical implications of images have new amusements and many different stories of the contemporary which has become monotonous. Contingency works greatly on the discovery of such images, coincidental discovery of act is arranged on the basis of unconsciousness. Since unconsciousness is reflected by the experiences and feelings in the real world, it is a link between the spirit and the real world.

자연피로현상에 의해 생성된 형상을 보고 어떠한 이미지와 연관 짓는 습관이 작업에 있어 시발점이 되었으며 동시에 시간과 장소(場所)를 주목하게 되는데 “왜 이 장소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며, 왜 그렇게 비춰 졌을까?”라는 발견한 이미지에 대한 장소의 특수성에 주목을 하게 된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유는 무의식 또는 경험으로 습득된 이미지들로 어떠한 이미지들은 과거를 회상하게 되며 그러한 무의식을 찾아가는 과정은 과거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본인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생겼으며, 어떠한 표정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통해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을 객관적 실체로 간주하여 스스로 낯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My work is triggered by a habit to associate some image when I see a form produced by the phenomena of natural fatigue. At the same time, it pays attention to time and space, distinctiveness about images discovered: “Why do I feel this in this place, and why is it portrayed like that?”

The reasons about those are that some images make us recollect the past with ones acquired by unconsciousness or experience, and the process to find such consciousness is as facing my face which I have never seen how it looked like in the past. Through my eyes reflected on the mirror, I can read how I look like, what kind of expression I have and what I think, which is to experience a sense of self-unfamiliarity by regarding myself as an objective substance.



양쿠라

학력

— 중앙대 일반대학원 조소과 졸업, 2013
 중앙대 예술대학 조소학과 졸업, 2009

주요 개인전

— «walking on the street, the move», EMU문화복합공간, 서울, 2012
 — «walking on the street, Sea lion», Placemak, 서울, 2011

주요 그룹전

— «어린이 꿈틀 잔», 경기도 미술관, 안산, 2013
 — «여름 생색», 가송재단 주최, 공아트스페이스, 서울, 2013
 — «포트폴리오 잔», 사비나 미술관, 서울, 2013
 — «KIST와 함께하는 상상미래잔», 예술마루, 여수, 2013
 — «RE», 동덕여자대학교, 서울, 2012
 — «하늘을 보다», KI 빌딩 카이스트, 대전, 2012
 — «네트워크잔», 가창 스튜디오, 대구, 2012
 — «북한강을 바라보며», 서호미술관, 양평, 2011
 — «人 spiration»,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서울, 2011
 — «132.231405m», 나비갤러리, 서울, 2011
 — «부산항 빛 축제», 송도해수욕장, 부산, 2010
 — «투모로우페스티벌», SBS, 서울, 2010
 — «무아», 구로아트벨리, 서울, 2010
 — «WG», Graben Neubau, 슈트트가르트, 독일, 2010

project

— WHO project, Korea, 2008
 — Future of Kampong trach, Cambodia, 2012

레지던시

— 경기창작스튜디오 2013(후반기), 2014

Yang kura

Education

—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2013
 — Department of Sculpture, College of Arts, Chung-Ang University, 2009

Selected Solo Exhibitions

— *walking on the street, the move*, EMU Multipurpose Art Hall, Seoul, 2012
 — *walking on the street, Sea lion*, Placemak, Seoul, 2011

Selected Group Exhibitions

— *Wriggling for Children*,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2013
 — *Summer Credit*, sponsored by Gha Song Foundation, Gong Art Space, Seoul, 2013
 — *Portfolio*,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13
 — *Imagining the future with KIST*, Yeulmaru, Yeosu, 2013
 — *RE*,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2012
 — *Looking at the sky*, KI Building, KAIST, Daejeon, 2012
 — *Network*, Gachang Art Studio, Daegu, 2011
 — *Gazing at North Han River*, Seoho Museum of Modern Art, Yangpyeong, 2011
 — *Inspiration*, SeMA Nanji Residency, Seoul, 2011
 — *132.231405m*, Gallery Navee, Seoul, 2011
 — *Busanhang Festival of Lights*, Song-Do beach, Busan, 2010
 — *Tomorrow Festival*, SBS, Seoul, 2010
 — *Ecstasy*, Guro Arts Valley, Seoul, 2010
 — *WG*, Graben Neubau, Stuttgart, Germany, 2010

project

— WHO project, Korea, 2008
 — Future of Kampong trach, Cambodia, 2012

Residency

— Gyeonggi Creation Studio, 2013 (the second half), 2014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Yang kura







행복은 불행, 위안은 고통, 치유는 상처를 내포하듯 모든 감정에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지만, 그 중 감정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행 중 낯선 세계에서 받았던 편안함과 온기는 작업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다. 치열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익숙한 공간이 주었던 답답함 대신 설렘으로 다가왔다. 지쳐있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여유가 생겼다.

2010년부터 헌 옷을 재료로 뜨개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의 흔적이 깃든 헌 옷을 편집하고 엮어서 실타래를 만든 후, 한 코 한 코 연결해 편물을 완성하고, 갤러리 바닥에 덮거나 쌓아서 전시한다. 뜨개질 바늘의 교차되는 움직임과 실의 얽힘은 나와 타인, 내부와 외부, 현실과 이상 등 세상에 공존하는 것들을 엮어나가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옷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처럼 각기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얽히고 설켜 현재를 완성하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그 곳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을 수

As happiness involves unhappiness, comfort pain, and healing hurt, two contrast elements are co-exist in every emotion. Yet the work is carried out emphasizing on positive aspects from those emotions. The comfort and warmth gained from a strange world while travelling have become important subject matters of the work. Thanks to it, I could get out of an intense daily life and it came to me as a thrill instead of stuffiness given by the familiar space. As watching and accepting myself who have been tired, I have become more flexible psychologically.

Since 2010, I have been working on knitting with used clothes. After compiling and weaving worn-out clothes with our traces to make a skein of yarn, I complete a knitwork stringing each stitch, which covers the floor of the gallery or is stuck up to be displayed. Movement of a knitting needle and entanglement of thread are considered to be an act to weave things co-existing in the world such as me and others, internal and external, and reality and ideal. As a wide variety of colors in cloth itself, every different thing is naturally interlaced to complete the present time. Facing up to the reality and admitting it can be the begin-

있길 바란다.

‘행복’, ‘위로’, ‘치유’ 등은 예술에서 가장
식상하고 지루한 주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편안
한 상태, 공간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가슴 속에 따스한 울림을 전
해주고, 더 나은 생활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다.

—— 이선희

ning of healing. There it is expected that we
can see ourselves and find hope.

‘Happiness’, ‘comfort’, and ‘healing’
could be very stale and boring topics. If we
can communicate with numerous people by
making a comfortable condition and space,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is conveys
warm resonance in somebody’s heart and
helps live a better life.

—— Sunhee Lee

학력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입체미술전공 졸업, 2010
—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졸업,
2007

주요 개인전

— 〈진부하지만 그것이 진심〉,
미술공간現, 서울, 2011
— 〈Can you hear me?〉,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 청주, 2011
— 〈위로의 방-weaving the real
heart〉, 안국약품 Gallery AG, 서울,
2010

주요 그룹전

— 〈DoLUCK Ending party〉, 통의동
보안여관, 서울, 2013
— 〈위로의 방법〉, 갤러리 푸에스토,
서울, 2013
— 〈증발展〉, 호연갤러리, 수원, 2013
— 〈아르텍스모다[제3의 공간-일상의
오브제]〉,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
2013
— 〈죽음상설-고수풀이[ON & OFF]〉,
문화역 서울 284, 서울, 2013
—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아카이브
라운지, 사비나 미술관, 서울, 2013
— 〈What's on〉, 경기창작센터
상설전시장 프리박스, 안산, 2013
— 〈Home sweet home〉, 쉼마
미술관, 충북 청원군, 2013
— 〈차유:다섯개의 시선〉, 노암갤러리,
서울, 2013
— 〈80-89 감성 이미지〉, 성곡미술관,
서울, 2012
— 〈line on line〉, 신미술관, 청주,
2012
—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유용지물〉,
청주문화재단업단지, 청주, 2011
— 〈Être(존재)-특별한 표정展〉,
아트스페이스펠, 대구, 2010
— 〈중간보고展〉, 청주 미술 창작
스튜디오, 청주, 2010
— 〈Take care of yourself(석사학위
청구전)〉, 국민아트갤러리, 서울, 2010
— 〈Kollabo〉, K-art space, 성남,
2009
— 〈B108〉, 국민아트 갤러리, 서울,
2009
— 〈Plug and Play〉, 갤러리 아이,
서울, 2009
— 〈환승〉, 갤러리 호, 서울, 2008
— 〈26개의 시선〉, 천안 시민 회관,
천안, 2008
— 〈착한(善) 꽃〉, 국민아트갤러리, 서울

레지던시 및 기타

— 경기창센터 후반기 입주작가, 2013
— 통의동 보안여관 DoLUCK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2013
— 상반기 아르코미술관 전문가 성장
프로그램(신진작가워크숍), 2012
—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단기), 2010-11

Education

— Studied Three-Dimensional
Art, Graduate School of Kookmin
University, 2010
—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Sculpture,
College of Fine Arts and Music,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7

Selected Solo

Exhibitions

— *Tedious but that is sincere*,
Art Space Hyun, Art Space Hyun,
Seoul, 2011
— *Can you hear me?*,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2011
— *A room of consolation*
-weaving the real heart, Gallery
AG, Ahngook Pharm., Seoul,
2010

Selected Group

Exhibitions

— *DoLUCK Ending party*, Art
Space Boan, Seoul, 2013
— *Comfort Method*, Gallery
Puesto, Seoul, 2013
— *Evaporation*, Hyeon Gallery,
Suwon, 2013
— *Artexmoda [The Third Place-
Everyday Objec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rt Museum,
Daegu, 2013
— *Improvised Standing-
Drummer Performance [ON &
OFF]*,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2013
— *Artist's Portfolio Archive
Lounge*,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2013
— *What's on*, Gyeonggi Creation
Center Permanent Exhibition
Hall, Free Box, Ansan, 2013
— *Home sweet home*, Schema
Art Museum, Cheongwon-gun,
Chungbuk, 2013
— *Healing: Five Sets of Eyes*,
Noam Gallery, Seoul, 2013
— *80-89 Emotional Image*,
Sungkok Art Museum, Seoul,
2012
— *line on line*, Shin Museum of
Art, Cheongju, 2012
—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Useful Thing*, Cheongju
Cultural Industrial District,
Cheongju, 2011
— *Être(Being)-Special Looks*, Art
Space Puri, Daegu, 2010
— *An Interim Report*,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2010
— *Take care of
yourself(exhibition for a Master's
Degree)*, Kookmin Art Gallery,
Seoul, 2010



알던모든것-구의동
90×60cm, C-print, 2013



258

259

앞면 모든 것-북대동1
18.7×19.7cm, C-print 위 색연필 펜



진부하지만 그것이 진심
40×60cm, C-print, 2011

작가노트

최근 시작한 Folding on the folded 작업은 평면 작업의 상징인 캔버스를 전시공간의 모서리에 접어서 설치하는 작업으로, 이는 이전 작업에서 종이를 다루던 경험과 연장선상에 있다.

접다...

캔버스를 접고, 건축공간을 접는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종이를 접는 간단한 제스처에서 시작한다.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성을 실험해 보던 경험이 건축공간을 만지작거리고 캔버스를 장난치듯 접는다. 그리하여 종이의 물성이 건축물과 캔버스에 투영되어 그것들의 물성과 형태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가볍게 비튼다.

작업에서 보이는 점선들은 오리가미의 선으로, 이 선은 작업의 시작이 종이에서 부터임을 알려 준다.

artist statement

The work of 'Folding on the folded' started recently is to install a canvas of a symbol of two-dimensional work by folding on the corner of the exhibition space, which is an extension of the experience handling paper from the previous work.

Folding...

All these acts of folding a canvas and architectural space begin from a simple gesture to fold paper.

The experience of testing a property of matter, toying with paper, fiddles with architectural space and folds canvas like sporting. The property of paper is projected to the architecture and canvas, slightly twisting fixed conceptions about their properties of matter and forms.

Dotted lines in the work are those of origami, which acknowledges that this work begins from paper.

These origami lines between two different dimensions, including two and

평면과 입체, 건축공간과 종이공간(혹은 현실공간과 상상공간), 회화와 조각등 서로 다른 두 차원들 사이에서 이 오리가미 선은 이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 점선을 접기의 도구로 사용하여 2차원과 3차원을 오가며 작업을 발전 시키는 중이다.

three dimensions, architectural and paper spaces (or real and imaginary space), and paintings and sculptures play a role of the medium to connect them in a natural way.

These dotted lines are on the way of developing the work, coming and going between two and three dimensions.



Folding on the folded
162×162cm, 변형 화판, 아크릴, 2013

학력

→ DNSEP avec félicitation du jury, 부르주 국립 고등 미술학교, 프랑스, 2011
 → DNAP 디종 국립 고등 미술학교, 프랑스, 2007
 → 동아대학교 회화과 (동양화), 부산, 한국, 2001

레지던시 및 기타

→ 경기창작센터 레지던시, 2013

개인전

→ «PLI», Espace PRIVAT, 디종, 프랑스 2010, 2011

그룹전

→ «부산 청년 미술제(부산 미술로 꿈을 꾸게하다)», 부산문화회관, 부산, 한국, 2013
 → «왓츠온», 프리박스(경기창작센터), 경기도, 한국, 2013
 → «만남의 시작(부산, 함부르크 국제미술교류 공모전)», 구 부산진역사, 부산, 한국, 2012
 → «A Guichet Fermé», Maison de la Culture de Bourges, 부르주, 프랑스, 2012
 → «In Vitro II», Musée de l'Hospice saint Roch, 이수단, 프랑스, 2012

Education

→ DNSEP avec félicitation du jury, Ecoles nationale supérieure d'Art de Bourges, France, 2011
 → DNAP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 de Dijon, France, 2007
 → Department of Fine Arts, Dong-A University (Oriental Painting), Busan, South Korea, 2001

Residency and others

Residency in Gyeonggi Creation Center, 2013

Selected Solo

Exhibition

→ *PLI*, Espace PRIVAT, Dijon, France, 2010

Selected Group

Exhibitions

→ *Busan Young Artist Award(Busan makes us dream with arts)*, Busan Cultural Center, Busan, South Korea, 2013
 → *What's On*, Free Box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2013
 → *Beginning of meeting (Busan, Hamburg International Art Exchange Contest)*, Former Busanjin Station, Busan, South Korea, 2012
 → *A Guichet Ferme*, Maison de la Culture de Bourges, Bourges, France, 2011
 → *In Vitro II*, Musée de l'Hospice saint Roch, Issoudun, France, 2011



Folding on the folded
 72,7×72,7cm, 변형 화판,아크릴, 2013



Espace plié
검정 테이프 스커칭, atelier Dijon, 2007



Folding on the folded
100x100cm, 변형 화판, 아크릴, 2014

272

273

도미니카 스कु티닉
Domonika Skutnik

Dominika Skutnik General Artist Statement

Below I outlined a few points that are important for all my past and future projects, a handful of ideas that form a foundation for my creative process:

● I understand sculpture as a temporary, transient stage of materiality, an event in space. I create spaces / objects that are shape-shifting, un-fixed, to be dis- and re-assembled, finally taken apart. I am interested in elements

which, like atoms, converge into structures temporarily and then part ways. Formally, I often borrow industrial components for my works — cables, industrial scaffolding, chains etc., which, after being used in an installation, can and will be returned to their original purpose (building site, shipyard).

● The conceptual basis for my works is that I rework, re-enact in a personal dimension

phenomena of physics — energy, force, line, vibration, wave etc.

● I do not have “trademark” materials, shapes, methods. Each project begins at the point zero, then, the site itself, my ideas, research results all eventually converge and the form is finally cre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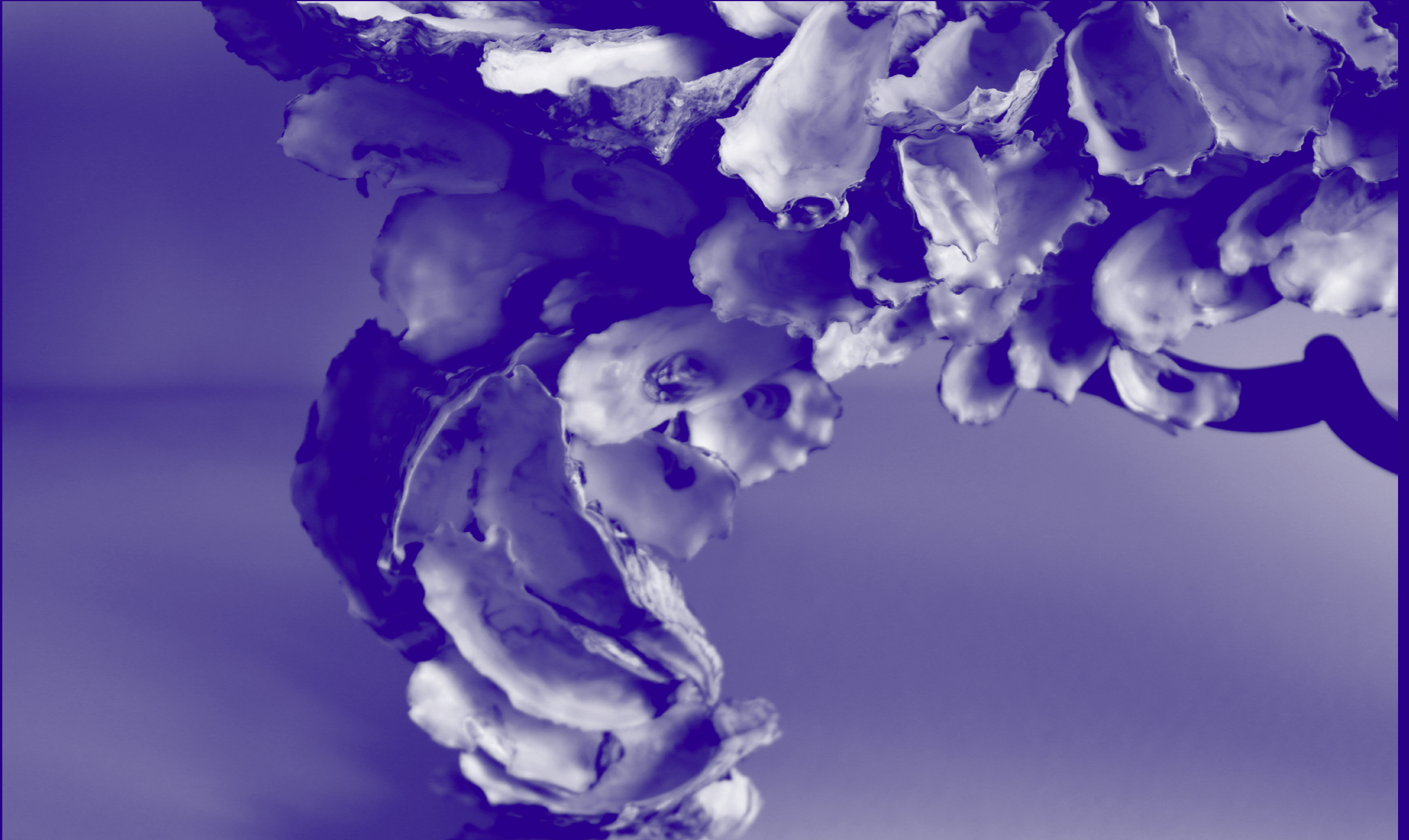
● Building each work is a new attempt to orchestrate the elements into the most forceful yet transient form possible. I am building to satisfy the need of construction, and to witness the physical forces involved, the interaction and destruction. Constructing means creating facts that otherwise would not exist.

● I am shifting from “site-specific” into “process-specific” projects. I look at the dynamic qualities of “processes” that underpin appearance of “things”. I want my work to temporarily transform and actively interact with the existing environment.

● I am creating structures that consist of equally important visible and invisible parts

(electromagnetic field, vibration, pressure, noise). These objects themselves produce and radiate their own physical energy, and thus enable actual interaction of physical impulses between a human body and the work. For example pieces that use electric current and are generators of electromagnetic fields (“Wreath”, “Field”, “Tattoo”) interact with electromagnetic balance of viewer’s body. The aim is to feel in a palpable way that the energy circling within the two systems – the sculptural and the living one – is the same.

- My work is non-metaphorical but it strives to create a physical and emotional zone.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direct, corporeal sensation of being embraced, included in the space created by a work.



Najeon
detail

Dominika Skutnik

Selected Solo

Exhibitions

- *White Cube Rot*, Verein für Raum und Form in der bildenden Kunst, Vienna, Austria, 2012
- *From Dialog to Goliad*, Dominika Skutnik & Henrik Eiben, Gdansk City Gallery, 2009
- *Tattoo*, site-specific installation, Platan Gallery, Budapest, Hungary, 2005
- *Direction*, site-specific installation, KOLO Gallery, Gdansk, 2003

Selected Group

Exhibitions

- *Open Monument*, Kunstraum Kreuzberg Bethanien, Berlin, Germany, 2013
- *A Glass of Water*, Futura Gallery, Prague, Czech Republic, 2013
- *Who's Afraid of the Cylinder, Sphere and Cone ? Geometry in the Landscape, an Alternative Vision of the Environment*, Musée départemental d'art contemporain de Rochechouart, Fr., 2012
- *Labour and Leisure : Alternativa International Contemporary Visual Art Festival*, ISW Gdańsk, Poland, 2011

Recipient of following art residencies

- City of Bremen Artist-in-Residence, Germany, 2004
- A-i-R Forum Stadtpark, Graz, Austria, 2005
- 18th Street Arts Center, Santa Monica, USA, 2006
- The Getty Reseach Institute, Los Angeles, USA, 2006
- City of Strasbourg Artist-in-Residence, France, 2011
- Stiftung Künstlerdorf Schöppingen Artist-in-Residence, Germany, 2011
- Gyeonggi Creation Center, South Korea, 2013
- Visegrad Artist Residency, Prague, Czech Republic, 2014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Domonika Skutnik







케시 웨이더스
Cathy Weyders

Cathy Weyders invents landscapes where to live and to survival demands camouflage, concealed in protective overalls, cowls or masks.

She develops her work through installations and polymorphic sculptures. These installations often take the appearance of organic houses which can appear as monsters, fantasy architecture or futuristic surgery rooms. Spaces that visitor can observe and penetrates at the same time. She is interested about nomadic architecture and built some-tents-shelters-nests-rafts...The notion of territory and refuge are subjects that influence her relation to space, questioning the concepts of comfort, protection, fragility, and survival...

Since 2004, Cathy Weyders has developed a universe around the theme of drowning, the Flood and the art of the shipwreck. Her sensitive research is anchored in a poetic universe inspired by ecological, environmental and urban reflections.



Dominika Skutnik

Education

- Saint-Luc School of Fine Arts in Luik, 2000
- Ecole de Recherche Graphique (ERG) in Brussels, -Option: Sculpture, Photographie, 2000
- Bachelor's degree in Fine Arts (sculpture), 2004

Selected Solo

Exhibitions

- *Kunst Moment*, Diepenheim, Netherlands, 2010
- *Batonium*, Iris Fest, Mont des Arts, Brussels, Belgium, 2010
- Performance *Wreck* with Monsieur Moo for the *Informal Festival*, Marseille, France, 2008

Selected Group

Exhibitions

- *TEAF'13 Taehwa River Eco Festival*, Ulsan, South-Korea, 2013
- *Dialogues*, Bangkok Art Cultural Center, Bangkok, Thailand, 2011
- *Moving Worlds , Roundabout II*, Triennale Young Creation, Luxembourg, 2010
- *Eastside*, Museum Da fundatie, Netherlands, 2010

Residencies

- gyeonggi creation center, Korea, 2013
- Home Sweet residence, Madrid, Spain, 2013
- Social Intervention, Hotel Maria Kapel, Hoorn, Netherlands, 2012
- Est Nord Est, Quebec, Canada, 2008
- Ateliers d'Artistes of the city of Marseille, France, 2007
- Ferme-Asile, Sion, Switzerland, 2007
- Project "GreenreFit", Pekarna Cultural Center, Maribor, Slovenia, 2007

Prices

- Price of outdoor young sculpture of the French Community, 2005
- Godecharle Price -Honourable mention of the jury
- Support to creation of the French Community of Belgium and support of the *Mecene du Sud* for the project *Wreck*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Cathy Weyders







한국 먹 그림의 새로운 모습

현대 세계의 숨결

———— 베고냐 로드리게스

개요

옛날 사람들은 먹의 어두운 색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한다. 적어도, 본인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다. 본 글에서 제시하는 작품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소재를 통한 인간과 우주와의 만남, 그 중에서도 인간과 산, 현대 도시의 만남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먹 사용 기법과 종이 제작 기법, 산을 묘사하는 독특한 기법과 최근에 우리가 겪은 빠른 도시 성장, 이 모든 것이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또한, 이 모든 요소들은 그림에 그대로 반영된다.

류회민(1958), 박능생(1973), 유승호(1973), 최해리(1978)를 비롯한 현재 활동중인 여러 한국 화가들의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작가들은 세대를 이어 먹을 사용한 그림을 그리는데 예술가이거나 현대의 예술가인데 이들은 먹을 사용한 흥미로운 작품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선사한다. 일부 작가들은 먹을 사용하여 전통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와 환상을 통하여 유머를 가미한다. 또 다른 작가들은 현대적인 시각으로 순수한 먹의 사용을 통하여 그림을 그린다. 위 작가들 모두에게 작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여러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이 글은 2013년 3월에서 5월 기간 동안 한국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창작센터 연구소에 머물며 완성하였다.

산의 영, 그리고 도시의 숨결

먹물을 사용할 때 수반되는 리듬과 그 순간성에 의해 먹을 사용한 그림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 독창성을 드러낸다. 먹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때에는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므로 눈속임이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 문예가이자 서예가, 그리고 화가인 소동파(1037-1101)는 다

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대나무를 그리려면 마음속에 대나무가 담겨 있어야 한다”

필시 류회민과 박능생 화가들의 마음속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산이 커져갔을 것이다. 과거 화가들처럼 류회민과 박능생은 산에 직접 찾아가 몸소 산을 느끼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산을 품은 후에 그림으로 그려냈을 터이다.

한국의 문화는 산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 면적의 약 70%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긴 산맥이 한국의 척추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와 더불어 샤머니즘, 그리고 호랑이가 조상이기도 했다는 아주 오래된 신화가 결합되어 산은 오늘날에도 한국인들의 생활의 중심이 되며 많은 주말에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 됐다.

류회민은 먹을 사용하는 몇 되지 않는 화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인지하고 있다. 류회민 작가는 부산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후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 석사를 졸업하고 부산에 자리를 잡았다.

류회민은 젊은 세대들이 동양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 성급하게 포기해버린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함과 동시에 양질의 종이와 먹물이 더 찾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였다.

또한 작품을 완성할 때에 재빠른 실행력이 요하며 감정에 매몰돼야 한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류회민 작가의 경우 시간이 날 때 산으로 직접 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다른 큰 작품의 기반이 될 스케치를 하기도 한다.

대가들이 수천 번 그렸을 이 산은 류회민 작가의 작품에는 대열로 이어진 아파트나 잿빛 건물의 예와 같이 인간이 만든 건축물로 인해 상처입고 뒤틀린 형태로 그의 작품에 등장한다.

이 건물들은 산이라는 위대한 자연의 묘한 경쟁자로 변모해 계곡의 깊이를 파괴하고 채움과 공백, 산과 계곡간의 상호작용을 없애고자 위협한다. 류회민 작가는 “산은 다른 시대의 화가들이 그렸을 때의 모습 그대로이지만 건물은 현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설명했다.

류회민 작가는 ‘산의 도시’ (143×592, 2012년)나 ‘통영’ (143×444 cm, 2013년)과 같은 큰 그림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감상을 전달한다.

박능생 작가는 “산을 그리는 것은 자신이 몸소 느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작가와 산의 영이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박능생 작가는 충남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으며 서울에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Begona Rodriguez



Visiting artists' studios
Park Neung Saeng

Visiting artists' studios
DUKE Choi





Visiting artists' studios
Park Neung Saeng

자리를 잡았다. 그의 작품을 통해 여러 산의 놀라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산과 함께 현대 도시와 잿빛 건물이 마치 “산맥”처럼 이어져 한데 얹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0년에 그린 번지점프 시리즈에서 박능생 작가는 도시를 산 자락에 그려 마치 허공에 있는 섬의 형태로 산과 도시를 한데 어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 위에 줄에 묶인 인간의 형상을 그려 불가능할 것만 같은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어지러운 현대의 세상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산행〉(2011)에는 배낭을 메고 등산스틱을 든 등산객들로 붐비는 산을 그렸는데 작품 안의 등산객들은 풍경을 감상하거나 정상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하얀 실루엣 형상으로 꾸준히 산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는 우리 모두를 나타내는 형상이다. 때로는 붉은 색을 사용해 그림 전체를 그림으로서 이 여과된 붉은 색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듯한 인상으로 주어 이 작품의 품격을 고취시킨다.

수목화는 전통적으로 붓과 연결되어 있다. 붓을 사용해 깊이와 리듬, 세세한 부분과 크기, 그리고 동작을 그려낸다. 박능생 작가는 작품에 새로운 요소를 가미하였다. 그는 작은 나뭇가지로 먹줄을 종이 위에 그림으로서 산의 나무나 수풀을 자연스레 표현해낸다.

서울 도심은 역사적으로 안에서 둘러싸는 산 네 개와 바깥에서 둘러싸는 산 네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박능생의 여러 야심작에 등장한다. 서울을 360도로 재현해낸 큰 작품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림의 세부적인 요소를, 다양한 시각, 그리고 그 크기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든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터전으로 삼고 싶어하는 꿈의 도시 서울은 우리 눈 앞에 장엄하게 그 위상을 드러낸다. 작가는 “도시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자연이다”라고 말한다.

뉴욕과 관련된 시리즈를 비롯한 박능생 작가의 최근 작품을 통해 작가는 도시의 자연을 소재로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공원, 관광객, 자동차나 간판과 같은 내부 요소들이 그림으로 표현된다. 조합, 새로운 시도, 그리고 역사

먹과 산의 관계를 논할 때 전통 그림 산수화가 빠질 수 없다. 유승호 작가는 Echowords시리즈를 통해 이 사실에 주목한다. 한성대에서 학사를 마친 유승호 작가는 송나라 북부(960-1127)의 전통 중국 풍경과 한글을 사용하여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재생산한다.

유승호 작가는 한글의 사용을 통하여 때로는 의성어로, 때로는 어린이들의 언어로 작품을 완성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폭포

의 소리나 멀리 계곡에서 울리는 메아리 소리나 로켓이 발사되는 소리 등을 표현한다.

약간 거리를 두었을 때는 이 형태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가까이에서 보면 음절의 뭉치만이 보인다. 만년필 잉크를 사용한 수개월간의 힘들고 세밀한 작업한 끝에 이미지로부터의 분리를 표현해 낸과 동시에 웅장한 전통 풍경의 거리감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작가는 제시한다.

유승호 작가는 최근에는 거의 시각적인 시와 같은 형태의 텍스트를 진화시켜 최소한의 조각들로 표현해내며 독창성과 유머로 점철된 작품을 보여주었다. “말이 예술을 설명하는 세상에서, 과연 말이 예술을 구성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라고 유승호 작가는 설명하였다.

최해리 작가를 비롯한 일부 작가의 경우에는 역사, 예술의 역사, 미술관, 기억, 그리고 컬렉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는 방안으로서 먹을 사용하였다.

최해리 작가는 덕성여자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동양화로 전공하였으며 예전 화가들이 사용하던 재료를 사용하여 위대한 작품들을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변형시켜 재구성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심사정, 정선의 작품을 비단 하나에 복제하였다. 이 작품에는 고양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이 두 고양이를 한데서 비교를 해 볼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휘종(11세기)의 하산도를 놀라운 정도로 명확하게 복제하였으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수집가가 소장한 작품처럼 표현하기 위하여 그 위에 유리를 설치하였다.

또 다른 접근법

또 다른 관심 작가들 중에는 성태훈(1967), 김봄(1984) 그리고 듀크 최(1989)가 있다.

성태훈 작가는 동양화 학사 및 석사를 전공하였는데 산을 배경으로 그림 때, 그리고 가전제품을 그림 때 먹을 사용하였다. 상공을 날아다니는 여러 헬리콥터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 성태훈은 늘 예상하지 못한 소재들을 작품에 삽입하였다. 그가 그린 다른 시리즈 중에는 닭이 벚꽃나무 주변을 날아다니는 그림도 있는데 이는 매우 충격적일과 동시에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묘사할 수 있겠다.

김봄 작가 또한 동양화를 전공하였으며 김 작가는 현대의 도시를 표현하기 위해 먹과 아크릴을 혼합하여 잿빛과 초록빛을 사용하여 고전적이며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Visiting artists' studios
YOO Seungho

듀크 최는 먹으로 작품을 그릴 때 그림 그릴 종이를 직접 만들어 굵이진, 에너지가 넘치는 형태가 가득한 작품을 만든다.

위의 작가들 외에도 한국에 머물면서 박병춘, 조인호, 김보민 그리고 손동현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접하게 되었다.

위의 작가들 대부분은 동양화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다른 재료와 기법을 혼합하여 작업 중이다. 현대 도시와 자연과의 상호작용은 가장 선호되는 주제이나 앞에서 봤듯 서로 다양한 시각에서 이를 소개한다.

먹은 70년대 대한민국에 큰 혁신기가 거친 이후에는 대형 전시회나 시장에서 선호되는 작품 중에는 나타나지 않는 듯 하다.

최근 몇 년 간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현대미술과 전통 풍경의 만남을 점검하고자 하는 전시들이 있었고 또 많은 전시회를 통해 회화와 서예의 밀접한 관계를 재확인한 바 있다.

지금은 위에 언급된 작가들이 앞으로 제시할 새로운 작품들과 먹을 사용한 그림에 이들이 기여하는 부분데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먹은 이제 그저 변함없는, 조화로운 세상을 그리는 대신에 변화를 거듭하며 살아 숨쉬며 진동하는 세상을 그린다.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New uses of the Korean ink
The breath of the contemporary universe
BEGOÑA RODRÍGUEZ

Introduction

The ancient said that the whole universe was contained in the darkness of the ink. I, myself, also believe in this very idea, or at least, I enjoy thinking about this possibility. The work selection that I propose here speaks about the encounter of the human being and the universe, especially, with the mountain and with the modern city, through a unique material.

All of the following have much to do with Korea, from my point of view: the mastery in the use of ink and in the paper elaboration, a particular manner to experience the mountain and the fast urban development which took place in the last years. And all, as logically, is formulated in the art.

This work proposes a journey through the pieces of the Korean artists, active in the present: Ryu Hoimin (1958), Park Neung Saeng (1973), Yoo Seungho (1973) and Hae-ri Choi (1978) among others.

These are artists from the consecutive or close generations who offer an interesting body of ink works, each one with different view. Some explore the limits of this traditional painting with humor, playing with it or connecting this art with illusion. Others remit to the purity of the encounter with this subject from a contemporary perspective.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them for opening the doors to their studies and for their kind answer to my doubts.

This work was elaborated in my residence of investigation in Gyeonggi Creation Center(GCC) located in Daebu-do island, South Korea, from March to May of 2013.

The spirit of the mountain and
the breath of the city

There is something unpredictable in the process of the ink, in its rhythmic and instantaneous execution, which makes it unique. It requires dedication, sincerity which challenges the deceit. It is well known the thoughts of the Chinese writer, calligrapher and painter, Su Dongpo(1037-1101): “Before painting a bamboo, one has to grow a bamboo in itself.”
We can evidence that the mountain has grown for

Begona Rodriguez

years inside the artists Ryu Hoimin and Park Neung Saeng. Just as the ancient painters, Ryu and Park visited the mountains, and lived a personal experience until taking the mountains inside them, and then painted it in their works.

The Korean culture is intensely related to the mountain. Around 70% of the Korean territory is covered with mountains, forming a mountain range, which acts as a backbone to the country. Associated to the Buddhist spirituality, to the shaman rituals and to the oldest

mythology of the country -with the tiger as one of its ancestral inhabitant-, the mountain persists nowadays as a stage of activity and great devotion during the weekends for many Koreans.

Ryu Hoimin is conscious of being one of the few artists who works with this technique in the present. Graduated from Oriental Painting from Busan National University and with master from Hongik University of Seoul, he is settled in Busan, southeast region of the country.

The artist laments the lack of formation of the young generations which, from his point of view, abandon as soon the study of Oriental Painting when faced with difficulties of this technique and at the same time, he denounces the lack of high quality paper and ink, which are being more challenging to find over time.

He is also aware of the exigencies of the direct execution and of the need of an intense emotion to create a piece of work. Some of his works are culminated from the very mountain, where he visits to paint there when he has time, and also makes sketches for other pieces of great format.

The mountains, painted thousands of times by the great masters, appear in the works of Ryu, passed through a chain of buildings and gray blocks, being hurt by the man made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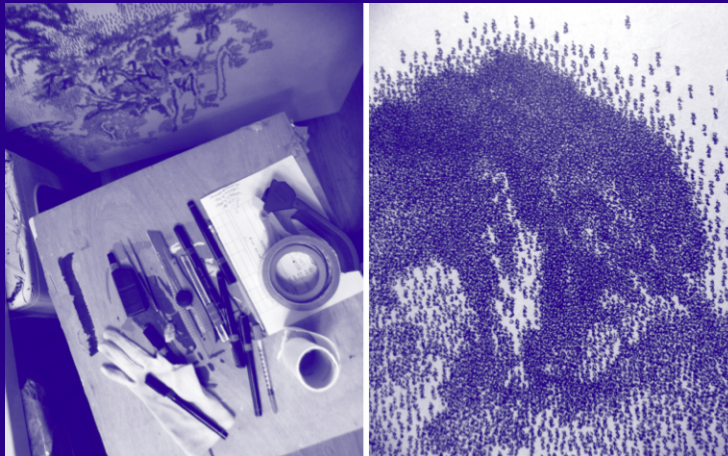
Through the grand format works such as *The mountains and the city* (2012), of 143×592cm, or *Tongyong*, of 143×444cm (2013), the artist manages to transfer the emotion from his experience to the viewer.

For Park Neung Saeng, "painting a mountain is revealing the original form of the nature, felt on one's own body", in a process where the spirit of the artist meets the spirit of the mountain.

Graduated and with master from Chungnam University and settled in Seoul, his work is composed of amazing panoramic taken from different mountains, presenting the contemporary city and the gray block of intertwined building that remind the "valleys".

© Begoña Rodríguez, 2013

beroguez@gmail.com



Visiting artists' studios
YOO Seungho



Visiting galleries
Sungkok Art Museum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In the series such like the Bungee Jump of 2010, the artist collects the city at the foot of the mountain and presents the set of mountain-city as a form of isle in an empty space. On it is presented a human figure hanging to a string, making a seemingly impossible jump, emphasizing all the contemporary vertigo.

In others, such as *A walk in the mountains* (2011), he brings forward a mountain with climbers equipped with bags and sticks, who are taking a recess, contemplating the view or making a last effort in their climbing. All of them form a procession of silhouettes in white in a continuous movement of ascension and descend from the altitudes, which are none other than the representation of us all. Occasionally, he applies a red and transparent ink to his entire work, as a filter which affects everything. This way, he gives an exceptional quality to his painting. The art of the ink is traditionally linked to the brush. The brushstroke brings density, rhythm, small shades, and resolves the volume and the movement. Park also inserts to his works another tool: a tree branch, a small stick with which applies the ink onto the paper and underlines the natural expression of the bushes and trees in the mountain.

The city of Seoul, historically framed by four interior, and four exterior mountains, is the chief feature of some of his most ambitious works, such as the huge piece where he reproduces the city in 360 degrees. The details, the multiple standpoints and the great format, achieve to invoke an extraordinary emotion to the viewer. Seoul, the grand city where millions of inhabitants dream in making a living, is majestically stretched before our eyes. According to the artist: "The city is another nature of our times".

In more recent works, such as his series about New York, he continues to work with the nature of the city, this time the interior, with scenes of parks, tourists, cars and neon signs.

The appropriation, the game and the history

The relation of the ink and the mountain, refers necessarily to the traditional painting, shan-shui (mountain-water) and the artist Yoo Seungho alludes to this reference in his series of Echowords.

The artist, graduated from the Han-Sung University in Seoul, appropriates the traditional Chinese landscapes, from the Northern Song Dynasty (960-1127), to reproduce them in a very particular manner: using the letters of the Korean alphabet, hangul.

Yoo uses the letters as a way to play with his work, sometimes with onomatopoeias, and in others, with words of the children. This way, he alludes for example, to the sonority of the waterfall, to the shouting

Begona Rodriguez

of the mountain climbers emitted from the high that play with the echoes of the valley, or to the sound of a shooting rocket, among others.

At medium distance, it is not possible to distinguish it. At a close distance, only a cloud of syllables are formed. This intense and meticulous labor for months, performed with stylograph ink, implies disintegration from the image and is a contemporary response of the artist to the remoteness of the magnificent traditional landscapes.

In his most recent works, Yoo evolves towards the texts that are almost visual poems, minimum pieces, but equally inspired and moreover, full of ingenuity and humor. "In a world where art is explained with words, I wanted to see if the words could constitute art, too", he explained.

Other artists, such as Choi Hae-ri, also made use of ink as their tool of work in search of the questioning about the history, the history of art, the museum, the memory and even the collectionism.

Choi, graduated and with master from Duksung Women's University in Oriental Painting, brings replicas of great works, at times altering them, and in others not, using the same materials as the artists from the past.

This way, she combines in a piece of silk the replicas of the work of Sim Sa-jeong and of Jeongseon, drawing two cats which for the first time allowed us to compare them together. Also she reproduces with astounding precision the Summer Mountains, attributed to Qu Ding (11th century) which is conserved in the present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New York, and presented in a showcase, as a pertinent piece of a fictitious collector.

Other approaches

Other interesting proposals are attributed to Seong Tae Hun (1967), Kim Bom (1984) and Duke Choi (1989).

Seong Tae Hun, graduated and with master in Oriental Painting, also applies ink for mountains and domestic interiors in which he always introduces a disturbing element, such as the example of helicopters flying over. In his other series, he presents cocks that fly around the branches of a cherry blossom, as a shocking and fantastic composition.

Kim Bom, specialized in Oriental Painting too, mixes Korean ink with acrylic in the search of a ashen gray and greenish tone that would express the contemporary city, maintaining at the same time a classic and majestic ambience.

Duke Choi fabricates his own paper to perform his



Researching
Archive

work with ink, and composes pieces full of winding and energy.

Other than these artists, during my stay in Korea I have come to know the work of others such as Park Byoung Choon, Cho Inho, Kim BoMin and Son Donghyun.

Most of them, trained in the same discipline, work today mixing other materials and techniques. The contemporary city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nature seem to have become one of the predominant themes, but with different perspectives, as we have evidenced before.

The ink lived a grand renovation period during the seventies in Korea and since then, it doesn't seem to appear in the first line of big exhibitions and market. During recent years, some exhibitions have taken the job to revise the tradition of the landscape in the contemporary art of Korea from all disciplines, and through many other expositions, we observed the always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painting and the calligraphy.

It seems lik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now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artists, such as mentioned above, and their new contribution to this genre.

Ink does not paint the universe in an idyllic harmony, but continues being our universe, ever changing, alive and vibrant.

© Begoña Rodríguez, 2013
beroguez@gmail.com

Begoña Rodríguez
beroguez@gmail.com

Education

— Bachelor of Communication (Journalism), University of Navarra, Spain, 1998
— Master of Fine Arts and Communication, Complutense University of Madrid, Spain, 2003
— Art Writing and Editing La Pupila Art Magazine (Montevideo, Uruguay), 2013–2014
— LAPIZ International Art Magazine (Madrid, Spain), 2004–2009
— NUMEN Art Magazine (Madrid, Spain), 2007–2009
— Art and Cultural Events Management Coordinator of Contexto, Association of Independent Publishers in Spain, 2012–2013
— Assistant to Baudoin Lebon Gallery (Paris, France) at international fairs in Spain, 2012–2013
— Cultural Advisor at the Embassy of Spain in Seoul, South Korea, 2011
— International Media Relations at El Greco Foundation Launching, Toledo, Madrid, 2010

Work History

— Feature Writer and Editorial Coordinator for newspapers and magazines: Diario de Sevilla, Huelva Información, La Voz de Galicia, EFE, Hachette-Filipacchi, Spanish Publishers Associates, 1999–2003

Awards & Residencies

— Culturex Fellowship in Cultural Management, Spanish Ministry of Culture, 2011
— Researcher-in-Residence at Gyeonggi Creation Center, Daebu-do, South Korea, 2013
— Master's degree Scholarship, Sp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13/2014

나디아 솔라리
Nadja Solari

나디아 솔라리는 스위스 바젤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그는 그래픽 디자인과 미술을 전공하였고 그의 작품은 층을 이루어 덮는 몇몇의 뒤섞인 세상들에 초점을 맞춘다. 가령 설치, 오브제, 애니메이션이 있다. 광고예술과 일상의 디자인은 종종 그의 작품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재료가 되기도 한다. 작업 과정에서 그는 이것들을 조각내고 재조합한다. 전체의 복합물은 작품으로서 진행중인 상태이고, 발견된 영화 필름들은 늘 다시금 재조합 될 것이다. 즉 섞이고 다시 섞인다. 이것은 선택된 지점에서, 혹은 긴 시간이 필요한 압축 과정을 통해 가시화된다. 작가는 그의 작업들, 비디오, 인터넷, 출력 등 매체에 그러한 맥락과 부합하는 패턴의 조합을 이용한다.

Nadja Solari works live in Basel, Switzerland. She studied Graphic Design and Art. Her work often focuses on layering, covering or several worlds which are mixing. For example, in her installations, objects and animation make balancing each other. Advertising art and everyday design are often both inspiration and material in her work. With a sampling process, she make them fragmenting and recombining, Complexity is her process to producing art and the found footage will always be recombined again-it is mixture and remixture. This is getting visible in selecting points or time-consuming and compressing proces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artist uses such a pattern combination in her works as well as new media with printing.

Dominika Skutnik

Education

- MA in Fine arts, University of Art Zurich, 2013–15
- BA in Fine Art, University of Art and Design Basel, 2002–05
- Typographic Designer+Class of Advanced Graphic Design, School of Design Basel, 1994–97
- Typographic Apprenticeship, Bern, 1989–93
- General Schools, 1979–89

Recent 4 shows

- *Cut-Set*, Ausstellungsraum Klingental, Basel, 2014
- *Tokyo Wonder Site Rollercoaster*, Windows Volume No.6, Tokyo, 2014
- *Multiple*, Multiples, The Container, Tokyo, 2013
- *Rotkot*, Tombola, Zurich, 2013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Nadja Solari



twelve monkeys
individually casted plaster-bananas,
acrylic paint; size 20×48×9cm, 2010

일제 린더스
Ilse Leenders

Artist Statement

My work initiates from an anthropologist like point of view; culture and history are departure points for a topic of research. So is the project I made during my artist in residence at Gyeonggi Creation Center inspired on Korean rock gardens. My interest in Korean rock gardens emerges from my fascination for the philosophy of Zen Buddhism and nature worship practiced since ancient times in Asia.

Since a very young age I am fascinated by Japanese culture. Throughout the years I learned that the aspects of Japanese culture that interested me most are originated from Zen Buddhism. The philosophy of Zen Buddhism manifest across different levels of the Japanese culture, for example in the various art forms that inspire me, like garden design, nôh theatre, the tea ceremony and haiku.

The Japanese have made their very unique way to practice Zen Buddhism, but for a long period new knowledge from the East came to Japan through the gateway of Korea (also Zen Buddhism). To deepen my research on Zen Buddhism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nd equivalents between the two cultures, I have studied the history and design of Korean rock gardens. Since na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Zen Buddhism and is a returning topic in my work

I interfere in landscapes (or cityscapes) and use the (artificial) nature as décor or 'stage' to construct my own (theatre-like) contemporary story. The elements in the staged photographs are full of references coming from the topic of my research. In conjunction these elements assemble past and present and are of significant meaning and relevant to the subject.

In this project references to historic symbols of the design of Korean rock gardens are combined with remarkable elements from the contemporary Korean culture.



Ilse Leenders

Education

— Royal Academy of Art The Hague NL – B.A. Fine Art Photography 2001, 1997–2001

Selected Solo & Duo

Exhibitions

— *Semblance*, ACF Amsterdam Centre for Photography, NL, 2012
— *Short & Sweet*, CBK Rotterdam, NL, 2010
— *Simulacre–La Galerie la Feronnerie a 20 ans (9)*, La Galerie la Feronnerie, Paris, FR, 2009
— *Darmstädter Tage der Fotografie*, Museum im Residenzschloss, Darmstad, GER, 2006

Selected Group

Exhibitions

— *City Drifts*, Retort Art Space, Amsterdam, NL, 2012
— *Tokyo-Ga*, New York Photo Festival, NYC, 2012
— *Award Show– Fotosommer* Stuttgart Württembergischer Kunstverein Stuttgart, GER, 2010
— *Bouw in Beeldprijs 2010*, Cobra Museum, Museum of modern art, Amstelveen, NL, 2010

Prizes

— Fotosommer Stuttgart, Awardshow: Nomination, 2010
— Top 20 SCREENing Awards 2010: Nomination, 2010
— Bouw in Beeldprijs NL: Nomination, 2010
— Dutch Doc Award NL: Longlisted, 2010
— The Johanna and Tom Baruch Honorary Fellowship Award, USA, 2009
— Viewbook PhotoStory 2009 NL: 2nd Jury Prize–Conceptual Photography, 2009
— 50th Annual Photography Exhibition Communication Arts USA: Award of Excellence 2009, 2009
— IPA International Photography Awards: Honorable Mention, 2009
— Hyeres International Photography Competition: Longlisted, 2009
— PANL Awards #17 NL: Nomination, 2008
— PANL Awards #15 NL: Silver Award, 2006
— PANL Awards #15 NL: Best of Members Award, 2006
— PANL Awards #12 NL: Members Choice Award, 2003

Grants

— Crowdfunding for project during the artist in residence at Gyeonggi Creation Center, KR, 2013
— O & O subsidie (Research and Development Grant) Centre for Visual Art Rotterdam NL, 2011
— Contribution to working budget, The Netherlands Foundation for Visual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NL, 2008
— Startstipendium, The Netherlands Foundation for Visual Arts, Design and Architecture NL, 2005

Residencies

— Gyeonggi Creation Center, KR, 2013
— Djerassi Resident Artists Program, USA, 2009
2008
Tokyo Wonder Site, JP
— Van Doesburghuis, Meudon FR, 2005

Selected

Publications Books

— *Im Laboratorium der Moderne, -Das Atelierwohnung von Theo van Doesburg in Meudon-*, Matthias Noell, gta Verlag, Zürich, 2011
— *Fotosommer Stuttgart*, 2010
— *Viewbook Photostory Yearbook*, Blurb 2009
— *Tokyo Monogatari - Viewbook Photostory 2nd Conceptual Jury Prize*, Blurb, 2009
— *Fotofestival*, 8th International Festival of Photography in Lodz, 2009
— *Monat der Fotografie*, Wien, 2008
— *Backlight International Photo Festival 08 Tickle Attack*, 2008
— *PANL, Photography Annual of the Netherlands # 17*, 2008
— *Darmstädter Tage der Fotografie*, Selbstsicht der Schritt ins Bild, April 2006
— *PANL, Photography Annual of the Netherlands # 15*, 2006

Resident Artists of GCC 2013

Ilse Leen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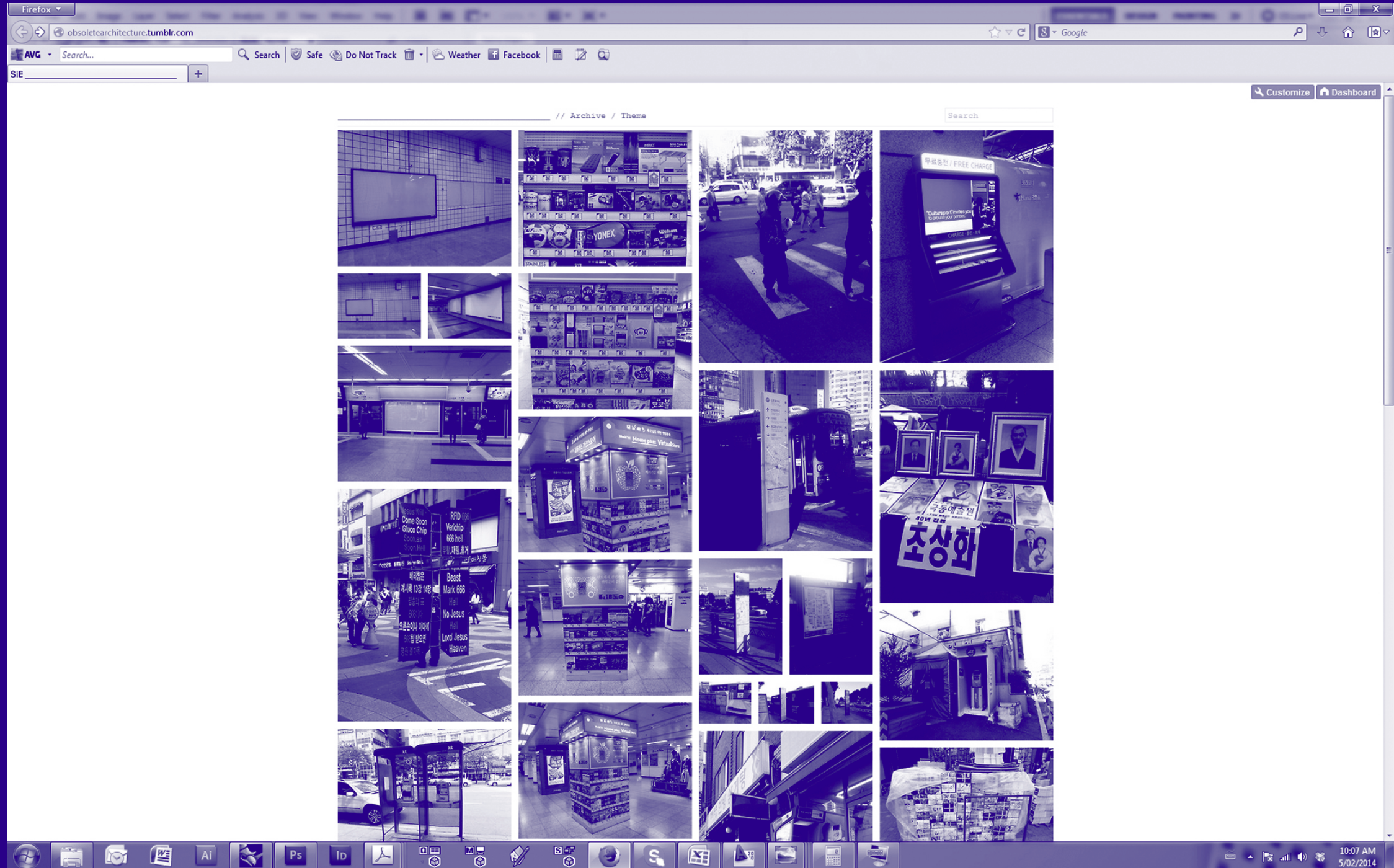
As Seoul has been labelled the 'most connected' city in the world, we used our time in South Korea to investigate what effect this has on the physical infrastructure of the city.

The way we connect with one another through technology to housing, health education and financial capital - transforms the way we live work and play, and also has an effect on the infrastructure of the city and how the public infrastructure needs of the city is changing.

The speed-up of techno-socio-political forces brings both positive and negatives, but it also leaves behind obsolete architecture and infrastructure. With so many daily human functions, transactions and services becoming online and wired, we wish to identify analogue infrastructure in Seoul, which becomes obsolete through this take over. The starting point is by viewing the city as a diverse ecosystem in constant flux - it's growth directed by the interaction of natural, political, economic, technological and cultural forces. We wish to view these infrastructures in order to identify them as spaces and programs for a new economy.

During the time in Seoul we mapped and documented different infrastructures throughout the city which we hypothesize as 'obsolete', or soon to be obsolete. These types of infrastructure (for eg. Phone booths obsolete from mobile phones, advertising billboards obsolete from online advertising, newspaper stands obsolete from online news, physical maps from mapping apps, post boxes obsolete from email etc).

From there we had real photographic evidence and then also documented and modelled these infrastructures as digital representations of the structures too. The work is then to present the images of both real analogue photos and rendered 3d images of these structures (photo booths, newsstands, map structures) on a digital device so the audience is viewing the analogue representation and the digital representation through a device which has caused the change in itself, implying a continuous loop. The audience swipes and pinches the screen viewing the images and in essence the everyday object becomes fetish sized through the mode of viewing. All of the documented images are also published on an online platform.



Selected Built Works

- Dream Space Station, Childrens Pavilion Utrecht, Netherlands, 2013
- Acheron landscape and homestead masterplan, Murrindindi Shire (ongoing), 2013
- Archive, Concept Store, Melbourne, 2013
- House Family 3 houses Blackburn (ongoing), 2013
- Bar Extension Stage II, Meyers Place, Melbourne (ongoing), 2013
- Warehouse Conversion 4 town houses, Fitzroy (ongoing), 2013
- Public Offer exhibition design at the RMIT Design Hub, Melbourne, 2013
- Walking Shelter, Mobile Habitat, 2013
- SIBLING Nation Inhabitation self initiated, Fitzroy, 2012
- Rooftop retail masterplan, Melbourne Central, Melbourne, 2012
- Bar Extension Stage I, Meyers Place, Melbourne, 2012
- Mister Brightside cafe Caulfield, 2012
- EnMasse office fit-out, Prahran, 2012
- Artist House extension Private Client, Richmond, 2011
- PAM (Perks & Mini) store fit-out, Darlinghurst Sydney, 2011
- Studio Kitchen Surviving Sustainability Westwing Project Space, collaborating with clothing label ffxXed and Condiment magazine 2010
- State of Design Festival, 2010

Selected Exhibitions

- ON/OFF, ABP Alumni Survey Series, Wunderlich Gallery, Melbourne University, 2013
- SOCIO-PATH - Spatial Experiments in Film, curated by SIBLING as part of the 2013 Sydney Architecture Festival, 2013
- SIBLING Nation Flag II Meyers Place Art Space, curated by Drew Pettifer & Benjamin Creek, 2013
- Contributor, *BYOB (Bring Your Own Beamer) group show*, curated by Antuong Nguyen & Ry David Bradley RMIT Design Hub, Melbourne, 2013
- Encounterculture short film screening, Open Agenda, Customs House, Sydney, Architecture Festival, 2012

- Parallel Lines Chair in collaboration with menswear label Pageant, as part of the Melodies in the Air group show curated by Theodore Wohng and Stacy Jewell, No Vacancy Gallery, Melbourne, 2012
- SIBLING Nation Flag at the Housewear group show curated by Many Many, Design Gallery BWA Warsaw, Poland, 2012
- Live Broadcast, contribution to the BYOB group show curated by Antuong Nguyen, Emile Zile & Ry David Bradley, Tristian Koenig Gallery, Prahran, 2011
- Competition entry, Australia House, in collaboration with Andy Yu Echigo-Tsumari Art Triennale 2012, Japan, 2011
- Solidarity Thing collaborative installation with Antuong Nguyen and Pageant as part of the 2011 State of Design Festival, Craft Victoria, Melbourne, 2011
- Apps 101, contribution to Critical Mobility, curated by BUS Projects (Nella Themelios, Ryan Johnston and Jared Davis) as part of the 2011 State of Design Festival, Museum Forecourt, Carlton, 2011
- Whisper Dish, contribution to the Noise in My Head group show curated by Michael Kucyk of RRR Radio and Melissa Loughan, Goodtime Studios, Carlton, 2011
- Space Cookie, part of the Supermarket group exhibition/ event, curated by Kim Brockett, Gertrude Contemporary Art Spaces, 2010
- I Don't Think You're Ready, contribution to the Play with your Food group show and dinner, curated by Bus Projects Auction Rooms North Melbourne & Blindside Gallery, Melbourne, 2010
- Beyond the Pleasuredome installation Utopian Slumps fundraiser, Mercat Below, Melbourne, 2010
- Infinity Mirror, part of the Day Spa group show curated by Roger Nelson & Lisa Warbrick NoNo Gallery, North Melbourne, 2010
- Unsolicited Architecture installation and event at the in collaboration with Rory Hyde and Volume National Architecture Conference, Sydney, 2010

Selected Teaching & Workshops

- SIBLING Masters Studio 'Black Mirror', University of Melbourne, 2013
- SIBLING Masters Studio 'Public Ecology', University of Melbourne, 2013
- Interior Design Studio and Workshop leaders, RMIT University, 2013
- Interior Architecture studio leaders and guest workshops, Monash University, 2013
- Architecture Foundation Studio, Monash University, 2013
- Architectural Theory, RMIT University, 2013
- SIBLING Masters Studio 'On Growth & Form', University of Melbourne, 2012
- Interior Design Studio and Workshop leaders, RMIT University, 2012
- Interior Architecture studio leaders and guest workshops, Monash University, 2012
- Architecture Foundation Studio, Monash University, 2012
- Architectural Theory, RMIT University, 2012

Selected Awards

- Shortlisted in best 'Emerging Designer' category, IDEA Awards. (Pending), 2013
- Shortlisted in best 'Event Design' for Public Offer, IDEA Awards. (Pending), 2013
- Selected for the Artist in Residency Program at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Seoul, South Korea, 2013
- Winner, Open Agenda architectural research grant,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2012
- Short listed, Qantas Spirit of Youth Award (SOYA) Architecture category, 2012
- Profiled in Formations, the Australian contribution to the 2012 Venice Architecture Biennale, Italy, 2012





